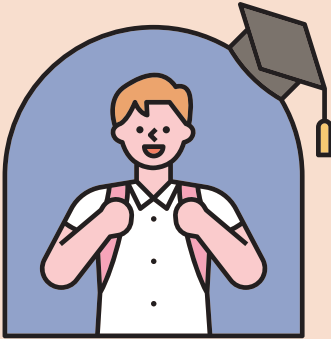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인사말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관련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2009년 이래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교육 현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1년 제13회 공모전의 수상작들도 다문화교육의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 ‘편견과 차별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은 편견과 차별을 차가운 얼음에 비유하고 따사로운 인류애와 박애주의로 편견과 차별을 녹여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UCC 부문의 최우수상 ‘한국인의 기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감정과 언어적 표현으로 문화적 배경을 초월한 한국인의 동질감을 표현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자료, 교육수기, 상담사례 부문의 최우수 작품들은 학교·사회·가정 등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문화영역과 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2년 약 4만 7천 명이던 다문화학생은 2021년에 1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다문화학생이 세 배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다문화교육을 통한 조화롭고 포용적인 평생학습 사회 구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

심사총평



성상환

심사위원장(서울대학교)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담당하게 된 서울대학교 성상환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 일반인들의 노고와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개선에 기여하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사회의 교원과 학생들, 일반인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확산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다문화학생의 교육회복에 대한 사례발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총 437편의 응모작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총 48편을 최종 선정하였는데 주제적합성과 독창성, 활용도, 적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사례 평가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분야의 포스터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응모자들이 한국의 다문화 심화 현상을 편견과 분노의 시각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많은 포스터 출품작들이 아름다운 이미지로 조화와 공존, 존중과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다문화 인식개선 분야의 UCC 부문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동시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감수성 향상이라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UCC 매체의 특성상 다수의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전달 방식을 취한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작품이 주제적인 탐구와 창의적인 표현 면에서는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UCC 분야의 일부 참가작의 경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가 발견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실천사례에서는 교육자료의 경우,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교육수기의 경우 선정된 응모자의 진솔함과 성취의 과정이 잘 드러났으며 수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시간, 성장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 주어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응모한 여러 수기를 심사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수용성이 한 발짝 더 나아갔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웃들,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정책을 통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들, 또 다양한 다문화사회의 접점에서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실천사례로서 상담사례 부문에서는 상담의 단순한 성과보다는 상담이 이루어진 접근방법과 상담자의 책무성, 윤리성 등이 잘 녹아있는지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심리상담이 아니라 다문화 상담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와 내용도 성숙되고 더욱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다문화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은 많은 발전을 하였고 학생들의 인식개선은 많이 향상된 것 같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의 성인들에 대한 지표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사례 개발을 통하여 현장 다문화교육의 적용과 확산을 돕고 글로벌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CONTENTS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초·중·고 학생 8

다문화 인식개선 UCC

누구나 20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자료

교원 및 강사 28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초·중·고 학생 160

교원 및 강사 180

일반인 234

다문화 실천사례 상담사례

상담(교)사 250

1장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최우수상

편견과 차별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

김연우 (대전예술고등학교)

우수상

색은 다양할수록 아름답습니다.

박민서 (배곧해솔초등학교)

우수상

공존하는 우리, 함께 쌓는 세상

최유정 (송현여자고등학교)

우수상

다양함이 어우러져 만드는 따뜻한 세상

박동후 (신명여자중학교)

장려상

개성있는 우리들

문지원 (호명초등학교)

장려상

언어는 달라도 같은 우리

심지은 (동백초등학교)

장려상

차별과 편견이라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존중과 포용

유준상 (세광중학교)

장려상

다양한 문화로, 함께 만드는 세계

이호빈 (삼양초등학교)

장려상

'편견' 이란 뚜껑을 열면 보이는 다양한 문화

유지환 (관기초등학교)

장려상

다름다움에 선을 이으면, 아름다움

서유나 (대덕중학교)



최우수상

편견과 차별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

김연우 | 대전예술고등학교



작품소개

따뜻한 곳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편견과 차별을 녹이면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얼음 속에 여러 나라의 국기를 그려 넣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그 얼음들이 녹으면 모두 물이 되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이며 one, 평화롭고 peace, 서로 사랑하는 love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심사 의견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목적과 당면과제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일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메시지를 주제로 접근하여, 내용과 형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매우 재치 있게 전달하고 있다. 편견과 차별을 차가운 얼음에 비유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를 녹여, 그 안에 갇힌 다양한 국기들이 얼음이라는 구속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모습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장면을 구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주제 문구의 위치와 대비, 주제부의 정밀한 묘사도 훌륭하여 완성도 역시 뛰어난 작품이다.



우수상

색은 다양할수록 아름답습니다.

박민서 | 배곧해솔초등학교



작품소개

우리가 사는 넓은 세상에는 황인, 흑인, 백인 등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편견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무지개가 여러가지 색이 모여 더 빛이 나듯 우리 세상도 여러 색을 가진 모든 세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한다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심사 의견

다문화와 다인종은 색에 주로 비유된다. 이는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다. 색은 우리의 피부색과 문화의 색이기도 하며,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다문화를 색에 비유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장면을 구성하였다. 색은 다양할수록 아름답다는 메시지는 우리의 다양성이 모여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 갖게 한다.



우수상

공존하는 우리, 함께 쌓는 세상

최유정 | 송현여자고등학교



작품소개

이 작품은 같은 지구촌에서 피부색, 환경과 언어, 심지어 시차도 다르지만 차별없이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국기가 그려진 젠가를 지구촌 세상으로 빚대어 여러 인종을 가진 손들로 쌓는 것처럼 표현한 작품입니다.

심사 의견

세계의 공존, 우리나라 안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 쌓아가는 세상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메시지를 아이들이 즐겨하는 젠가라는 게임의 형태를 취하며 매우 흡입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제부에 표현된 묘사력과 양감이 매우 뛰어나 전체적인 완성도도 높은 작품이다.



우수상

다양함이 어우러져 만드는 따뜻한 세상

박동후 | 신명여자중학교



작품소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한복, 그중에서도 오방색이 어우러진 색동저고리의 조화로움과 따뜻함을 다문화의 어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색동저고리를 통해 각자 고유의 색을 잃지 않고도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바탕은 치마폭으로 전 대륙을 감싸 안은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공존과 따뜻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심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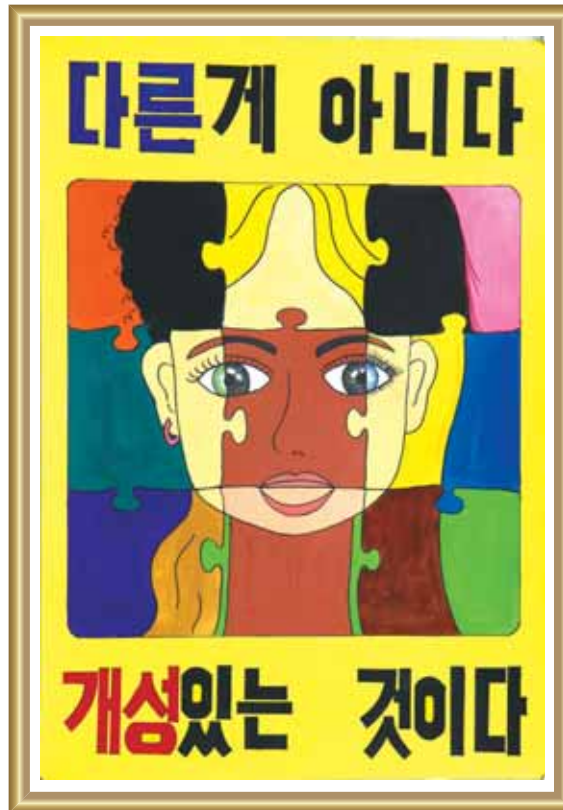
다문화교육이 강조하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우리의 문화를 먼저 바르게 익히고 체화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품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특징과 메시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방색과 색동저고리를 화면의 중심에 보여주며, 색동저고리가 갖는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장려상

개성있는 우리들

문지원 | 호명초등학교



작품소개

우리들의 겉모습은 다르지 않고 각자의 개성이 풍부한 것이지 모두가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퍼즐처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였을 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함께일 때 우리 사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심사 의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다문화교육은 아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아이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른 게 아니라 개성 있는 것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는, 퍼즐을 이용해 다양한 피부색이 조합되어 완성된 한 명의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지니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아이들이 이 작품을 포스터로 만난다면, 이 메시지를 아주 가깝게 느낄 것이 분명하며 일상에서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장려상

언어는 달라도 같은 우리

심지은 | 동백초등학교



작품소개

어린이들 손에 있는 커다란 하트,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크고 뜨겁다를 표현하였고, 피부색이 다른 팔에 차고 있는 팔찌는 지구촌 국가를 표현했습니다. 언어, 피부색은 모두 다르지만, "사랑해"라는 표현은 모두 같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우리"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심사
의견

본 작품은 다문화를 은유하는 '다양한 언어'라는 주제를 구현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구를 배경으로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화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러 명의 손을 모은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언어·문화적 다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집중도 높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려상

차별과 편견이라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존중과 포용

유준상 | 세광중학교



작품소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을 차별과 편견이라는 자물쇠가 막고 있고, 이 자물쇠를 푸는 열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하는 자세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심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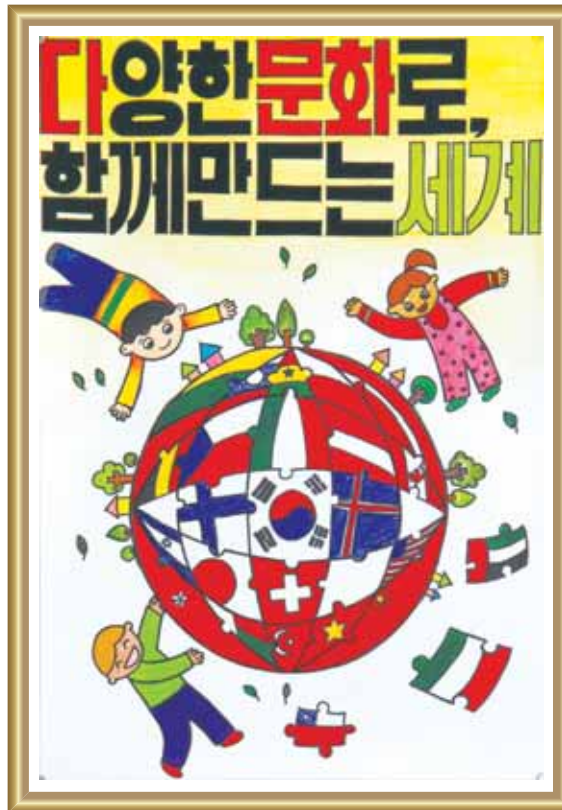
차별과 편견은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사고이자 태도이다. 이 작품은 다문화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자물쇠라는 상징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를 존중과 포용이라는 열쇠로 풀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함께 담고 있다. 적극적인 메시지와 명료한 시각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꼽힌다.



장려상

다양한 문화로, 함께 만드는 세계

이효빈 | 삼양초등학교



작품소개

지구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지구가 하나의 퍼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이 각각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되고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심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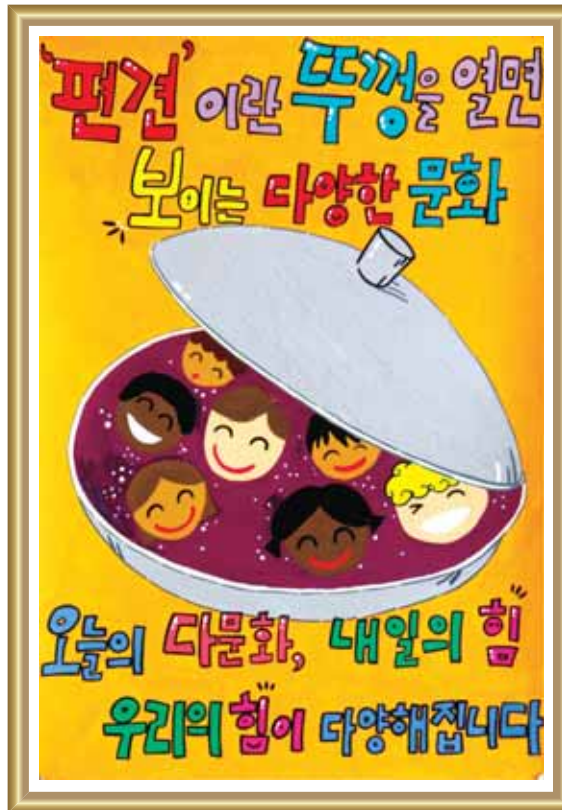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강조하였으며 둥근 지구에 여러 국가와 인종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각 나라의 국기를 퍼즐로 시각화하여 서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가와 문화가 위계 없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장려상

'편견'이란 뚜껑을 열면 보이는 다양한 문화

유지환 | 관기초등학교



작품소개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 앞에 '편견'이라는 것을 앞에 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맛있는 문화들도 많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귄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의 힘이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 편견의 힘을 벗어내는 것이 다문화의 진정한 나아갈 과정임을 표현하였습니다. 편견의 뚜껑을 계속 열어서 그 속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에게 힘이 되길 기원해보는 작품입니다.

심사의견

이 작품은 다문화사회에서 편견 인식을 걷어낼 때 다양하고 역동적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냄비와 뚜껑이라는 물체로 표현하여 뚜껑을 열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 미래의 힘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장려상

다름다움에 선을 이으면, 아름다움

서유나 | 대덕중학교



작품소개

두 금붕어는 누가 봐도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에 그들만의 장점이 도드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은 금붕어는 매력적인 검은 빛깔에 은은한 주황빛이 아름답고, 흰(주황) 금붕어는 새하얀 바탕에 깔끔한 주황의 그라데이션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겼더라면 아름다움이라는 미의 기준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름다움에 선을 이으면 아름다움'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의견

다문화를 '아름다움'이라는 용어와 접목하여 딱딱하지 않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표어와 그림을 배치한 구도와 표현이 독창적이라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2장

다문화
인식개선
UCC



최우수상

한국인의 기준

김나윤, 정솔, 신준영, 문아인
(동성초등학교)

우수상

친구야 사랑해

정우현, 박재은, 임은준, ARORA AARAVPREET SNGH,
처칠로엔존, 처칠사룻줄리
(대전어은초등학교)

우수상

아연이의 우정일기

지하영, 김아연, 박채원
(동성초등학교)

장려상

우리는 독수리 5형제

윤준식 (죽곡초등학교)

장려상

함께 꽃피는 우리

묵난희, 김다민, 김별, 김윤서, 김하린,
민채원, 육지우, 이선우, 이수형, 전윤수, 정다운,
정민서, 정민재, 황지영, 전상우, 박지혜, 양지우
(대전동광초등학교)

장려상

다문화라고 다 외국인이 아니야

진서진, 장혜원, 박시온, 양서연
(대전천동초등학교)



최우수상

한국인의 기준

김나윤, 정솔, 신준영, 문아인 | 동성초등학교



작품소개

우리 부모님은 국적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국적 때문에 우릴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슬프지만 재밌는 영상과 웃음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심사의견

다문화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출연한 학생들의 재미있는 표현과 잘 짜여진 구성을 통해 모두가 똑같은 한국인임을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잘 부합하고 UCC의 특징인 깔끔한 영상과 메시지 전달을 잘 살린 것으로 보인다.



우수상

친구야 사랑해

정우현, 박재은, 임은준, ARORA AARAVPREET SNGH, 처칠로엔존, 처칠사뭇줄리
| 대전어은초등학교



작품소개

생김새와 언어가 다르다는 두려움과 선입견이 서로 친구가 되는 기회마저 놓치게 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UCC에서는 5개국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스피드퀴즈를 하며 공통의 언어인 사랑을 확인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이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쌓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사 의견

다문화 어린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의 다름을 우리에게 친숙한 스피드퀴즈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었다.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는 주제에 매우 부합하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영상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우수상

아연이의 우정일기

지하영, 김아연, 박채원 | 동성초등학교



작품소개

사람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안 좋은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왠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런 마음이 내 소중한 친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는 그냥 내 소중한 친구일 뿐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더 불쌍 하지도 않고 우정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사 의견

다문화학생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학생을 도와줘야하는 대상으로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잘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의 표현력과 영상미도 뛰어나다.



장려상

우리는 독수리 5형제

윤준식 | 죽곡초등학교



작품소개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잘하는 것들도 다르지만 독수리 5형제처럼 서로의 장점을 복돋우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5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의 장점을 계발하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심사의견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춰 영상 잘 제작하였다. 각 나라의 어린이들이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어 미운 오리였지만 백조가 된다는 가벼운 듯 하지만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매우 감동적인 ucc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0년 후에 다문화 국가로서 더 발전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되는 멋진 작품이다.



장려상

함께 꽃피는 우리

묵난희, 김다민, 김별, 김윤서, 김하린, 민채원, 육지우,
이선우, 이수형, 전윤수, 정다은, 정민서, 정민재, 황지영, 전상우, 박지혜, 양지우
| 대전동광초등학교



작품소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사의견

다문화 친구들의 다름을 특별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중하게 피어난 꽃'으로 비유한 점이 참신하다. 5개국의 언어로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메시지가 영상 안에서 반복되며 꽃같이 예쁜 아이들의 꽃같은 마음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피어난다.



장려상

다문화라고 다 외국인이 아니야

진서진, 장혜원, 박시운, 양서연 | 대전천동초등학교



작품소개

다문화 가정의 다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다가 그 오해를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심사 의견

이 작품은 선의의 마음과 행위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미묘한 관계를 잘 포착해서 흥미로운 서사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의식적이지 않은 행위도 차별이 되는 상황이 다문화 가정과 친구에게 더욱 소외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주제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쉽고 재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형식과 내용도 좋았다.

3장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자료



최우수상

다문화어울림 루틴수업 :

한글문해력과 다문화감수성을 함께 키우다.

진하정 (안산석수초등학교)

우수상

문화(CUL.TU.RE) 학습 전략으로 열어가는 다문화 교실

안윤주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우수상

살아있는 한국어에 D.I.P! 생(生)생하게 각인하기

홍정민 (아산남성초등학교)

우수상

함께 그리는 『다 같이 가치』

교육연극놀이 프로젝트로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김은진 (대구논공초등학교)

장려상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박성윤 (송신초등학교)

장려상

모자이크 프로젝트

임현미 (백산고등학교)

장려상

문화감수성을 갖춘 세계시민이 될 우리들 ■△◎ 프로젝트

이유정 (오산초등학교)

장려상

상상플러스 -

수업교류를 통한 상호문화 프로젝트로 상생(相生) 더하기

강수희 (대전외삼중학교)

장려상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온라인 평가도구 개발

이평수 (원미유치원)



최우수상

다문화어울림 루틴수업 : 한글문해력과 다문화감수성을 함께 키우다.

진하정 | 안산석수초등학교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대상학교급(학년) | 초등학교(2학년)

심사
의견

별도의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지 않은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이 미숙한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통합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일임을 고려할 때, 본 자료는 다문화 학생 밀집학급에서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문화 교육 방법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책을 활용해 읽기, 낱말학습, 하브루타, 놀이를 통한 활용이라는 수업 루틴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 밀집학급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수업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수업이 다문화학생에게 성장 기회를 주고 있는가?

“다문화공개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다문화학생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다문화공개수업을 참관하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혁신학교로 전체 재학생의 40% 정도가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이다. 이전에는 한국어에 능숙한 중국계 학생이 대부분이라서 다문화교육 영역별로 주제 중심 다문화어울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인근 학교에서 러시아계 학생이 급속히 유입이 되었다. 점차 일반 학급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수업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담임교사들이 늘었다. 이에 방과 후 한국어교실을 열어 다문화아동들의 한국어학습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입을 열지 않았고 학습뿐 아니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학생의 현황이 달라졌는데 학교 수업 및 공개수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의 뼈아픈 일침은 다문화혁신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나에게 꼭 풀고 싶은 과제로 남았다.

‘많은 교사들이 한국어특별학급이 생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한국어특별학급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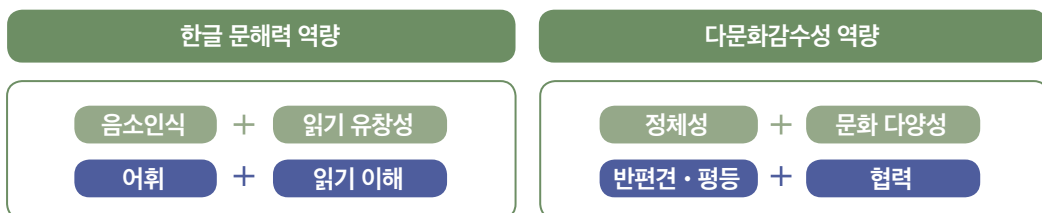
다문화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모든 학교에 바로 한국어특별학급이 생길 수는 없다.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이나 한국어 특별학급이 있더라도 다문화아동이 하루 일과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반 학급에 한국어를 익히고 아동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쉬는 시간이나 아침, 방과 후 시간은 담임교사와 아동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야 하므로 교사나 아동 모두 쉬지 못하고 부담이 된다. 학교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다문화어울림 수업에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수업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던 중 EBS 다큐와 한글문해연수를 통해 문해력과 한글학습지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어디선가 듣고 갖고 있었던 ‘다문화학생들이 6개월이면 귀가 트고 1년이면 입이 튼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부끄러워졌다. 뇌과학연구에 의해 언어학습 과정의 기저가 밝혀졌으며 일반 학생의 20%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글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다 친절하고 세분화된 단계별 학습 지도를 하면 한글 해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한국어에 대한 노출과 책 읽기 조력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그림책을 도구로 한글 문해력과 다문화감수성을 담다. *Harmony*

본 수업자는 2021년도에 창체 교과 전담교사로 1,2학년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수업을 계획하면서 저학년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그림책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림책은 **세계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다문화감수성을 일깨워 반성적 사고를 통해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를 점검할 수 있다. 독후활동으로 실천적 체험활동을 한다면 아동들의 흥미와 학습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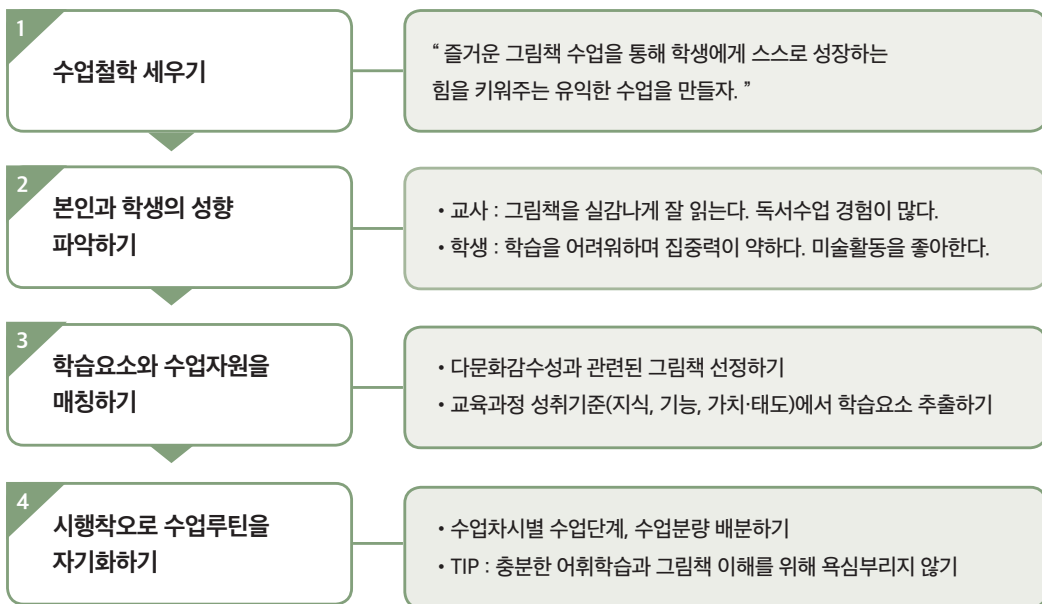
■ 다문화어울림 수업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수업루틴이란 교사가 수업에서 일정 수업 흐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이며, 그 흐름 속에서 자주 활용하는 수업 방법을 말한다.¹⁾ 수업루틴을 잘 구성한다면 수업 준비 부담을 덜고 수업 자체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다른 교사들도 쉽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우리학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50% 미만인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루틴이 필요하다. 이에 본 수업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그림책을 통해 문해력과 다문화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문화어울림 루틴수업을 설계하였다.

➡ 다문화어울림 수업 루틴을 탐구하다. *Harmony*

- 다문화어울림 수업 루틴을 세우기 위한 절차



1) 유영식 (2020) 수업잘하는 교사는 루틴이 있다. 테크빌교육 81쪽

㉠ 다문화어울림 루틴 수업을 세우다.

	차시	수업단계	수업활동	교사의 주요 발문	학습도구
블록 수업	1	배움시작	· 낱짜 묻고 답하기 · 동기유발 · 어휘학습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술래잡기 놀이를 해본 적 있나요? 다음 그림을 보고 선생님의 말을 따라해보세요.	그림책표지 한글어휘 PPT 한글자모음표
		배움탐구	· <지우개지우기>하며 · 그림책 읽기 · 낱말빙고게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안 낱말이 나올 때마다 낱말에 ○표 하세요. ○표 한 낱말을 9칸 빙고칸에 쓰고 빙고놀이를 합니다.	낱말카드 학습지
	2	배움표현	· 그림책 하브루타 · 글쓰기, 미술활동 등 · 독후활동 하기	이야기 속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요? 몽퉁한 손모양 때문에 주먹밖에 내지 못하는 사슴의 마음을 역할놀이로 위로해봅시다.	감정카드 가치보석카드 문장카드
		배움활용	· 체험활동하기 · 성장 평가하기	팔을 다친 친구를 위해 가위, 바위, 보 놀이를 발로 하여봅시다. 일어나서 다함께 놀이해보아요. 오늘 새로 알게된 점이나 느낀점을 말해봅시다.	PPT 문장카드

다문화어울림수업을 위한 TIP

1. 배움표현, 배움활용 단계는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대체가능하다.
2. 모든 학습자료의 글씨체는 **고딕체**를 쓰고 글씨크기를 **13P 이상**으로 가독성을 높인다.
3. 어휘학습단계에서는 반드시 한글낱말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러시아어를 병행표기**한다.
4. 그림책 이해를 돕기 위해 동기유발 단계에서 아동들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며 그림책 읽는 중간 중간 이해도를 발문으로 계속 확인한다.
5. 다문화감수성 주제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학습욕구를 자극한다.

■ 한글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 루틴

수업활동	활동방법	활동 사진	활동효과
어휘학습	· 그림책 내용 이해를 위한 필수 어휘를 PPT 자료로 그림과 함께 학습한다. · 교사를 따라서 낱말을 읽는다. · 학습지에 낱말쓰기 연습을 한다.		★ 본 수업활동 전에 먼저 어휘학습을 하여 수업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다.
지우개 지우기	· 학습지의 주어진 낱말 표에서 이야기와 관련없는 낱말 4개를 추측하여 아동이 X표를 한다. ·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언급된 단어는 ○표하며 자신의 추측이 맞았는지 확인한다.		★ 낱말을 체크하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집중력을 높인다.
빙고놀이	· 위에서 ○표한 낱말들을 빙고 칸에 써 넣으며 빙고 칸을 채운다. · 아동들이 번갈아 가면서 낱말을 부르고 귀 기울여 들으며 빙고놀이를 한다.		★ 빙고놀이를 하며 낱말을 듣고, 읽고, 쓰는 반복학습을 통해 어휘가 익숙해진다.

- 한글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어휘를 4~5번 이상 반복하여 놀이와 게임 형식으로 흥미롭게 반복학습을 하도록 한다. 그림책 분량에 따라 수업활동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다문화어울림 루틴 수업으로 그림책 여행을 떠나다.

❖ 단원명 : 우리는 지구촌 한 가족

❖ 단원의 개관

다른 생김새와 문화를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로의 다른 점을 비난한다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누리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주제 ❶, ❷에서는 그림책 속 주인공과 배경들을 통해 초등 2학년 학생들이 편견과 정체성, 문화다양성을 인지적으로 깨닫고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소주제 ❸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놀이변형을 통해 체험해 보도록 실천적 배움으로 계획하였다.

차시	소주제	그림책	학습주제	문해력 역량	다문화 역량
1~2 (80분)	편견을 버리면 마음이 보여요 인지적·정의적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 주요어휘 : 울타리, 창고, 진흙, 이웃, 차, 사진, 풀, 사진, 삽	음소 인식	반편견
			· 데지레 아주머니의 마음을 공감하고 외국에서 온 이웃을 대하는 마음 알아보기		정체성
3~4 (80분)	이웃 나라의 문화 인지적·정의적	루비의 소원	· 주요어휘 : 붓글씨, 대학, 할아버지, 사촌, 결혼, 빨간 봉투, 가정교사	읽기 이해	문화 다양성
			·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기		평등
5~6 (80분)	달라도 함께해요 실천적	나안할래	· 주요어휘 : 사슴, 다람쥐, 너구리, 숨바꼭질, 가위, 바위, 보, 울음, 술래	읽기 유창성	정체성
			·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놀이규칙을 바꾸어 친구를 배려하기		협력

■ 다문화어울림 수업 속으로

1~2차시		편견을 버리면 마음이 보여요			
수업주제	편견을 버리면 마음이 보여요	관련교과	창체	그림책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성취기준	[2국03-02]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슬05-01]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다문화 역량 반편견 정체성
배움목표	데지레 아주머니의 마음을 공감하고 외국에서 온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문해력 역량 음소인식
상시평가	편견의 뜻을 알고 문화가 다른 이웃을 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지식이해)				

단계	수업루틴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활동사진
배움 시작	동기 유발 (10')	◎ 오늘의 날씨 묻고 답하기 ◎ 세계 여러나라의 집 모습 알아보기 - 이글루, 게르, 수상가옥, 진흙집, 한옥, 통나무집 등 ◎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그림책 삽화보고 추측하기 -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란 무슨 뜻일까?	☐ PPT, 영상 
배움 탐구	지우개 지우기&그림책 읽기 (20') 빙고놀이 (5') 내용이해 (5')	♣ 읽기 전 · 중 활동 ♣ ◎ 지우개 지우기 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기 - 외래어 (카메룬, 데지레, 프랑스) 읽기연습 * 한글파닉스 활동으로 한글 자모 음소인식하며 읽기 ♣ 읽기 후 활동 ♣ ◎ 이야기 빙고놀이 - 낱말 빙고 놀이를 하며 낱말과 친숙해지기 ◎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내용 파악하기 - 이웃 사람들과 데지레 아줌마의 생활모습 비교하기 - 데지레 아줌마가 창고를 허물고 진흙집을 지은 까닭은? - 이웃들과 달리 주인공이 아줌마와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 지우개 지우기 활동지  ☐ 빙고놀이 
배움 표현	그림책 하브루타 (10') 편지쓰기 (10')	♣ 읽기 후 활동 ♣ ◎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 짐작해보기 - 엄마와 아빠, 나, 이웃 사람들, 데지레 아주머니 -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말과 행동 찾기 - 인물의 마음을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짐작하기 - 인물의 가치보석을 가치보석카드를 활용하여 찾기 ◎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 편견에 가득한 이웃사람들에게 제안하는 편지쓰기 - 주인공 칭찬하는 편지쓰기 · TIP : 다문화학생 배려를 위해 낱말, 문장카드를 제시	☐ 학습지  ☐ 편지쓰기 
배움 활용	미술놀이 (19') 정리 (1')	◎ 데지레 아줌마에게 진흙집을 지어 선물하기 - 찰흙으로 진흙집 만들기 - 주인공에게 선물하기 활동을 통해 배려와 존중을 내면화하기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하기 -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하기	☐ 찰흙 

3~4차시		이웃 나라의 문화				
수업주제	이웃 나라의 문화		관련교과	창체	그림책	루비의 소원
성취기준	[2바07-02]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2줄07-04]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문화 역량
						문화다양성 평등
배움목표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다.					문해력 역량
						읽기 이해
상시평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가치태도)					
단계	수업루틴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활동사진
배움 시작	날짜 연습 (1')	◎ 오늘의 날짜 묻고 답하기 ◎ 사진의 일부를 보고 추측하기 게임 - 중국제기, 치파오, 월병, 등불축제, 홍빠오, 팔각건 -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 <루비의 소원> 그림책 표지 읽기 -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책 표지를 통해 추측한다.				☐ 추측하기 게임 
	동기 유발 (9')					
배움 탐구	지우개 지우기& 그림책 읽기 (20')	♣ 읽기 전 · 중 활동 ♣ ◎ 지우개 지우기 활동을 하며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기 - 낱말표에서 모르는 낱말은 교사에게 질문하여 알기 - 이야기를 들으며 낱말을 ○표 하기 ♣ 읽기 후 활동 ♣ ◎ 빙고놀이 - 낱말 빙고 놀이를 하며 낱말과 친숙해지기 ◎ <루비의 소원>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내용 파악하기 - 루비가 남자들만을 위한 집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루비의 소원은 무엇이나요?				☐ 지우개 지우기 활동지 
	빙고놀이 (5')					☐ 빙고놀이 
	내용이해 (5')					
배움 표현	그림책 하브루타 (10')	♣ 읽기 후 활동 ♣ ◎ 한국과 중국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이야기하기 - 설날 문화 - 제기차기 - 연등축제 - 전통 춤 ◎ 중국 문화 체험하기 - 수건 돌리기 춤 - 중국 제기차기				☐ 팔각건 
	문화체험 (15')					☐ 중국 제기 
배움 활용	문화체험 (10')	◎ 홍빠오 (붉은 봉투) 체험 - 붓펜으로 부모님께 행운의 편지쓰기 - 행운의 편지를 홍빠오에 담아 부모님께 선물하기 · TIP : 다문화학생 배려를 위해 낱말, 문장카드를 제시				☐ 홍빠오 
	정리 (5')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하기 -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하기 - 차시예고				

5~6차시		달라도 함께해요				
수업주제	달라도 함께해요		관련교과	창체	그림책	나 안할래
성취기준	[2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다문화 역량 정체성, 다양성, 협력
배움목표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놀이규칙을 바꾸어 친구를 배려할 수 있다.					문해력 역량 읽기 유창성
상시평가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규칙을 바꾸어 배려할 수 있는가? (기능)					

단계	수업루틴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및 활동사진
배움 시작	날짜 연습 (1')	◎ 오늘의 날짜 묻고 답하기 ◎ 다양한 음식 변형의 사례를 알아보기 - 다양한 떡볶이의 종류 (간장, 짜장, 카레, 로제, 크림 등) - 다양한 요리방법의 좋은 점 이야기 나누기	☐ PPT, 영상  
	동기 유발 (9')	- 놀이규칙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 <나 안할래> 그림책 표지 읽기 - 등장인물과 상황, 등장인물의 감정 추측하기	
배움 탐구	어휘학습 (15')	♣ 읽기 전 활동 ♣ ◎ <나 안할래> 그림책 핵심 어휘 알아보기 - 핵심 어휘 10가지를 그림을 통해 알아본다. - 학습지에 쓰기연습을 한다. <한글쓰기 단계별 활동 > 1단계 - 낱말쓰기 연습을 한다. 2단계 - 그림을 보고 문장쓰기 연습을 한다.	☐ 낱말학습 PPT  ☐ 학습지 
	소리내어 읽기 (15')	♣ 읽기 중 활동 ♣ ◎ <나 안할래> 그림책 함께 소리내어 읽기 -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가며 읽는다. -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읽는다.	
배움 표현	그림책 하브루타 (13')	♣ 읽기 후 활동 ♣ ◎ 등장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 사슴이 고집을 부린 이유 추측하기 - 사슴도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 역할놀이 
	역할 놀이(12')	◎ 등장인물을 칭찬하기 - 등장인물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가치덕목 칭찬해주기	
배움 활용	변형 놀이하기 (10')	◎ 상황별로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 - 팔을 깎스한 친구가 있을 때 가위, 바위, 보 놀이하기	☐ 상황별 PPT 
	정리 (5')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하기 - 오늘 수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발표하기 - 차시예고	

■ 다문화 어울림 루틴수업 수업도구

❖ 그림책 및 노래, 수업 영상자료

< 나 안할래 > 그림책 영상	몸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체조	<루비의 소원> 그림책 영상	흥빠오
팔각건 수건춤	중국어 인사노래	세계의 집	진흙집 짓기
	TIP : 수건춤 활동시 배경음악으로 활용		TIP : 2배속으로 보기

❖ 유용한 수업 도구들

감정카드	가치보석 카드	가치덕목 필사카드	한글 자음 모음표

❖ 다문화 어울림 루틴수업 활동장면 및 결과물

이웃사람들에게 편지쓰기	변형 가위바위보 놀이하기	중국 수건 돌리기 춤	붓글씨로 편지쓰기&흥빠오

■ 다문화어울림 루틴수업의 평가와 기록

❖ 가. 성장중심 평가계획

성취 기준	활동명	영역	평가 요소	평가방법	평가시기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규칙을 바꾸어 배려할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자율활동	상황카드를 보고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기	관찰평가 실기평가	5월

❖ 나. 교사별 평가도구 (수행형) 세부기준

성취기준	영역	평가요소	평가방법	세부기준	평가시기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고 규칙을 바꾸어 배려할 수 있다.	자율	상황카드를 보고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기	관찰평가 실기평가	매우 우수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놀이규칙을 변형하여 배려할 수 있다.	5월
				우수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놀이규칙을 변형할 수 있다.	
				보통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나 배려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노력 상황카드를 보고 상대방의 상황에 반응이 없고 배려할 수 없다.	

❖ 다.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기록사항 예시 (2학년 1학기 다문화 창체)

· <나 안할래> 그림책을 읽고, 문제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이야기 나눔.
· <나 안할래> 그림책을 읽고, 차이를 가진 친구를 배려하여 가위, 바위, 보 놀이를 변형해 봄.
· <나 안할래> 그림책을 읽고, 상황에 따라 놀이 변형을 통하여 친구를 배려하는 방법을 체험함.
· <나 안할래> 그림책을 읽고, 놀이규칙을 바꾸어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를 기름.

■ 문해력과 다문화감수성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이룬다.

수업시간에 었드려 있던 발레리아, 좌우를 살피며 옆 친구를 따라하며 겨우겨우 학습에 참여하던 다니엘. 학급마다 있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학생들과 한글쓰기가 미숙한 일반학생들. 3학년이 되기 전에 어서 한글을 떼어야했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의 디딤돌을 주는 것 - 이것이 진정한 동기유발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어울림 루틴수업은 수업 초반에 다문화학생과 한글 미해득 일반학생들에게 학습의 디딤돌을 주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몰려가 수업한 그림책을 빌려보느라 도서관이 분주해진다고 한다. 아이들은 수업의 만족도와 즐거움을 그렇게 보여주었다. 얼굴 표정이 살아나고, 수업에 참여하고,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는 등 다문화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일반학생들도 그림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쌓고 세계시민의 감성과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우리 학교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문화어울림 루틴수업을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업루틴들이 개발되어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꿈꾸며 나의 교육사례가 작은 마중물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현은자 외 6인(2013),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학지사
- 강원토론교육연구회(2019), 말랑말랑 그림책 독서토론. 단비
- 유영식(2020), 수업잘하는 교사는 루틴이 있다. 테크빌교육
- 경기도교육청 (2021), 한글 문해 및 기초부진 매니저 심화과정 연수
- EBS (2021), 당신의 문해력 6부작 방송프로그램

<부록> 활동 학습지 예시

■ 낱말쓰기 학습지

< 1단계 > 낱말쓰기 연습 практика написания слов

◎ 그림을 보고 낱말을 바르게 써보세요.

Посмотрите на картинки и правильно напишите слова.

	사	슴				
---	---	---	--	--	--	--

< 2단계 > 문장쓰기 연습 практика написания предложений

◎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어울리는 내용을 골라 빈 칸에 쓰세요.

Посмотрите на картинку, выберит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контент из <View> и запишите его в поле.

<보기> Пример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한다. 울고 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

	친구들이 _____
---	------------

■ 지우개 지우기 활동지

- 이야기를 읽기 전에 다음 낱말들 중에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낱말을 4가지 골라 X 표 해보세요.

-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며 나오는 낱말은 O 표 하세요.

다이아몬드	황금산	캘리포니아	스시
공주	빨간색	손자	손녀
집안일	가정교사	월병	램프
정원	대학	붓글씨	등



우수상

문화(CUL.TU.RE) 학습 전략으로 여러가는 다문화 교실

안윤주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과 연계 [교과명: 국어]

대상학교급(학년) | 고등학교(1학년)

심사
의견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다문화 요소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이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상황에 공감하고 몰입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동기유발을 통해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뿐 아니라 실천 방안까지 도출해 본다는 면에서 수업의 의의가 매우 높다.

1 수업의 배경 및 목적

다문화는 특정 교과만?

다문화 수업이 특정 교과에만 적합하다는 인식이 모든 과목의 수업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약하는 면이 있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다문화 수업의 출발이자 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함

갈등해결은 어떻게?

문화와 다문화란?

문화와 다문화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다문화 수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함

다문화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바르게 알고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함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1)

다문화 수업이 특정 교과에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다문화 수업이 교육 현장에서 모든 과목의 수업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제약하는 면이 있다. 이 수업안은 다문화 수업을 특정 교과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생소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수업안을 통해 다문화 수업이 모든 교과목으로 확장되어 활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성장하는
나눔 배움터

갈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다문화 수업의 출발이다.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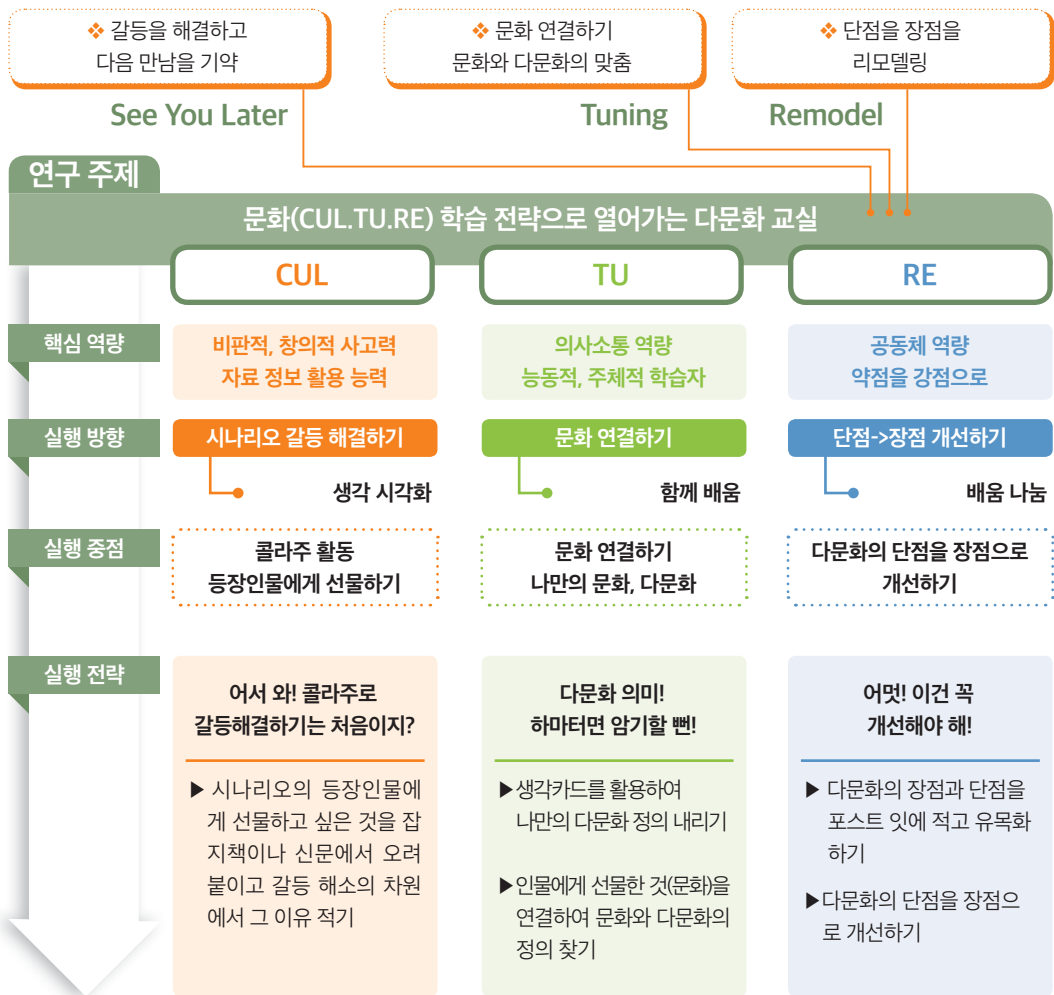
자신만의 언어로 정의될 때, 진정한 앎을 실천할 수 있다.

개선

다문화의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할 수 있다.

1) 메디방페인트를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그린 웹툰이다.

2 수업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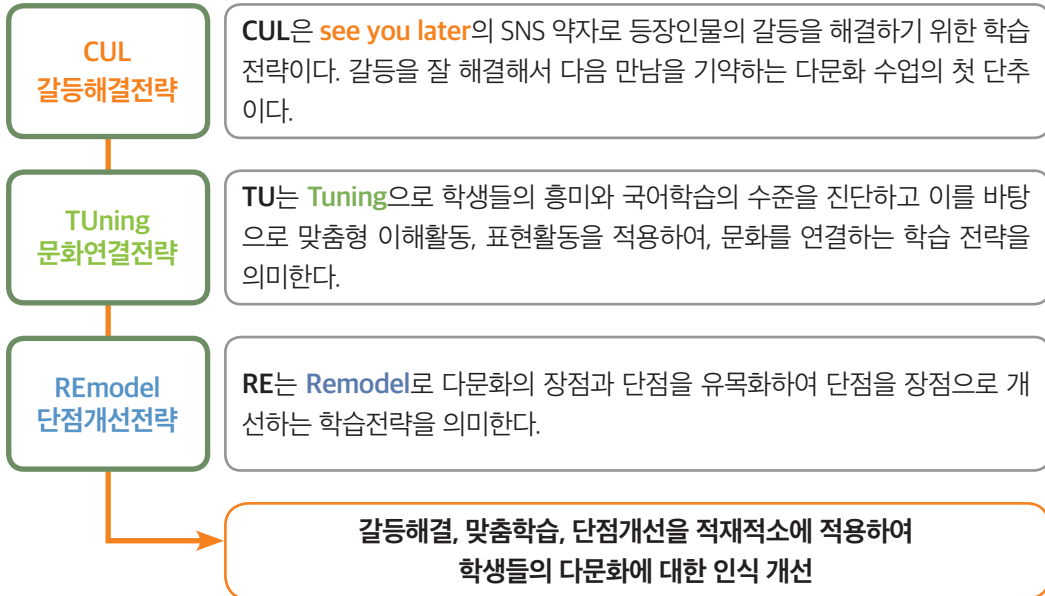
1. **다문화 교육** : 개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접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인류의 보편적 문화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가치와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며, 적극적 자세로 다문화를 수용하고 더 깊이 살아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적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²⁾
2. 다문화 교육을 진행할 때 **문학은 훌륭한 매개체**가 된다.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다루는 문학은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문학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좁아진 사고를 버리고, 타문화와 타인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³⁾

2) 정하성 외 2명(2007), 『다문화청소년 이해론』, 양서원, pp.117~118

3) 최지호(2016), 「다문화제재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학수업연구 -소설『완득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3 용어의 정의

① 문화(CUL.TU.RE) 학습 전략 = CUL(갈등해결) + TUning(문화연결) + REmodel(단점개선)



4 구체적 실천

① 관련 성취 기준



[9국05-0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② 생각 3단계, 배움 3단계

생각 3단계	배움 3단계		
	배움 준비	함께 배움	배움 나눔
생각 기초	생각기초 단계 - 생각 표현, 생각 시각화		
생각 심화	생각 심화 단계 - 토의하기		
생각 적용	생각 적용 단계 - 생각 정리, 자신의 언어로 창작, 현실에 적용하기		

‘달리는 차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 인권 영화 ‘시선 1318’에 담긴 5편의 옴니버스 영화 중 한 편으로 14살 사춘기 청소년이면 누구나 겪을 법한 성장통을 필리핀에서 온 새엄마와의 갈등을 통해 더욱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5 수업 지도안

운영 내용 및 과정

1. 등장인물에게 선물하기(콜라주 활동)

- 글에 나타나는 주요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여 선물하고 싶은 것을 잡지책이나 신문에서 오려 붙이고 그 이유를 적는다. 선물의 이유를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선물을 오려 붙일 때, 그 선물이 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한다. (잡지책에서 사진을 오리거나 붙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선물이 주가 아니라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에게
선물하기

영찬이에게 고양이를 키우면서 배려심을 기르게 하고 싶었고, 다문화 공부를 하라고 컴퓨터와 지구본을 선물하고 싶다.

선물을 준다고?

선물의
의미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인 선물

차은엄마가 한국에 대한 것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같아서 노트북, 책을 선물하고 또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국엄마들이 많이 쓰는 화장품을 선물하고 싶다.

선물의 역할: 등장인물간의 갈등해소, 서로에 대한 이해, 선물을 시각화하여 이해도를 높임

2.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다문화

- 생각 카드를 활용하여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고르고 그것을 고른 이유를 포스트잇에 적는다. (생각 카드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 다문화라는 키워드에 대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 포스트잇에 적은 이유를 모둠원과 공유한다. 가장 공감가는 모둠원을 뽑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운영 내용 및 과정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문화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란 **불평등**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사람들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한 쪽은 평등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문화를 생각할 때, 불평등을 떠올렸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한 쪽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소외**이다. 다문화 사람들은 혼자 소외받거나 차별당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문화를 생각할 때, 소외를 떠올렸다. 자신의 경험 세계 속에서 다문화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외로움**이다. 자신들과 좀 다르게 생겼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돌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문화를 생각할 때, 외로움을 떠올렸다. 자신들과 다르게 생겨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불평등	소외	외로움
불평등 사례를 찾아보고 왜 이런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 소외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의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생각의 기회로 삼기	그들이 겪는 외로움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대안 생각의 기회로 삼기

③ 문화 연결하기

STEP1	가운데 세계 지도가 있는 전지를 모듈에 배부한다.
STEP2	등장인물에게 선물하기 활동에서 붙인 사진들을 모두 잘라 전지에 붙인다.
STEP3	각 선물(사진)들의 원산국을 찾아 선으로 연결한다.
STEP4	선물들이 모두 거미줄처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문화 연결하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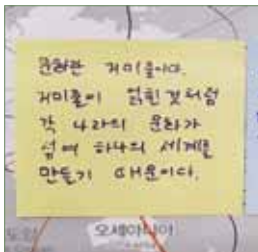
운영 내용 및 과정

문화연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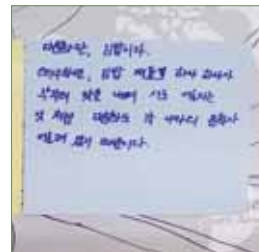
- 4명의 모둠원이 각자 등장인물에게 선물한 것들을 전지에 모두 붙인다.
- 전지의 가운데에 세계 지도를 붙이고 각 선물들의 원산국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본다. (원산지를 모를 경우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연결)
-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선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선물들이 모두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문화란 무엇인지, 다문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가운데 포스트잇에 써서 붙인다)



다문화는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회 안에서 서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문화란 거미줄이다.
거미줄이 얽힌 것처럼
각 나라의 문화가 섞여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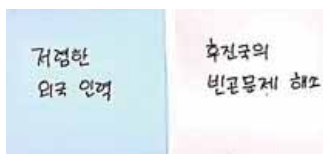
문화란 김밥이다.
왜냐하면 김밥 재료
하나하나가 각각의 맛
을 내며 서로 어울리는
것처럼 다문화도 각 나
라의 문화가 어울려 있
기 때문이다.

④ 다문화의 장, 단점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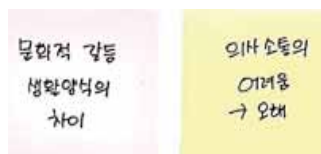


- 모둠원끼리 다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여 포스트잇에 최대한 많이 적는다. (맞고 틀림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적은 포스트잇을 유목화 한다. (장점은 장점끼리 단점은 단점끼리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은 방안끼리,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두 유목화한다.)

유목화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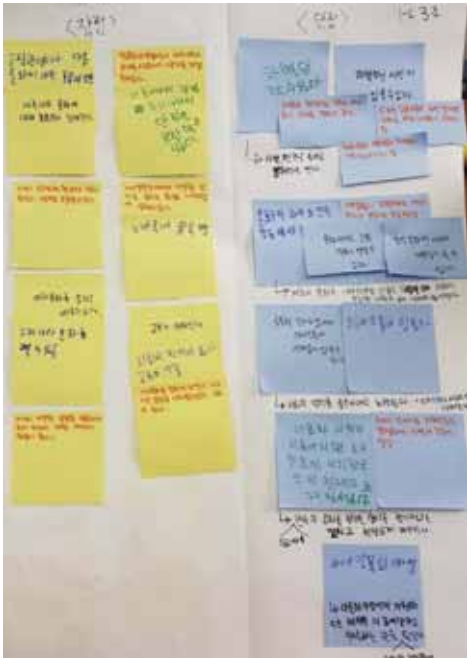


단점



운영 내용 및 과정

⑤ 다문화의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하기



토의하기

다문화의 단점을 모두 모아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서로 토의한다.

장점은 극대화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토의한다.

단점과 장점을 연결하기

단점과 장점을 연결할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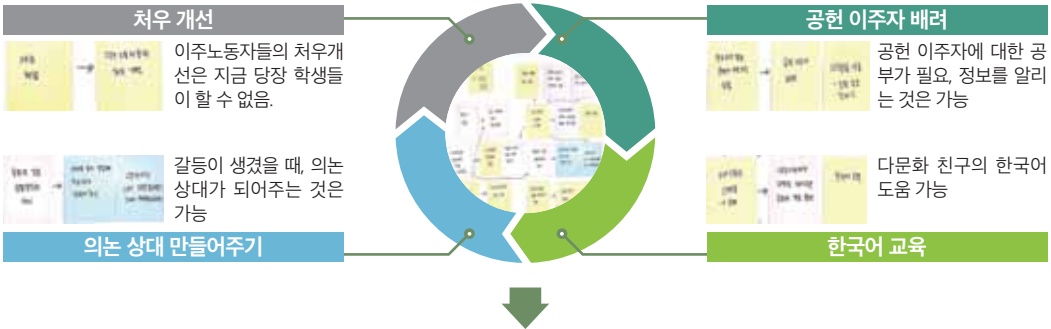
실천 가능성 토의

그 개선방안이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인지 토의한다.

구체적 체계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한다.

★ ★ ★ 학생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기



시사점

- ★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 도움을 받아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은 무엇인가?
- ★ 학생들이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가?
- ★ 다문화 친구에게 한국어 도움은 어떻게 줄 수 있나?

주의점

- ★ 허공에 떠다니는 도덕 교과서 같은 방안 NO
-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알아보기 YES
- ★ 일회성으로 끝나는 캠페인은 NO
- ★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공부 YES
- ★ 다문화 친구를 동정하는 행위는 NO

운영 내용 및 과정

⑥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다문화



다문화란 한 명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서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문화란 다채로움이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국적과 문화가 섞여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란 래프팅이다. 래프팅은 다같이 마음과 행동을 모아서 하는 활동이다. 또한 다문화로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며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란 여러 개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곁에 다듬어져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림카드는 다문화란 키워드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한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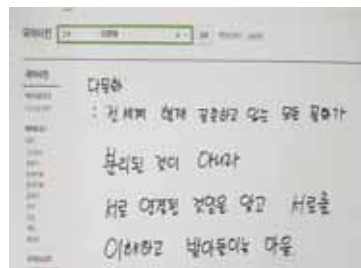
문화연결하기 활동 후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으나 활동 후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⑦ 사전에 등재될 나만의 ‘다문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의 개념

- 만약 내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사전에 등재한다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한다.
- 다른 친구의 의견도 공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한다.
- 사전에 이미 있는 개념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우리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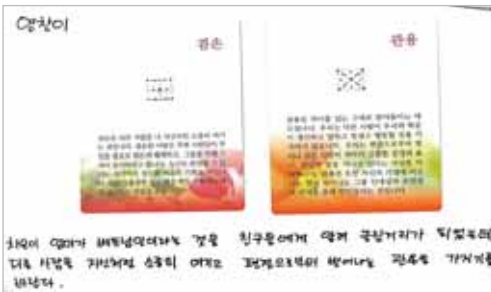


운영 내용 및 과정

⑧ 등장인물에게 버추 덕목 찾아 주기

등장인물 성격 파악	버추 덕목 찾아 주기	갈등 해결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버추 덕목이 무엇인지 찾기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찾아주고 이유 적기	찾아 준 버추 덕목을 키우면 갈등이 생기지 않고 비록 갈등이 생기더라도 잘 해결

버추 덕목 찾아 주기 활동지



버추 카드 활용하여 작성



👍 <영찬이에게 필요한 버추 덕목>

겸손/ 관용

차은이 엄마가 베트남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 차은이가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자신 처럼 소중히 여기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관용을 가지기를 바람

⑨ 소감 나누기

소감 적기

공유하기

내면화하기

소감 나누기

다물지 않은 다문화활동을 통해 느낀 생각이나 배운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그럼으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다문화에 대해 새로이도 알아보고 그 새로이도 알고 그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방종의 만들어진 다문화라는 주제로 재미있게 배운동안 수업해서 재미있었다 모듬활동이 있어서 힘들게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흥미를 갖게서 제생에 과제는 넘치않게 같다 앞으로 학교교육과 같은 방종의만 하는 교육과 제은 대한활동처럼 재미있게 배워 지식과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영 내용 및 과정

소감 적기



공유하기



내면화하기

다문화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있었지만 나도 다문화가정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감이 있었 같다 하지만 이번 주에 시기에 '달리는 가문'을 읽고, 그 시나리오에 나오는 주인공의 가정(다문화 가정)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자아 생김새는 다문화에 대하여 정치를 비교해보고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좀 더 알게 알게 되기도 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생김새! 조금이라도 교육감 간부 같다.

소감 적기



공유하기



내면화하기

다문화가정에서 잘 알고 많은 많은 줄이 '동경전통어까지 선물하기' 활동이 가장 어려웠지만 정말 재밌었다. 이야기 속에서 나는 여러 활동상황을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많은 것이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렵게 많이 풀린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선물들을 보내고 활동이 재미있기도 궁금했다. 또한 다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들을 다는 낱사아이를 통해 '편리함'이라고 특징을 알았던 것이 놀라웠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소감 적기



공유하기



내면화하기

이제까지 다문화 수업을 하며 다문화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솔직히 다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더 알아가게 되며 친숙한 해지한 듯한 느낌이 든다. 다문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사했었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편으로 겪을 수 있다는 점, 여러 문화의 차이로 이해한 수월하는 장점을 함으로 수도 있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더 알고 긍정적인 면으로 더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에게 선물하기 활동을 고안하였다. 잡지나 신문에 사진이나 그림을 오려 붙이고 선물하려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에게 필요한 버추 덕목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함으로써 인성교육도 자연스럽게 접목한다. 이 활동은 특히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사사지의 힘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나서 선물들을 모둠원끼리 전지에 모두 붙이고 그것들을 문화적 차원에서 연결해 보게 한다. 독일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고, 이탈리아의 음식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음을 보고 세계의 문화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문화는 다양한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이 활동의 일차적 목표이고 자신의 언어로 정의 내려 보는 것이 이차적 목표이다.

다문화의 의미를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정의했다면 이번에는 다문화 사회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을 다음으로 하게 된다. 다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브레인스토밍하여 포스트잇에 적고 유목화 한 다음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장점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접근하게 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피부색이나 부모의 모국에 상관없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수상

살아있는 한국어에 D.I.P ! 생(生)생하게 각인하기

홍정민 | 아산남성초등학교

교육과정 | D.I.P 생생하게 각인하기

대상학교급(학년) | 중도입국 2년 이내 초등학생

심사
의견

본 교육 자료는 중도입국한지 2년 이내의 한국어 학급 소속 고려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통합 교육을 위해 개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교육 대상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한국어 체득 뿐 아니라 한국의 생활과 문화적응에도 매우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성과와 학습동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어, 본 교육 자료의 현장 적용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

1 몸과 머리 그리고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한국어를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는 광주 및 안산과 같이 다수의 고려인 가족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가나다' 도 익히지 못한 채 학교에 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낯선 언어와 문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것을 오롯이 아이들의 의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일단 한국에 와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부모님을 따라와 낯선 언어와 문화를 마주해야 했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아이들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로 생활 속 언어를 더 친근하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인 아이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 장소, 추억, 지식 모두 러시아어로 각인되어 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는 주말이나 방학이 지나고 오면 사용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오는 일이 많다.

언어가 삶 속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 오래 살아남는 언어는 머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각인된 언어이다. 머리, 몸, 마음이 모두 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다' 고 말할 수 있듯 언어도 머리, 몸, 마음으로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살아남는 게 아닐까?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에 대한 기억, 맛, 감정이 그것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듯이 말이다. 한국어 학급의 담임으로서 나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소망을 조금이나마 실현해보고자 한국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대상	중도 입국한지 2년 이내의 한국어 학급 소속 고려인 초등학생
기간	2021. 3. ~ 현재
운영목적	-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해, 해석, 적용,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한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다.
용어의 정의	D.I.P :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근거로 한 한국어 수업 단계를 의미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1)기술/이해하기(Description) 2)비교/재해석하기 (Interpretation) 3)문화에 참여하기(Participation)를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생생(生)하게 각인하기: 수업의 마지막 단계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낌, 감정 등을 정리한다.

2 이론적 근거 : 언어 - 문화 통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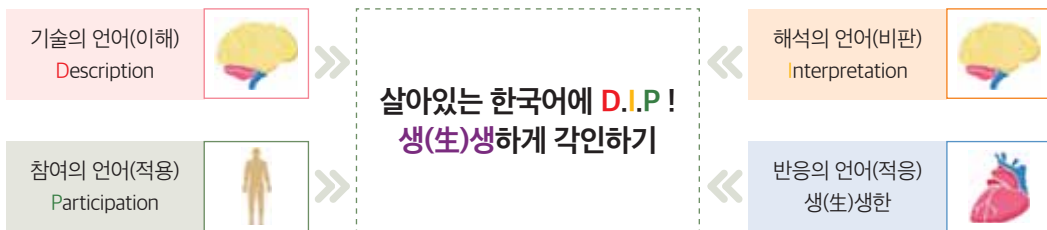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몸과 머리, 마음이 기억하는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일상의 장면과 함께 떠오르는 한국어**였다. 실제로 한국어 학급의 '운영가이드 라인(교육부, 중앙다문화 교육센터)'과 대다수의 한국어 학급이 사용하는 '표준 한국어' 교재에서도 일관되게 **생활 속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어 교육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지혜(2013)에 의하면 언어 형태에 중점을 둔 언어 교육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문화를 배우기 위한, 문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교육'에 있어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이다. 언어와 문화(일상적인 삶 전반을 문화라고 한다면)의 통합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 두 가지를 보다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지혜 및 Moran이 말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에서 다뤄야 할 4가지 언어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영역	인지적 요소	비판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위적 요소
능력	문화 이해력	문화 비판력	문화 적응력	문화 적용력
내용	기술의 언어	해석의 언어	반응의 언어	참여의 언어
활동	• 목록화하기, 확인하기 • 분류하기, 인용하기 • 요약하기, 바꿔쓰기 • 서술하기	• 가정하기, 제안하기 • 예측하기, 일반화하기 • 분석하기, 비교하기 • 범주화, 구분하기 등	• 판단하기 • 가치화하기 • 반응/표현하기 (감정 · 느낌 · 의견)	• 실행하기 - 언어적 - 준언어적 - 비언어적

<언어-문화 통합 교육에서 네 가지 언어의 기능 (Moran, 2001)>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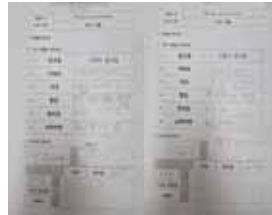
머리로 받아들인 지식인 **기술의 언어**, 지식을 재해석하는 **해석의 언어**, 실제적인 삶에 참여를 통한 **참여의 언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적응의 언어**의 균형을 생각해 수업을 구성한다면 살아있는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가볍게 발을 담그는(DIP)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생생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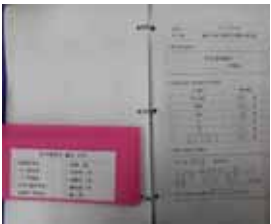
3 언어-문화 통합 한국어 교육(KSL) 과정의 재구성 : 표준 한국어 교재(초)

순서	학습목표	관련단원	활동내용
1	• 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리를 읽고 쓸 수 있다. •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0	• 자음과 모음 익히기 • 이름의 의미 알기 • 나만의 명함 만들기 • 인사 예절 익히기 • 자기 소개 하기
		표준한국어 1-1	
2	•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 짧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표준한국어 1-0	• 동화책 읽기 •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아 적기 • 단어의 뜻을 찾아보기 • 마음에 드는 단어로 예코백 꾸미기
3	• 색깔의 이름 알기 • 색칠하기	표준한국어 1-4-4	• 색깔의 이름 익히기 • 지시를 듣고 알맞은 색으로 칠하기 • 좋아하는 색으로 손수건 염색하기
4	• 위치를 묻고 대답할 수 있다. •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3	•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앞, 뒤, 옆, 위, 아래, 안, 밖) 익히기 •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걸어요, 열어요, 있/없어요) 익히기 • 지시를 듣고 보물찾기
5	• 학교 주변을 소개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동작을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4	• 가게 이름 익히기 • 교통표지와 신호 익히기 •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있다, 사다, 먹다, 주다) 익히기 • 학교 주변 지도 그리기
6	• 학교 주변을 소개할 수 있다. • 방향을 묻고 대답할 수 있다. • 물건 가격을 묻고 말할 수 있다. • 가게에서 물건 사는 표현을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4	• 한국의 돈 알아보기 • 물건 가격을 묻고 답하기 • 심부름 보드게임 하기 • 공공장소 예절 익히기 • 물건 사기 미션 수행하기
		표준한국어 1-5	
		표준한국어 2-7	
7	• 요일, 시간, 날짜를 말할 수 있다. • 지난 일을 표현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6	• 날짜와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 익히기 • 기념일 묻고 답하기 • 어버이날에 하는 일 알아보기 • 가정 예절 익히기 • 효도 쿠폰과 카네이션 만들기
		표준한국어 1-7	
		표준한국어 2-7	
8	• 요일, 시간, 날짜를 말할 수 있다. • 부정표현을 말할 수 있다. • 계절의 날씨와 그 계절에 하는 놀이를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6	• 한국의 사계 익히기 • 계절별 날씨 표현 익히기 • 더위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 수제 레몬청 만들기
		표준한국어 2-4	
9	• 물건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요일, 시간을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2	• 우리 반 시간표 살펴보기 • 음악 시간에 하는 일 알기 • 한국의 전통악기 알아보기 • 전통악기 골든벨
		표준한국어 1-6	
10	•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 (물건을/취미를) 셀 수 있다. • 학교에서 경험한 일을 말할 수 있다. • 학교 행사를 말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1	• 난타 연주 감상하기 • 좋아하는 한국 음악 말하기 • 난타 연주 연습하기 • 공연 예절 익히기
		표준한국어 1-2	
		표준한국어 2-3	
		표준한국어 2-7	
11	• 날씨를 말할 수 있다. • 계절의 날씨와 그 계절에 하는 놀이를 말할 수 있다. • 방학 경험을 말할 수 있다. • 방학 규칙을 계획하고 읽을 수 있다.	표준한국어 2-4	• 방학에 하는 일 살펴보기 • 나의 방학 경험 이야기하기 • 방학 계획표 세우기 • 수박화채 만들어 가져가기
		표준한국어 2-5	

4 살아있는 한국어에 D.I.P! 생생(react)하게 느끼기

활동명		이름은 소중한요	활동시기	21. 3.
활동목표		• 이름에 있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읽고 쓸 수 있다. •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활동자료		자모음 카드, 명함, 색연필, 사인펜 등		
내용	기술	• 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리를 익힌다. • 나, 너, 선생님, 친구 등 호칭어를 익힌다. • 자기소개 시 사용하는 표현을 익힌다.		
	D	• 나, 너, 선생님, 이름, 친구, 나라 등		
	해석	• 한국식 이름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식 이름을 비교해본다. • 나와 친구들의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 성명의 구성을 알아보고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을 익힌다.		
	I	• 나의 성은 ~입니다. 나의 이름은 ~입니다.		
	참여	• 자음자와 모음자를 사용하여 명함 만들기 • 친구와 명함을 교환하며 자기 소개하기 - '저의 이름은 ~입니다', '나는 ~에서 왔어요', '친하게 지내요' 등을 사용하여 이름을 소개한다.		
	P	• 나(저)의 이름은 ~입니다. 나는 ~에서 왔어요. • 이것은 나(저)의 명함이에요. • 잘 부탁드립니다. 친하게 지내요.		
	반응	• 내가 좋아하는 이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이름 이야기하기 • 이름에 담긴 의미와 소중함을 마음으로 느끼기		
활동사진	生	• 나는 ~라는 이름이 좋아요. • 나의 이름은 소중한요. 나의 이름이 좋아요.		
	활동사진			
		자모음으로 이름 만들기	나만의 명함 만들기	친구와 교환한 명함
아이들의 변화		한국어 학급 수업이 시작되고 서로의 이름을 정답게 부르며 사이좋게 어울리는 학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에 관한 수업을 준비하였다. 인터넷에서 찾은 러시아식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언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도 명함을 열심히 꾸미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명		내가 사는 곳, 우리 마을 탐색하기	활동시기	21. 4.
활동목표		•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마을의 장소를 소개할 수 있다. • 우리 마을 탐색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동자료		단어 카드(위치, 장소, 교통신호), 활동지, 색연필, 사인펜 등		
내용	기술	•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힌다. • 상점 및 관공서 등 주요 장소의 명칭을 익힌다. • 교통표지와 신호를 나타내는 단어를 익힌다.		
	D	• 옆, 앞, 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 학교, 문구점, 빵집, 약국, 마트, 편의점, 아파트 • 신호등,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등		
	해석	• 상점과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 • 있어요/없어요 활동하기 - 한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상점과 교통표지를 비교하며 있어요/없어요로 대답을 해본다.		
	I	• ~에서는 무엇을 해요/사요? • ~에서는 ~을 해요. •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에 ~가/~도 있어요/없어요.		
	참여	• 우리 마을을 탐색한다. - 교통지도를 지켜 안전하게 마을 탐색하기에 참여한다. - 상점의 이름을 적고 위치를 확인한다. • 우리 마을 지도를 그려본다.		
	P	• 약국은 마트 뒤에 있어요. • 문구점은 학교 옆에 있어요. •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반응	• 내가 좋아하는 우리 마을의 장소를 말한다. -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우리 마을의 장소를 소개한다.		
	生	• 나는 빵집이 좋아요. 빵이 있어서 좋아요. • 나는 문구점이 좋아요. 장난감을 살 수 있어요.		
활동사진				
		우리 마을 지도 제작 1	우리 마을 지도 제작 2	마을 탐색 활동지
아이들의 변화		무심코 지나치곤 했던 마을의 장소를 살펴보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그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장소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장소(우리 마을)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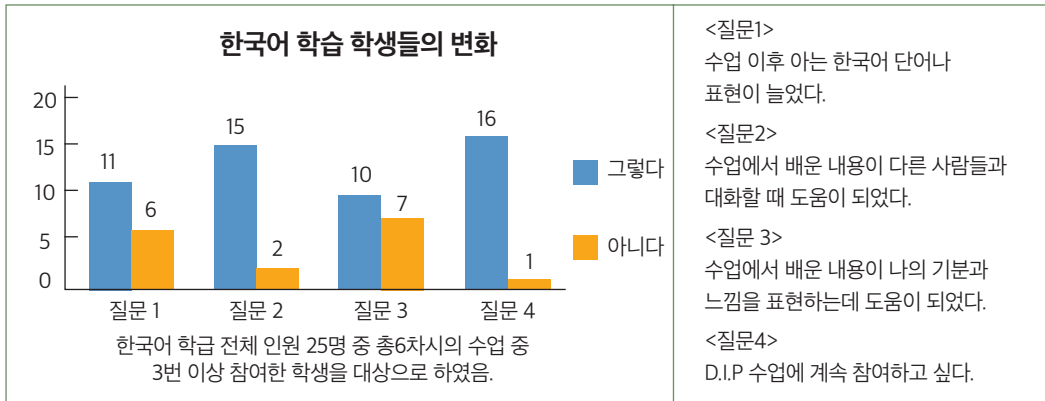
활동명		심부름, 나도 할 수 있어요!	활동시기	21. 4.
활동목표		• 물건 가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 가게에서 물건 사는 표현을 사용해 물건을 살 수 있다.		
활동자료		단어 카드(물건, 화폐), 미션지, 장바구니와 지갑 등		
내용	기술	• 한국의 화폐 단위를 익힌다. • 각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이름을 익힌다. • 물건 사는 표현(이거 얼마예요?, 이거/거스름돈 주세요 등)을 익힌다.		
	D	• 십원, 백원, 오백원, 천원, 만원, 오만원 • 연필, 색종이, 지우개, 빵, 약, 휴지, 사과, 공책 등 •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등		
	해석	• 각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과 살 수 없는 물건을 분류한다. • 한국(원)과 러시아(루블)의 화폐단위 비교하기 - 한국과 러시아의 동전과 지폐를 살펴보고 비교해본다. - 스마트폰 환산기를 사용하여 가격환산을 해본다.		
	I	• 빵집에서 휴지를 살 수 없어요. • 한국의 돈은 원이에요. 러시아의 돈은 루블이에요. • ~원과 ~루블은 똑같아요.		
	참여	• 보드게임으로 물건 구매 연습하기 - 물건의 가격에 맞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 각각의 상점에서 물건 구매하기 - 공공장소 예절(존대, 질서지키기 등)을 지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다. - 미션지에 적힌 물건과 수량을 지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심부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P	• 안녕하세요. ~ 있어요? • 얼마예요? 거스름돈 주세요. 봉지 주세요.		
	반응	• 내가 사 온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내용을 공유한다.		
	生	• 나는 ~을 샀어요. 나는 ~가 좋아요. • ~은 ~원이에요. ~도 사고 싶어요.		
활동사진				
		심부름 보드 게임하기	미션지와 지갑	심부름 미션 성공!
아이들의 변화		한국과 러시아의 돈을 비교해보면서 똑같이 동전과 종이로 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라별 상점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미션을 통해 아이들은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활동명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활동시기	21. 5.
활동목표		• 요일, 시간, 날짜를 말할 수 있다. • 높임말을 사용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활동자료		단어 카드(가족, 높임말 등), 효도 쿠폰, 카네이션 재료 등		
내용	기술	• 요일, 날짜를 나타내는 말을 익힌다. • 가족 내 호칭어를 익힌다. • 5월에 있는 가족 관련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익힌다.		
	D	• 월~일요일, 1~31일 •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언니, 누나, 형, 오빠, 동생, 강아지 • 어린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 편지, 감사		
	해석	• 우리나라에는 이런 날이 있어요! 기념일 비교하기 - 달력에 기념일을 표시한다. - 가족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 어버이날의 의미 생각해보기 -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에요.		
	I	•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어요.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에요. • 러시아에는 어머니의 날이 있어요. 어머니의 날은 11월이에요.		
	참여	• 효도 쿠폰 만들기 - 단어 카드를 참고해서 부모님께 드릴 효도 쿠폰 만들기 - 높임말을 사용해(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 마음 전하기 • 감사함을 담은 카네이션 만들기		
	P	•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건강하세요 • ~께서 부탁하시는 청소/공부/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응	•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방법 나누기 - '나는 ~할 거예요' 표현을 사용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生	• 나는 청소를 할 거예요. •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활동사진				
		가족 호칭 익히기	심부름 이용권	카네이션 만들기
아이들의 변화		몇몇 아이들은 학급에서도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으나, 어버이날의 의미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수업을 통해 러시아의 아버지, 어머니의 날과 한국의 어버이날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네이션과 쿠폰 완성 후 '엄마, 아빠한테 (쥐요)줄 거예요'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활동명		즐거운 음악 시간, 난타로 BTS		활동시기	21. 6.
활동목표		• 물건 이름(전통악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 (학교에서) 경험한 일을 말할 수 있다.			
활동자료		시간표, 전통악기, 화이트보드, 난타북과 난타채 등			
내용	기술	• 시간표 익는 법과 각 시간에 하는 일을 익힌다. • 전통악기의 이름을 익힌다. • 음악과 관련된 단어(듣다, 치다, 두드리다, 불다 등)를 익힌다. - 전통악기 골든벨 활동			
	D	• 1~6교시,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창체 등 • 북, 징, 장구, 팽과리, 가야금, 소고 등 • 북을 치다. 가야금을 뜯다 등			
	해석	• 한국의 전통악기와 비슷한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악기 말해보기 -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이야기한다. •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생각해보기 • 좋아하는 한국/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음악 말하기			
	I	• 나는 ~곡을 좋아해요. 러시아 노래예요. • 나는 방탄소년단 노래를 알아요. 들은 적 있어요. ~를 제일 좋아해요.			
	참여	• 시간표를 보고 음악 시간에 음악실로 찾아오기 • 난타 공연 예절을 익히고 BTS 'Butter'난타 연습하기 • 연습 후 친구들 앞에서 난타 공연하기 - 질서와 예절을 지켜 친구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P	• 한국에는 '난타'가 있어요. 난타북을 쳐요. • 빠르게 서세요. 채를 쥐어요. 4번 치세요. • 집중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않아요. 박수를 쳐요.			
	반응	• 난타 연주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을 말한다. • 난타로 연주해보고 싶은 곡을 이야기한다.			
	生	• 힘들었어요. 손이 아파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 해본 적 없어요. 처음이에요.			
활동사진		    전통악기 체험 어떻게 연주할까? 악기 이름 골든벨 난타로 BTS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는 K-pop이 제법 있었고, 우즈베키스탄의 노래를 선생님에게 들려주기도 하며 각 나라의 음악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또 난타 공연을 하고 친구들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공연 예절을 몸에 익히고, 한국의 음악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활동명		여름을 보내는 방법	활동시기	21. 7.
활동목표		• 여름 날씨와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할 수 있다. • ‘~했어요’를 사용하여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다.		
활동자료		여름방학 계획표, 단어 카드, 수박화채 재료 등		
내용	기술	• 날씨 및 계절 관련 단어를 익힌다. • 여름에 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 관련 단어를 익힌다. • 방학 숙제 관련 단어를 익힌다.		
	D	• 봄~겨울, 덥다, 춥다, 따뜻하다, 쌀쌀하다 등 • 수영하기, 여행 가기, 아이스크림 먹기 등 • 일기 쓰기, 책 읽기, 그림그리기, 영화 보기 등		
	해석	• 여름/여름방학에 하는 일 이야기하기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는 여름/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요? • 해봤던 일과 아닌 것을 분류해보기 - 단어 카드를 사용하여 해봤던 일과 아닌 것을 분류한다.		
	I	• 우즈베키스탄에서 일기를 안 썼어요. • 더울 때 ~을 먹어요 등		
	참여	• 여름방학 계획표 작성하기 • 더위를 이겨보자, 수박화채 만들기		
	P	• 방학에 바다에 가고 싶어요. • 나는 어제 친구와 놀았어요. 과자도 먹었어요. •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요.		
	반응	• 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을 함께 나눈다. •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 일 뽑기.		
	生	• 나는 여름방학에 팔빙수를 먹고 싶어요. • 나는 MMA하는 것이 좋아요.		
활동사진		    아이스크림/수박이 먹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수박화채 완성		
아이들의 변화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여 아이들과 여름방학을 주제로 수업을 하였다. 서툴지만 방학 숙제와 안전 수칙에 관한 내용도 함께 읽어보고 방학 계획표도 작성해 보았다. 1학기 동안 배운 단어와 ‘~하고 싶어요’ 표현을 사용해 제법 그럴듯한 계획표를 완성했다. 한 학기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표현만큼이나 하고 싶은 일이 늘어난 것 같아 흐뭇했다. 아이들의 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5 살아있는 한국어에 D.I.P! 생생(react)하게 각인되었을까?



“한 명(혼자) 문구점에서 팝잇을 샀어요. 2000원이예요.”

“방학에 엄마, 나 수박화채 만들어요(만들었어요). 맛있어요. 팔방수도 먹었어요.”

“유튜브 봤어요. 칼로 이렇게 이렇게(요리도구 난타) 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있어요? 어버이날 뭐해요(뭐했어요)?”

D.I.P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생생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해보고자 4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계 내어 보았다. <질문1>에서 64%의 아이들이 수업 이후 아는 한국어 단어나 표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아이 중 일부는 한국어 학급에 참여하지 3~4학기 차라 ‘다 안다’고 했다. <질문2>에서 88%의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일상의 기초적인 내용을 재료로 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질문3>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나의 기분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의 수가 거의 비슷했다. 주로 생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다루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감정이나 정서표현까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문4>에서는 90%이상의 아이들이 D.I.P 수업에 계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어 수업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1) 아이들의 한국어 학습수준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한 상황과 그 때 활용 가능한 한국어 표현을 제시할 것 3) 추상적인 정서 표현어휘의 효과적 학습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끝으로 살아있는 한국어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바로 아이들의 삶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다. 평소 아이들의 생활과 언어를 보다 세심하게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언어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머리, 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어만큼이나 한국어가 아이들에게 오래오래 의미 있게 각인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오지혜(2013)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 교육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21)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마리복스(2021)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 의사소통 1, 2권



우수상

함께 그리는 『다 같이 가치』 교육연극 놀이 프로젝트로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김은진 | 대구논공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 연계 [교과명: 통합교과, 국어, 수학] 비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대상학교급(학년)

초등학교(1학년)

심사
의견

교육연극놀이라는 흥미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주고 있다. 매 수업마다 학생들이 상황에 몰입하면서 몸짓, 손짓, 발짓 등의 온 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잊지 못할 즐거운 학습 경험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 수업마다 교육연극을 하기 위한 수업 단계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연극놀이를 수업에 접목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작하면서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소통방법이 많이 위축되고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교실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1년간의 시행착오를 밑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교육 활동을 계획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문화 학생들과 비 다문화 학생들의 관계 맺기의 한계를 언어소통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저학년일수록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썼지만 어휘가 늘수록 비 다문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이고 소통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여전히 서로 다가가 어울리기를 어려워했고 같은 모국어를 쓰는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이에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요소(몸짓 언어, 놀이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였고 교과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요소를 추출해 『다 같이 가치』 교육연극 프로젝트를 계획해보고 적용 실천하게 되었다. “다문화 학생과 비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웃는 순간을 포착하라!” 분명 어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대화와 오고 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두가 웃고 박수치며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요.”하는 상황에 집중해 보니 아이들은 상황몰입 속에서 손짓, 발짓을 해가며 수업 목표에 몰입해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 그림처럼 그려지는 교육연극놀이 과정 >

- 나의 마음을 여는 - 오프닝 **O** pening
- 배움의 골격을 만들고 이해하는 - 드로잉 **D** rawing
- 창의적으로 배움을 색칠하는 - 컬러링 **C** oloring
- 실천해보고 마음을 다지는 - 리코딩 **R** ecording



몇 시간의 차시를 구성하여 여러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지나가는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교육 요소를 포착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몸짓 언어를 **교육연극**으로 더 정교화시켜 활동을 진행하였다.

2 프로젝트 운영 목적

-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교육 놀이를 구안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문화 감수성을 기른다.
- 놀이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학생들의 모든 교육적 활동에 능동적 참여와 즐거움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젝트 주제를 교육놀이를 통해 표현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의 존적이며 조화로운 삶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3 용어의 정의

- 교육연극놀이 : 놀이와 연극적 요소(즉흥성, 역할, 리액션, 긴장, 상상과 표현, 창조, 변형, 존재감, 감정의 교류 등)가 합해진 것이다.
- 다문화 감수성 :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가치, 행동 역량을 의미한다.

다문화 요소	내용
평등성	국가, 민족, 인종, 성, 신체적 능력, 사회 계층은 다르지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
반편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 대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잘못된 행위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역할
정체성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 정체감, 집단 정체감 형성
다양성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
문화이해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기르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능력과 협동 능력

- **O** pening : 수업 주제를 알고 마음열기
- **D** rawing : 배울 주제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활동하기
- **C** oloring : 활동에 우리들의 색깔 입히며 적용하기
- **R** ecording : 수업 목표와 다문화 교육요소를 융합하여 실천의지 다지기

4 다문화 교육에 교육 연극놀이를 선택한 이유

- ◆ 교육연극은 다문화 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교육연극을 활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① 낯선 친구, 새 학교, 새 교실이 주는 불안과 긴장을 풀어주고 같이 놀이하는 자연스런 상황을 만들어 그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
- ② 언어소통이 서툰 다문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놀이 언어를 익히며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 ③ 놀이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언어, 표현력, 관계, 생활 태도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 ④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자발적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5 관련 단위 및 재구성의 설계

다문화 교육을 위해 시수를 따로 확보하여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별한 시간에 하는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교과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교육놀이 아이디어를 넣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1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눈높이를 고려하여 주제중심 접근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성하여 다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1학년 교육과정 속 『다문화 요소』 찾기

영역	성취기준	다문화 교육요소
학교	[2바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2슬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2슬01-02] [2즐01-01]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정체성 협력
봄	[2바02-02] [2슬02-04] 봄에 볼 수 있는 식물을 길러 관찰하며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2슬02-03]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찾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놀이한다.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정체성 다양성, 협력 문화이해
가족	[2바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2슬03-01] [2슬03-02]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소개한다. [2즐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정체성 다양성, 협력 문화이해
여름	[2슬04-01] [2즐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문화이해
마을	[2슬05-01] [2즐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협력
가을	[2슬06-02] [2즐06-02] 가을의 특징을 알고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2슬06-03] [2즐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풍속과 비교하며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정체성, 다양성, 협력
나라	[2슬07-01]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바07-01] [2슬07-02] 남북한의 생활모습과 문화, 놀이를 통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평등성 반편견 다양성
겨울	[2즐08-01] [2즐08-02]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문화이해 협력

교과 통합 다문화 교육연극 프로젝트

1

놀이로 마음을 열GO~

가. 수업개요

관련교과	통합교과	프로젝트 차시	1-2/12
성취기준	[2줄01-01]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줄01-02]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학습목표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친구와 협력하며 지낸다.		
수업방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플라스틱 컵, 신문지 등)를 가지고 놀이를 창의적으로 구안하여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몸으로 리듬을 표현하는 컵타는 구음과 동작을 연결시켜 협동하며 소리를 맞춰나가야만 완성되는 음악이므로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가치·태도	다문화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구안하여 공동체 문화의 중요함을 깨우치도록 한다.		
창의·인성	배려, 협동	다문화 교육요소	다양성, 정체성
평가	· 다문화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놀이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 다문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나. 수업 실제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오프닝 Oing	• 동기유발 - 「다른 나라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할까?」 그림동화 듣기 - 몸짓 표현으로 놀이에 필요한 단어 맞추기 • 학습주제 안내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친구와 협력하며 지낸다.	 
드로잉 Ding	< 컵으로 만드는 음악놀이 > • 생활 속 물건들이 놀이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컵과 바닥의 재질에 따른 소리 탐색하기 • 다양한 나라에서 두드리는 음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기 - 글라스하프, 몸타, 년버멜 퍼포먼스(난타, 점프, 비밥)영상보기 • 전통 장단을 '컵타'로 배우기 - 과일가사로 전통 장단을 만들어 기본 장단 쉽게 익히기 • '컵타'로 '아리랑' 노래에 맞춰 함께 연주하는 경험 해보기	 
컬러링 Cing	< 신문으로 만드는 연극놀이 > •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탐구하기 - 학용품, 종이, 신문, 박스 등 • 신문지로 친구와 할 수 있는 창의적 놀이 구안하기 - 신문지 이부자리 만들기, 가족 소풍놀이, 신문지 집 - 비오는 날 친구와 같이 쓰는 우산 발명품 등	 
리코딩 Ring	통합놀이 안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여러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해지려는 마음을 갖는다. 다양한 재료로 창의적인 놀이를 함께 만듦으로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놀이의 방법이 달라 다문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알게 되어 다문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높인다.	

가. 수업개요

관련교과	통합교과, 국어	프로젝트 차시	3-4/12
성취기준	[2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학습목표	봄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알아보고 소리와 몸짓 활동으로 표현해보자.		
수업방향	단편적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동물들을 소리언어와 몸짓언어로 표현하며 동물들이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가치·태도	세계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창의·인성	배려, 존중	다문화 교육요소	문화다양성, 자아정체성
평가	· 봄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탐구하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물 연극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나. 수업 실제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오픈 ing	· 동기유발 - 동물 소리를 듣고 예상되는 동물 인사로 친구와 인사하기 · 학습주제 안내 봄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알아보고 소리와 몸짓 활동으로 표현해보자.	
드로잉 ing	· 봄에 활동하는 동물 알아보기 - 제시되는 동물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기 - 『세계동물지도 그림책』을 보고 알게 된 내용 발표해보기 · 동물의 고유한 소리를 몸타(몸으로 치는 난타)로 표현하기 - 비 다문화 친구들(한국)이 표현하는 동물소리와 베트남, 중국, 러시아, (다문화친구들)에서 표현하는 동물소리 비교 해보기 - 동물소리를 표현하는 나만의 그림박자 만들기	
컬러링 ing	· 그림박자를 사용하여 우리들의 몸타 만들어보기 - 그림박자를 사용하여 동물소리 박자를 만들고 내가 만든 박자에 맞게 친구들과 함께 몸타로 표현하기 · 봄에 활동하는 동물을 연극놀이로 표현하기 (정지장면) - 나비, 벌, 청개구리, 장수하늘소, 뱀, 곰 등 봄에 활동하는 동물을 모둠별 상의하여 정지장면으로 만들기	
리코딩 ing	동물놀이로 만나는 다문화교육 모든 동물들에게는 종마다 고유의 특성과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자연환경 안에서 서로 돕고 적응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태어난 곳의 환경(인문환경, 자연환경)에 따라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간다.	 

가. 수업 개요

관련교과	통합교과	프로젝트 차시	5-6/12
성취기준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2바02-02]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학습목표	자연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문제 상황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해결해보자.		
수업방향	여름에 전기나 물 소비량이 많은 이유를 알고 에너지 절약수칙을 지키는 습관을 통해서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발생하는 상황을 조사하여 알아보고 세계 속 민주시민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가치·태도	지구촌 환경문제는 우리의 문제임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창의·인성	협동, 도전	다문화 교육요소	반편견, 정체성
평가	·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가?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제시하고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나. 수업 실제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오픈 ing	- 동기유발 ‘너는 어떤 씨앗이니?’ 동화책 읽고 ‘씨앗’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자리 이동 놀이하며 마음 열기 (새싹, 비, 초록, 햇님 등 -4가지 단어 선택) - 학습주제 안내 자연을 소중하게 다루야 하는 이유를 알고 문제 상황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해결해보자.	
드로잉 ing	- 생명을 가진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을 꿈꾸는 씨앗’에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조건 알기 - 지구상에 일어난 환경 문제들을 탐구하기 - 세계에서 일어난 환경문제를 나라별로 보여주기 - 환경문제 중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제 상황을 선택하여 연결 동작으로 표현하기	
컬러링 ing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방법을 토의해보고 모둠별 움직임 연극으로 표현하기 - 제시된 움직임 연극을 보고 청중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인지 맞히고 느낀 점 발표하기 - 생명의 소중함 알기 -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기	
리코딩 ing	환경교육 놀이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해 보면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문제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다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다문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가. 수업개요

관련교과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 차시	7-8/12
성취기준	[2슬03-01] [2슬03-02]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즐긴다.		
학습목표	생태연극놀이를 통해 가족의 모습과 역할을 알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수업방향	우리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인성	배려, 협동	다문화 교육요소	반편견, 다양성
평가	· 가족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말할 수 있는가? ·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존재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나. 수업 실제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오프닝 Oing	• 동기유발 '흙에다 새기는 너의 이름은?' 놀이하기 - 모든 생명에는 이름이 있음을 알고 친구이름 연결 짓기 놀이 • 학습주제 안내 생태연극놀이를 통해 가족의 모습과 역할을 알고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드로잉 Ding	• 학교 운동장과 주변 숲에서 볼 수 있는 새의 모습 관찰하기 • 새의 결혼식 놀이하기 - 주소도 없는 새들이 어떻게 자기 짝을 만날 수 있는지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새가 가족을 이루는 방법 알기 • 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습 놀이로 표현하기 - 모습과 문화가 달라도 모두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까닭 알기 - 따뜻한 가족이 되는 나만의 방법 찾고 가족 역할놀이하기	 
컬러링 Cing	• 새 가족이 살 수 있는 등지를 모둠별로 만들기 - 자연물을 이용하여 새 등지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 밧줄놀이를 통해 아기 새가 되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 비행을 통해 아기 새가 성장하여 다시 가족을 만드는 놀이하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기	
리코딩 Ring	생태교육놀이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다양한 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생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가족이 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각자 문화도 다르고 생긴 모습과 언어도 다른 다문화 친구들이 학교에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가족공동체임을 이해한다.	

5

사계절 소리로 하모니 만들Go~

가. 수업개요

관련교과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차시	9-10/12
성취기준	[2슬04-01][2즐04-01]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고 계절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학습목표	계절마다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을 이해하고 악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난타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방향	한국의 사계절을 이해하고 계절마다 특징적인 소리를 찾아 표현해보면서 자연환경에 따라 생활문화도 달라짐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자연환경도 함께 알아보고 나라마다 다른 환경에 따라 문화와 습관도 달라지는 것임을 느끼도록 한다.		
창의·인성	존중, 협동	다문화 교육요소	다양성, 문화이해
평가	· 각 계절마다의 날씨를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 악기를 사용하여 친구들과의 합동 연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나. 수업 실제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오프닝 Oing	· 동기유발 '계절의 소리를 찾아주세요' 놀이하기 · 학습주제 안내 계절마다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을 이해하고 악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난타로 표현해보자.		
드로잉 Ding	· 『우리는 날씨 연구소』 동화를 보고 내용 이해하기 ·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있을까? -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계절은 없는 것일까? · 여러 나라의 영상(우간다, 캐나다 등)을 보며 우리나라처럼 온도 차가 심하지는 않지만 변하는 계절이 있음을 이해하기 · '날씨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활동 놀이하기 - 날씨에 따른 생활 모습 이해하기		
컬러링 Cing	·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을 그려보고 표현할 수 있는 박자와 소리로 나타내기 - 해, 비, 바람, 천둥, 번개, 소나기 박자 만들기 ·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 탐구하여 각 계절마다 특징적인 소리를 모듬별로 표현하기 - 천둥 : 썬더튜브, 비 : 우드블럭, 번개 : 심벌즈, 바람 : 마이벨블루 · 모듬별로 합동 연주하며 하모니 만들기		
리코딩 Ring	난타놀이에서 만나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사계절을 이해하고 계절마다 특징적인 소리를 찾아 표현해보면서 자연환경에 따라 생활문화도 달라짐을 이해한다.	나라마다 계절적 특징이 달라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다문화 친구들과 난타로 계절을 표현해 봄으로서 긍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높인다.	

가. 수업개요

관련교과	통합교과, 수학,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 차시	11-12/12
성취기준	[2수02-01]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관찰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학습목표	다양한 잎들을 관찰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여 놀이를 만들 수 있다.		
수업방향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주변의 잎들을 모아서 기준에 따라 모양대로 분류해 보고 모양이 다른 잎에도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한다. 공통점이 있는 식물의 특징을 탐구하고 그 잎을 활용하여 모둠별 협력하는 교육놀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과 비 다문화학생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한다.		
창의·인성	도전, 협동	다문화 교육요소	다양성, 정체성, 협력
평가	· 다양한 잎들을 관찰하여 비슷한 모양끼리 분류할 수 있는가? · 식물의 특징을 탐구하여 친구와 협력하는 놀이를 구안할 수 있는가?		

나. 수업 실제

학습단계	주요 활동 내용	교구활용 및 활동사진
오프닝 Oing	• 동기유발 - 교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양 찾아 눈치 발표 게임 • 학습주제 안내 - 다양한 잎들을 관찰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여 놀이를 만들 수 있다.	
드로잉 Ding	• 색종이 분류하기 - 색깔별, 모양별, 크기별 자신의 기준으로 분류해보기 • 식물들도 우리처럼 생김새가 달라요. - 같은 나뭇잎 두 장을 서로의 등에 붙이고 난 뒤 친구들에게 등을 보이며 나뭇잎 모양에 대한 설명 듣기 • 친구들과 모아온 잎들을 다양한 분류기준으로 분류하기 • 분류된 잎들의 공통점 찾아서 의견 나누기	
컬러링 Cing	• 넓은 잎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만들기 <물 전달하기 놀이> - 모둠별로 나뭇잎을 활용해 목표 지점까지 물 나르기 놀이 해보며 모둠별로 협동하기 • 잎에서 발견한 구멍의 정체는? <매미물충놀이> - 맛있는 나뭇잎을 좋아하는 매미의 역할알기 -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사는 것을 이해하고 물충 놀이하기 • 오색 색종이로 하나 된 우리 - 주변의 소중한 생명들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오색 색종이로 함께 만드는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리코딩 Ring	모양 분류로 찾는 다문화교육 모양이 다른 잎에도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을 구하여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협동 놀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언어와 모습을 가진 친구들 속에서 우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놀이로 만들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놀이로 통합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6 결론

우리 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약 30%이고 1학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그보다 높은 35%인 교육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학기 초보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에 주저함이 없어졌고 생각을 표현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언어소통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던 다문화 학생들도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친구들과의 어울림도 증가하고 있다.

마음이 열려야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다문화 교육은 소재나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활과 교육과정 속에 이미 다문화 교육 요소가 스며들어 있고 그것을 어떤 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1, 2학년 단계에서는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교육연극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연극 프로젝트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



장려상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박성윤 | 송신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과 연계 [교과명: 도덕]

대상학교급(학년) | 초등학교(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의 수업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접목하여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문화교육의 목표에는 부합한 내용이나 수업의 내용이나 교수방법이 평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ppt는 바로 수업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영혼의 살인마, 혐오표현!

성숙한 시민의식이 궁극적 해결의 열쇠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이나 연령별 혐오, 외국인과 지역감정으로 인한 차별적인 표현들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다문화 인구 유입에 따른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치기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혐오 문화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혐오 표현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지금, 사회적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9)’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인 64.2%가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82.9%가 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인구 유입과 함께 인터넷, SNS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어릴 때 부터 올바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수업자는 다문화감수성교육을 통해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수용성과 포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아울러 최근 언택트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인종차별, 외모 비하 등의 사이버 혐오표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윤리교육 통해 건전한 인터넷윤리의식과 성숙한 디지털시민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2 수업 방향

비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과 혐오 없이 더불어 살아가며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수업

수업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다문화 감수성 교육)

[수업목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

포용력

수업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인터넷 윤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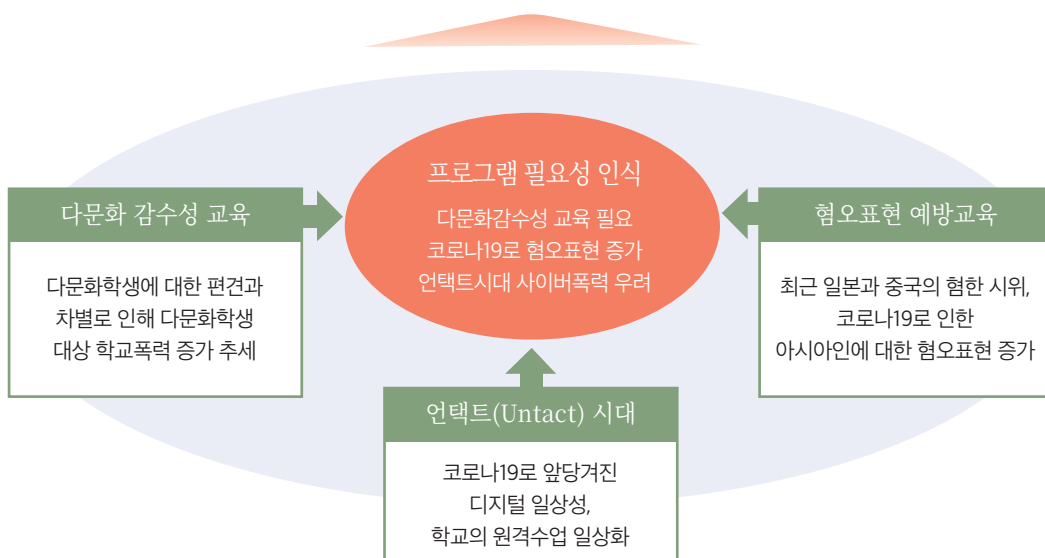
[수업목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인터넷윤리의식

디지털시민역량

수업방향

- ▶ 최근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라 학생간의 차별과 무시로 사이버폭력이 증가 추세이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교육이 필요함.
- ▶ 사이버 혐오표현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 ▶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일상성,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수업이 보편화 됨에 따라 학생의 온라인 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사이버 폭력 증가 우려



3 수업 자료

가. 1차시

[프로젝트명] :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1/2)

<주제1> √	<주제2>
[1차시]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2차시]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관련교과	5-2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4/4차시, 도덕 p126~131)	차시	1/2차시(40분)
학습주제	편견 없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학습 목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교수·학습자료	PPT, 활동지, 평가지 등		
성취기준	[6도03-01]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학습자료(자) 및 유의점(유)	소요 시간
		교 사	학 생		
도입	동기 유발	문제인식 / 동기유발		(자) 영상(PPT)	3분
		T: 다음 영상(PPT)을 보고, 얼굴로 범죄자를 찾아봅시다.	S: 영상(PPT)을 보고, 얼굴로 범죄자를 찾아본다.		
		T: 몇 개를 맞추었는지 확인하고, 얼굴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S: 자신이 맞춘 개수를 확인하고, 얼굴로 범죄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T: 다음 영상(PPT)을 보고, 세계 각국의 미의 기준을 알아봅시다.	S: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의 미의 기준을 살펴본다.		
	학습 목표 제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1분
	학습 활동 안내	▶ 활동1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 활동2 :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 활동3 :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1분
전개	활동1	활동1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영상(PPT) (유) '아름답다'의 어원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모두 다르므로 그 뜻을 논하는 것보다는 수업 목적에 맞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학생 스스로 찾도록 유도한다.	10분
		T: '아름답다'라는 뜻의 어원을 살펴봅시다.	S: '아름'에서 비롯되어 풍족, 만족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T: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S: '나를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S: '美'는 羊과 犬가 합쳐진 말로 양이 많아 풍족하여 보기 좋다는 뜻입니다. S: 'Beautiful'은 pretty나 cute와는 다른 뜻입니다.		
		T: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S: 나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개	활동2	활동2 : 편견 없애기		(자)영상(PPT) (자)활동지 (유) '위니할로우'를 통해 자신의 약점은 당당함으로 맞서고, 타인의 약점은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10분
		T: 다음 영상(PPT) 자료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T: 어떤 내용입니까? T: 콤플렉스를 개성으로 이겨낸 모델 '위니할로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T: 위니할로우'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T: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읽어봅시다. T: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S: 자료를 보고 생각한다. S: 콤플렉스를 개성으로 이겨낸 모델 '위니할로우'의 이야기입니다. S: 자신의 약점, 콤플렉스를 당당하게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S: '위니할로우'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작성해 본다. S: 자신이 작성한 편지를 읽어본다. S: 자신의 약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S: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놀리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활동3	활동3 :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자)영상(PPT) (유)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하여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한다.	10분
정리	정리 하기	정리하기		(자)영상(PPT) (유)평소에 외국인을 만날 때 편견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자)활동지	3분
		T: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T: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약속을 해 봅시다.	S: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 외국인과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S: 주어진 나의 약속(서약서)을 작성하고 스스로 약속해 본다.		
평가	평가 하기	T: 오늘 배운 내용을 평가해 봅시다. T: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하는지 생각해 보고, 초성퀴즈를 풀어 봅시다. T: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S: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S: 이해, 배려, 사랑, 존중입니다.	(자)평가지	2분

평가계획			
영역	평가내용	평가 시기	평가 방법
인지적 측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가?	수업 중	평가지, 관찰 평가
행동적 측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가?	수업 중	관찰 평가
정의적 측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수업 중	관찰 평가

나. 2차시

[프로젝트명] :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2/2)

<주제1>	<주제2> ↓
[1차시]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2차시]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관련교과	5-2 도덕 4.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4/4차시, 도덕 p90~95)	차시	2/2차시(40분)
학습주제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학습 목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교수·학습자료	PPT, 활동지, 평가지 등		
성취기준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자) 및 유의점(유)	소요 시간
		교 사	학 생		
도입	동기 유발	문제인식 / 동기유발		(자)영상(PPT) (자)활동지	8분
		T: 다음 영상(PPT)을 보고, 인종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다문화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S: 영상(PPT)을 보고, 인종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다문화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T: 뉴스를 통해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S: 뉴스를 통해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T: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살펴봅시다.	S: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살펴본다.		
		T: 사이버 자가진단표를 통해 나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점검해 봅시다.	S: 진단표를 통해 나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본다.		
	학습 목표 제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1분
	학습 활동 안내	▶ 활동1 : 혐오표현이란? ▶ 활동2 : 사이버 혐오표현 이전 안녕! ▶ 활동3 :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1분

전개	활동1	활동1 : 혐오표현이란?		(자)영상(PPT)	5분
		T: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T: 혐오표현은 무엇인가요? T: 혐오표현의 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T: 혐오표현은 왜 위험할까요?	S: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하여 알아본다. S: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S: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 급식충, 짱개, 흑형 등이 있습니다. S: 혐오표현은 차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외감과 좌절감을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유) 혐오표현의 의미와 사례를 통해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아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활동2	활동2 : 사이버 혐오표현 이젠 안녕!		(자)영상(PPT)	
		T: 다음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다. T: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S: 다음 영상을 통해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S: 첫째, 내가 평소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사이버 상에서의 나의 글과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유) 평소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10분
	활동3	활동3 :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자)영상(PPT)	10분
		T: 다양한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 사례를 살펴 봅시다. T: 다양한 슬로건을 살펴봄,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T: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고, 이를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봅시다.	S: 영상을 보며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는 마음을 길러 본다. S: 다양한 슬로건을 살펴봄,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져본다. S: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고, 이를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본다.	(유)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기관을 살펴봄으로써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자)활동지	

정리	정리하기	정리하기		(자)영상(PPT)	3분
		T: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T: 서약서를 작성하며,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해 봅시다.	S: 평소 자신이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나의 글과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S: 주어진 나의 약속(서약서)을 작성하고 스스로 약속해 본다.		
평가	평가하기	T: 오늘 배운 내용을 평가해 봅시다.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써 봅시다. T: 앞으로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S: 사이버 혐오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 자신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자)평가지	2분

평가계획

영역	평가내용	평가 시기	평가 방법
인지적 측면	사이버 혐오표현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수업 중	평가지, 관찰 평가
행동적 측면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수업 중	관찰 평가
정의적 측면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수업 중	관찰 평가

4 기대 효과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수업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다문화 감수성 교육)

다문화수용성

포용력

수업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인터넷 윤리 교육)

인터넷윤리의식

디지털시민역량

기대효과 1

- ▶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다문화수용성과 포용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2

- ▶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 **인터넷윤리의식**과 **디지털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과 혐오 없이 더불어 살아가며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을 만드는 어린이

1 활동지

가. 1차시 활동지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활동지

주제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다문화에 대한 편견 없애기

()초등학교 ()학년 ()반 성명()

1. '위니할로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여 격려하는 편지를 써 보시다.

우니 할로 우에게

년 월 일
()가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활동지

주제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서약서 작성하기

() 초등학교 () 학년 () 반 성명 ()

1.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나의 약속을 해 봅시다.

나의 약속

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둘째, 외모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셋째,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_____ (서명)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평가지

주제1: 편견 없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세상 만들기

평가지

()초등학교 ()학년 ()반 성명 ()

1.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다’의 뜻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이란?

.....

.....

.....

.....

2.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초성퀴즈를 풀어 봅시다.



나. 2차시 활동지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활동지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사이버 자가진단표

()초등학교 ()학년 ()반 성명 ()

1. 사이버 자가진단표를 통해 나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점검해 봅시다.

사이버 혐오표현 사용 실태 자가진단표

순	내용	해당란에 ‘√’ 표시	
		예	아니오
1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	☐
2	온라인 혐오표현의 문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	☐
3	온라인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	☐
4	온라인 혐오표현은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
5	무심코 나누는 SNS 대화 속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있나요?	☐	☐
6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	☐
7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
8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	☐
9	평등·다양성 존중에 대해 논의하며, 평등하고 건전한 평등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	☐
10	친구들과 인터넷 사용 약속을 정할 때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에서 소수자인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	☐
나의 점검결과		()개	()개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활동지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혐오표현 없는 세상 만들기 슬로건

()초등학교 ()학년 ()반 성명 ()

1.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의 슬로건을 만들어 주변에
홍보해 봅시다.

나의 슬로건 (1)

슬로건	
의 미	

나의 슬로건 (2)

슬로건	
의 미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활동지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서약서

() 초등학교 () 학년 () 반 성명 ()

1.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해 봅시다.



나의 약속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평소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상에서의 나의 글과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셋째,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_____ (서명)

‘편견과 혐오를 넘어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으로’

활동지

주제2: 혐오표현 없는 아름다운 다문화 세상 만들기

평가지

()초등학교 ()학년 ()반 성명 ()

1.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써 봅시다.

문제점

.....

.....

.....

.....

.....

.....

.....

.....

.....

.....

예방법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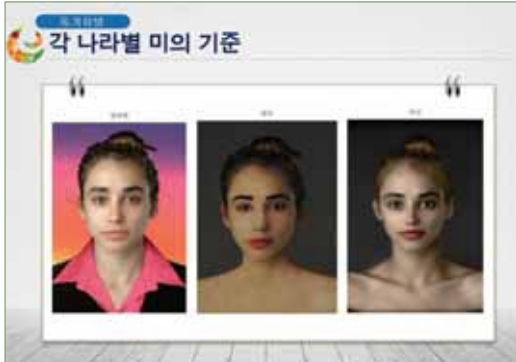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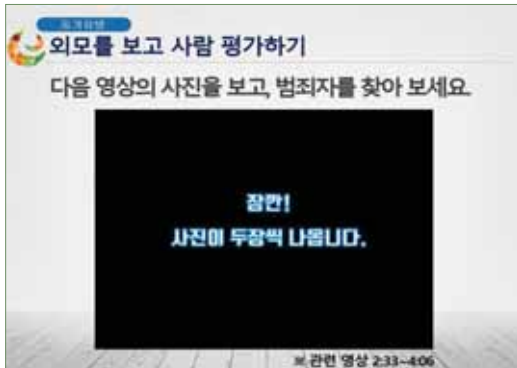
.....

.....

.....

2 PPT

가. 1차시 PPT



각 나라별 미의 기준

“최근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의 미남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각 나라별 미의 기준



미국(USA) 멕시코(Mexico)
브라질(Brazil) 남아프리카(South Africa)

각 나라별 미의 기준



나이지리아(Nigeria) 터키(Turkey)
이탈리아(Italy) 영국(U.K.)

각 나라별 미의 기준



인도(India) 필리핀(Philippine)
호주(Australia) 한국(South Korea)

각 나라별 미의 기준

“하지만 이런 미남, 미녀도 있습니다.”



파당족(기린족)
목이 길어야 인기를 독차지하는 미안마의 한 부족

수리족, 무르시부족
에디오피아의 부족으로 입술에 구운 진흙쟁반을 장식으로 사용

각 나라별 미의 기준

한번 생각해 볼까요?

- “미”의 태라에 놀랄 때 세계적으로 미국의 **백인표형**을 많이 본다.
- 2015년 할리우드 한 보고서(Hollywood Diversity Report)에 따르면 2012년에 나온 영화 중 **흑인배우는 83.3%가 백인**이었다.
- 브라질에서는 흑인 남성보다는 백인 남성이 섹슈얼해 수컷에 종사된다.
- 남아프리카 2014년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미 기준 77%가 미남이 백인**이었다.
- 남아프리카 2014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명 모두 백인**이며, 남성미 기준 모두에게 **백인**이 매우 인기가 높다.
- 인도에서는 2011년 이후 소년계의 세력의 81%를 **미남**이 차지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성별수출**에 참여해 커넥트고 있으며, 남성에게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 미남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84%의 남성이 **미남이**가 **미남**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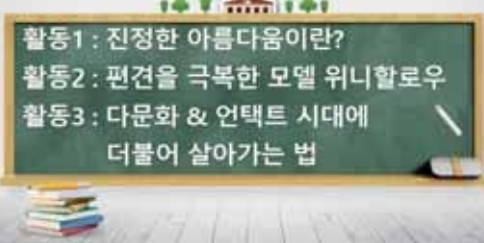
과연 우리는?

학습목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활동안내



활동1 :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활동2 :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활동3 :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활동 1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 미

- 아름다움 미(美)는 양양(羊)과 큰대(大)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 양의 무리가 크게 펼쳐진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 옛날 중국사람들은 양의 무리가 크게 있느니 풍족하여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활동 2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각 나라의 '아름답다'의 어원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Beautiful
아름답다



활동 3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아름답다 (=알다)

- 아름답다(Beautiful)=알다(know)
- '아름답다'는 본래 어떤 것에 대하여 '알다'라는 뜻이다.
- '아름다운 나'는 '나를 아는 것' 즉 '나'다운 것'을 말한다.
- '아름다운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길이 아닌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아름답다 (=아름)

-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한 아름 크게 안고 가는 것으로 양껏 안고 있는 기쁘고 풍족한 모습을 나타낸다.
- 결국 '미'라함은 만족하는 또는 즐거워나 흠족하는 모습이나 자세로 볼 수 있다.

활동 4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Beautiful=pretty(?)=cute(?)

- 어원적으로 보면 부티플한 여자는 '독바른 여자'이지만 프리티하거나 큐트한 여자는 '커닝을 잘하는 여자', 즉 '속임수에 능한 여자'를 뜻합니다.
- 즉, pretty와 cute에는 '내실이 없지만 아기자기한 눈속임으로 슬쩍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곧 천리'라고 믿어온 서양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보고 'beautiful하다'고 말하면 칭찬으로 듣지만, 'pretty하다'고 말하면 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활동 5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활동 6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영상을 보고,
편견을 극복한
세계적인 모델
'위니할로우'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편견을 극복한 모델 위니할로우

자신의 콤플렉스를 개성으로 이겨낸 모델 '위니할로
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녀에게 격려하는 편지나 SNS를 써 봅시다.



활동 3
(다문화 & 언택트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러나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 1위 한국 36위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다음 영상을 보고, 외국인(다문화학생)이 한국에서 경험한 인종차별 사례를 살펴봅시다.



활동 3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상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언택트(Untact)란 무엇인가?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반대되는 뜻하는 'Un'을 붙인 '비접촉' 비대면의 뜻을 가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던 일상의 순간들로부터 비대면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는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비대면 진료 등

지금 우리는
언.택.트

활동 3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사이버 상에서 외국인과의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이란?
이메일이나 SNS 등을 이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 11월)

활동 3
다문화 & 언택트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법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사이버 상에서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해 배려 사랑 존중

정리하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 ✓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 ✓ 외모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 ✓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堂堂하게 살아갑니다.

정리하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나와의 약속을 해 봅시다.

나의 약속

나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 사이에서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약속합니다.

주요: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문화: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다운 것이므로,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습니다.

언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堂堂하게 살아갑니다.

의심: 모든 문화가 아름답습니다.

의심: _____ (학생)

평가하기

서술형 평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평가하기

서술형 평가(예시 답안)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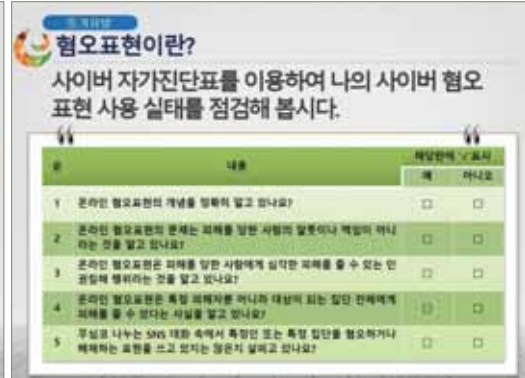
평가하기

초성 퀴즈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 2차시 PPT



학습목표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활동안내

활동1 : 혐오표현이란?
활동2 : 사이버 혐오표현 이제 안녕!
활동3 :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활동 1

(혐오표현이란?)

활동 1

혐오표현이란?

영상을 보고, 사이버 혐오표현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활동 2

혐오표현이란?

무엇이 혐오표현인가요?

혐오표현(hate speech)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 2 기만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면하거나 혐오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활동 2

혐오표현이란?

무엇이 혐오표현인가요?

혐오표현 예시

- 1 성별 - 갑작스레 성기 등
- 2 나이 - 급식촌, 불매운동
- 3 인종이나 출신국가 - 핏대, 평남아, 흑혈, 디문화 등
- 4 장애 - 병신새끼 등
- 5 (트위터)간 공부를 열심히한 학원 아주 노력자들이랑 같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합니다
- 6 대장한 학생(제)너 가봐라-고
- 7 난민들은 거지들로 국내에 들어온 것아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활동 3

혐오표현이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표현

COVID-19 관련 혐오표현 사례

- ✓ 특정 국가 자택 출신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칭
- ✓ 특정 국가 자택 출신 학생과 자리가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학교에 요구한 사례
- ✓ 길 가던 중국인에게 물이 가라고 소리치거나 식당 앞에 중국인 출입금지표 부착한 사례
- ✓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학생이 수업 형식을 금지한 사례
- ✓ 코로나19를 옮기지 말라며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해외 사례 등

활동 3

혐오표현이란?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혐오표현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 사회적 배척을 초래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나아가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타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활동 1
혐오표현이란?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일까?”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공평하게 활동할 위치에서 소용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표현에 따라 다른 사람이 권리에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평성을 위협해버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소지)하지,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목적인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고

활동 2
(사이버 혐오표현 이젠 안녕!)



활동 2
사이버 혐오표현 이젠 안녕!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속의 법질서
[사이버예절]



활동 2
사이버 혐오표현 이젠 안녕!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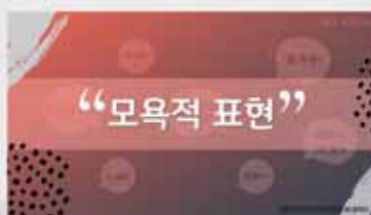
- ✓ 평소 자신이 사이버상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기
- ✓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말과 글이 혐오표현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하기
- ✓ 사이버 혐오표현은 옳지 않은 행동임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활동 3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활동 3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 봅시다.

“모욕적 표현”



※ 출처 2020 전북 학생인권 날 UCC 공모전 수상작(혐오 영혼의 살인)

활동 3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사이버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 봅시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대상
건강한 인터넷몰리·문화 조성 사업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을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관련 소양교육과 다양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인세인페인 ▶ 창작동요제
▶ 창작콘텐츠공모전 ▶ 인터넷윤리포럼

<http://digitalcitizen.kr/>

활동 3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아인세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살펴봄으로써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져봅시다.

- ▶ 타자는 신중히, 타인은 소중히.
- ▶ 얼굴은 안보여도 마음은 보입니다.
- ▶ 잠 쉬운 재능기부! 힘나는 댓글하나!
- ▶ 선물 하나 천명 베풀, 악물 하나 천명 적
- ▶ 익명은 숨길 수 있어도 양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 ▶ 마음껏 두드려대는 자판에 마음은 두들겨 맞습니다.

※ 출처 아인세 홈페이지: <http://digitalcitizen.kr/>

활동 3
혐오표현 예방 슬로건 만들기

사이버 혐오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주변에 홍보해 봅시다.

제목	
내용	

정리하기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 ✓ 내가 평소 사이버 상에서 혐오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반성하기
- ✓ 사이버 상에서의 나의 글과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기
- ✓ 사이버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정리하기

사이버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와의 약속을 해 봅시다.

나의 약속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1.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2.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3.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4.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5.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6.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7.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8.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9.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10. 나는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약속을 한다.

평가하기

서술형 평가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써 봅시다.

평가하기

서술형 평가(예시 답안)

사이버 혐오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사이버 혐오표현 사후 심의를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혐오 표현이 없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3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8135(2020.7.6.)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 ◆ 교육부(2018), 연도별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수 ◆ 교육부(2020), 교사용 지도서 도덕 5 ◆ 여성가족부(2015),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 피해 유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 2019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초등 기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Vol. 03),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동향 보고서 ‘온라인 혐오표현의 이해와 디지털시민역량 교육의 필요성’
참고 사이트	◆ 아름다운인터넷세상 (http://digitalcitizen.kr/main.do)
참고 영상	◆ 범죄자 관상이 따로 있을까 얼굴만 보고 흉악범인지(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4JCYjhmin84) ◆ 범상치 않은 의사의 진단, 결국 그녀를 대스타로 만들었다(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KRFY7rtVyl) ◆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코리안브로스) (https://www.youtube.com/watch?v=pqUGVbMg3eM) ◆ 흑인들, 흑형이란 말을 들으면(유튜브 TV쌈 라비네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CyZyl5-L2Eg) ◆ 진지충 설명충 일상에 스며드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SBS) (https://www.youtube.com/watch?v=9Ca3NTtlgSY) ◆ 청소년 인식조사 혐오표현(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일보) (https://www.youtube.com/watch?v=V2QH_h7cDCU) ◆ 혐오, 마음도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kbc카드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qPnPFjOPVFI) ◆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사이버상 혐오표현에(법무부) (https://www.youtube.com/watch?v=1xSPA_lXgOs) ◆ 혐오, 영혼의 살인(2020 전북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수상작) (https://www.youtube.com/watch?v=fYNO7cVojUM)



장려상

“모자이크 프로젝트”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이틀)

임현미 | 백산고등학교

교육과정 | 모자이크 프로젝트

대상학교급(학년) | 초등학생~고등학생

심사
의견

초등에서 고등까지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교육적 취지에 적합하게, 고등학교에서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각도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 교과와 성격에 적합한 다문화 교육자료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교육과정 전체를 재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1 기획의도

-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및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6+'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학교는 17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16주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마지막 1주를 학교 자율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산고등학교는 이 자율교육과정 시간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획 과정** : 학기초, 교육과정 바로 세우기 주간을 활용하여 교사들끼리 '학생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가치가 '다양성'이라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 다양성을 가르치는 방법을 현실에서 구현하다 보니, 이는 다문화교육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일주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2 목적

- 가. 교육과정 내의 다양성에 관련된 수업 내용을 융합하여 통섭적인 사고를 기를 것과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 교양을 쌓는다.
- 나. 민주시민으로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체화한다.
- 다. 세계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세부 계획

가. 국어과 : 문학으로 만나는 문화 다양성 - 우리가 이민자였던 시절, 우리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

- 1) 이금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 / 은유 <있지만 없는 아이들>
- 2) 독서 마라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위 2가지 작품을 모두 읽고, 독후 활동을 실시한다. 위 작품을 기반으로 독서 퀴즈 대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도 및 관심을 높인다.

- 3) 이금이 작가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통해 우리가 이민자였던 시절을 되돌어 보고, 은유 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점검한다.
- 4) 은유 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리 정책 및 난민에 대한 입장,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며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가 현실속에서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고민해본다.
- 5)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난민수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 편의 글로 정리하며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확립하도록 한다.

나. 영화 '미나리' 감상

- 1) 미나리를 감상하며 교포들이 정착 초기에 겪었던 아픔에 공감해 보며,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2) 한국, 중국, 일본의 민족주의가 세 나라의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사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요약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 사회 전반-다른 국가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

- 1) 세계 곳곳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 조사하기
: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기
- 2)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기

라. 생명과학 :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를까? (인종에 따른 유전자 형질 차이)

- 1) 김승섭 작가의 '우리 몸이 세계라면' 을 읽고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2) 생명과학 수업시간을 활용, 인종에 따른 형질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고, 유전자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 3)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같은 인종 집단 내에서도 다른 인종 집단 간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내 본다.
- 4) 위의 활동을 통해 염기서열의 차이가 인종 간 우성과 열성을 나눌만큼 차이를 보였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느낀 점을 적어본다.

마. 음악 : 다양한 나라의 국가 알아보고 불러보기

- 1) 외국의 한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의 국가를 조사한다.
- 2) 각 국가의 가사를 번역하며 국가에 담긴 이야기, 역사 등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 3)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 국가의 가사를 번역하고, 역사적 배경 및 얽힌 이야기를 조사한 후, 다른 나라의 국가를 함께 연습하여 발표한다. (자율교육과정 마지막 날 공연형태로 발표)

바. 세계사, 영어 - 우리가 차별을 멈춰야 하는 이유

- 1) 역사적으로 국가별, 인종간 차별을 멈추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한다.
- 2) 유엔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 본다.

- 3) 학급별로 30개조의 세계 인권선언의 각 조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한다.
- 4) 학급별로 학교 현관에 작품을 전시, 전교생이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사. 활동종합 : “우리의 다짐” (영어 연계)

- 1) 차별을 멈추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글을 작성하고, 행동으로 옮길 항목들을 정리해본다.
- 2) 우리의 다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친구들과 함께 발표해본다.

아. 최종 정리 : “차별을 멈추는 날”

- 1) 4일간의 활동에 대한 최종정리를 한다.
- 2) 활동하며 읽은 3권의 책에 대해 독서퀴즈대회를 실시한다.
- 3) 학급별로 연습한 다른 나라의 국가에 대해 발표한다.
- 4) 학급별로 제작한 세계인권선언의 이미지를 전시한다.
- 5) 차별을 멈추기 위한 우리의 구호를 외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4 수업사례 활동사진



▲ 독후 활동 및 모둠별 활동 모습



▲ 세계 인권 선언 이미지 제작 및 전시



▲ 다른 나라 국가 가사의 의미 및 역사 소개, 국가 부르기 대회 모습



▲ 활동 워크북 제작

5 수업 후기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항상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내신 시험이 모두 끝난 후,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가치를 탐구해보고, 내면화하는 수업을 할 수 있어 더 효율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혹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자신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인 고등학생이기 때문인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둠활동, 학급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며, 학급에서 소외되는 학생들도 모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 국가부르기’ 행사나 ‘세계 인권선언 이미지화 하기’ 등은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동시에 마치 학교 축제에서 공연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차별을 멈추겠다는 구호를 제정할 때,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2학년
자율교육과정

모자이크 프로젝트



2021.07.

백산고등학교

목차

I . 우리가 이민자였던 시절.....	p.2
II . 우리가 이민자를 대하는 자세.....	p. 10
III. 다른 국가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	p.18
IV.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은 정말 다를까 ..	p.24
V. 다른 나라 국가 알아보기.....	p. 27
VI. 우리가 차별을 멈춰야 하는 이유.....	p. 29
VII. 차별을 멈추려는 우리의 자세.....	p. 34

I. 우리가 이민자였던 시절 (이금이 / 알로하, 나의 엄마들 / 창비)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한다.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로, 이산(離散) 또는 파종(播種)을 의미한다.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아스포라 [Diaspora] (두산백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최근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 우리말샘

1.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2. 이 책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하와이 노동자로 떠났던 우리 민족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적어 봅시다.

3. 우리 민족은 하와이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하여 해외 노동자로 떠났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적어 봅시다.

읽기자료 1 > 하와이 사진 신부의 고난과 승리

(서울=연합뉴스) 1910년 11월 28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 최사라라는 23세 목포 출신 조선 처녀가 배에서 내렸다. 하와이 사진신부 1호이다.

최사라는 당시 38세이던 하와이 국민회 총회장 이내수와 결혼했다. 하와이에서 우리말로 발행되던 국민보 1910년 12월 6일 자에는 이내수가 조선에서 온 약혼녀와 민찬호 목사의 주례로 이민국에서 결혼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진결혼 2호는 23세 의주 처녀 유명선과 39세 백만국이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미국의 동양인배척법(Oriental Exclusion Act)이 제정된 1924년까지 14년 동안 1천56명의 조선 여성이 중매쟁이가 건넨 신랑감 사진 한 장을 들고 혈혈단신 태평양 건너 머나먼 땅 하와이로 갔다. 지역만리 항해에 나선 사진신부들의 나이는 16세에서 24세 정도, 학력은 대부분 무학이었다.



호놀룰루에서 촬영하기 직전의 하와이 사진신부들

하와이 사진신부란 하와이에 이민한 신랑감의 사진만 보고 편지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이민을 떠난 여성들을 말한다.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신부들은 마중 나온 신랑감을 보고 기겁을 했다. 사진 속 20대 청년은 간데없고 노동에 찌든 아버지뻘 되는 나이 든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들의 평균 나이 차이는 15살. 당시 조선의 조혼 풍습으로 보면 부녀지간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고국으로 보낸 사진들은 대개 10여 년 전 조선에서 하와이 이민 노동자를 모집할 때 찍은 사진들이거나, 남의 저택이나 좋은 차를 배경으로 연출한 사진들이었다.

그래도 이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었다. 하와이로 오는 비용을 신랑감이 부담한 데다, 고향으로 돌아갈 뱃삿도 없었고, 돌아간다고 해도 기다리는 것은 암울한 현실과 막막한 미래뿐이었다. 그렇게 결혼한 사진신부들은 낮에는 남편과 함께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샴바느질해서 생계를 꾸리고 자식들을 길렀다. 사진신부들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이른 나이에 사별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양계 이민자들이 늘어나자 실직 위기에 처한 하와이 주민들의 반발로 미국 의회가 1924년 동양인 배척법을 제정. 동양인의 미주 이민을 금지하면서 사진신부도 더는 하와이로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읽기자료 1 > 하와이 사진 신부의 고난과 승리



사진신부 천연희

경남 진주 출신 천연희(1896~1997)는 20세이던 1915년 6월 29일 하와이 마우이 섬 파피아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길찬록의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건너갔다.

당시 하와이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백인 노동자는 임금이 비쌌고 일본인이나 중국인 노동자도 세월이 흐르자 미국 본토로 건너가거나 파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도 거둬지는 가뭄과 홍수로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백성들을 외국으로 이민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1902년 하와이 설탕재배자협회의 찰스 비숍회장이 내한해 대한제국 정부와 이민협정을 체결했다.

1902년 11월 이민업무를 전담하는 수민원이라는 기구가 설립돼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할 이민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마침내 1902년 12월 22일 102명의 청년이 제물포항에서 증기선 게일릭호에 승선해 하와이로 떠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었다. 이들은 1903년 1월 13일 새벽 호놀룰루 제2부두에 도착했다. 첫째 1천133명을 시작으로 1904년에 3천434명, 1905년에 2천659명 등 1905년 7월까지 2년 반 동안 65회에 걸쳐 7천226명이 건너갔다.

이들은 하와이 전역 사탕수수농장에 배치됐다. 뜨거운 햇볕 아래 열악한 환경과 가혹한 중노동, 저임금에 시달렸다. 사탕수수농장의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돼 오후 4시 반에 끝났다. 점심시간 30분이 유일한 휴식시간이었다.

이들 상당수가 미혼이었으나 동양인과 미국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법으로 현지의 미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다. 결혼하러 고향을 다녀온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음주, 도박,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농장주들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작업능률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것이 사진결혼이었다. 하와이 정부는 결혼을 위해 하와이에 오는 여성들의 입국을 허가했다. 매일신보 등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에 이민 간 한국 남성들의 사진을 들고 집집이 돌아다니며 중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여성들이 있었다. 미혼 여성뿐 아니라 과부들까지 하와이가 지상낙원이라는 중매쟁이의 말에 솔깃해 배를 탔다.

읽기자료 1 > 하와이 사진 신부의 고난과 승리



천연희가 하와이에 사진신부로 갈 때 발급 받은 여권

이민자들이 가정을 이루자 비로소 한인 공동체가 형성됐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당시 남자 67센트, 여자 50센트에 불과한 하루 품삯의 3분의 1을 떼어 독립운동 자금 총 300만 달러를 모았다. 하와이 국민회는 동포들의 생활 안정, 2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 모금운동도 펼쳤다. 1932년 5월 22일 오후 5시 와이하와 지역 동포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회를 결성했다.

하와이 초기 한인이민사는 여성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신부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하와이 한인사회 발전의 주역이 되었고, 독립운동에도 남성 못지않게 기여했다.

이들은 남의 집 똑똑한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주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마다치 않았다. 일부는 신명부인회, 부인교육회, 대한부인회, 대한부인구제회 등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하와이 이민자 중 상당수는 고된 노동을 견디다 못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본토로 재이주했다. 본토의 철도노동자 임금이 사탕수수농장 임금의 2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1910년 당시 하와이에 남아 있던 한인인 4천187명이었다.



천연희의 자필 회고록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재외동포는 743만664명. 이중 미주 지역 동포는 283만9천978명이다.

첫 이민자가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여 미국 연방 상하원은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지난 2005년 12월 통과시켰다.

읽기자료 1 > 하와이 사진 신부의 고난과 승리

미국 전역에서 기반을 다진 이민 1세대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놀라운 교육열을 발휘해 후손들이 미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미주 동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어느 민족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난과 망국, 전쟁 때문에 고국을 뒤로하고 이국땅 사탕수수농장 노동자로 떠났던 선조들과는 달리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활약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로 변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016년 11월 1일 현재 176만4천664명으로, 총인구 대비 3.4%에 이른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만6천651명, 여성이 81만8천103명이다. 이주 여성 중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100여 년 전 고된 항해 끝에 불안 반 기대 반으로 호놀룰루 항구에 내렸을 사진신부들. 처음 보는 신랑을 만나서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백인들로부터 차별받으며 노동을 하고 자식을 길렀을 것이다. 신산한 삶에 고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날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은 잃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으로 재외동포들은 오늘날의 지위를 갖게 됐다. 이들의 역경과 승리를 생각하면 우리 주위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과 포용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2017.11.24. / 김은주

4. 영화 미나리를 감상해봅시다.



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과 장면에 대해 말해봅시다.

나. 영화를 보고 난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 말해봅시다.

4. 영화 미나리를 감상해봅시다.



다. 이 영화가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 이 영화에 대한 나의 점수를 표시해 봅시다.



Ⅱ. 우리가 이민자를 대하는 자세 (은유/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

1. 이 책을 읽은 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문구에 대해 적어봅시다.

2. 평소 자신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길거리에서 마주쳤다고 가정하고 드는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3.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4.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5.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리에 대해 알아보시다.

가. 우리나라는 국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라. 우리나라는 국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귀화 포함)

마. 우리나라는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어떤 방법을 시행하고 있나요?

바.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6. 난민에 대하여

가.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 난민을 인정하나요?

나. 난민으로 정식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얼마쯤 되나요?

라.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마. 난민을 인정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로는 무엇이 있나요?

바. 그렇다면, 우리는 난민을 수용해야 할까요? 난민 수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봅시다.



읽기자료 2>난민 인정률 1.5% 불과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심사 떨어지면 체류 자격 無...취업허가 신청 사실상 불가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난민 재신청자 하디아(33) 씨는 4명의 자녀가 있다. 심사 기간 3개월 정도의 출국 유예만이 내려지고, 정식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자녀도 무국적자 신분이 된다. 하디아 씨는 "제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아이도 먹여 살려야 한다.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비행기값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돈"이라고 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심사 기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가 힘들고, 난민 인정률도 낮아 출국 당할 수 있는 불안감까지 안고 있어서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하디아 씨.

이들은 "난민 최초 신청자만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제도로 사실상 취업하기 어렵고, 재신청자는 취업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며 "난민들이 지원단체를 찾아가 분유·쌀을 구걸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7만1천936명이고,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천101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1.5%에 불과하다.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이 일을 하려면 사업주의 법인등록증,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해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민들이 취업허가를 받기 힘들다. 난민 불인정 후 재신청자는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취업허가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난민 재신청자는 '출국유예기간'만 받을 수 있다.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리소 측이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 난민 재신청자는 체류자격이 없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해선 허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편이다.

연대회의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 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예기간 연장만을 기대하며 강제출국을 피해야만 한다"며 "한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는 건 가족의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읽기자료 2>난민 인정률 1.5% 불과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울러 연대회의는 지난 4월 '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을 내린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소 판단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난민신청자 6명(신규 신청 1명·재신청 5명)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미리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난민승인 여부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취업허가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모두 굶으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소 측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신문 / 2021.07.06. / 변선진 기자

Ⅲ. 다른 국가가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

1.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다문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2. 호주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3. 프랑스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위의 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이민자 정책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5.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가 위의 세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 3>캐나다 '취업·이민' 문턱 낮춘다 ...쿼터 확대·요건 완화

유학생 졸업 후 워킹 퍼밋 신청 조건 완화 향후 3년간 이민 쿼터 확대.. 이민 심사 점수 크게 낮아져

'New Pathway' 특별 이민 프로그램 실시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노동력 확보 전략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에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했던 유학생들이 취업 비자(Post Graduation Work Permit)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당분간 간소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PGWP 소지자는 졸업 후 최대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력서(resumé)를 작성하려는 경우 매우 유용하며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로 연결된다. 또한 PGWP를 통해 캐나다 대부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취업 후 고용주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본인에 맞는 직업을 찾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PGWP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민국에서는 Biometric(생체정보를 통한 국경 통과 서류)과 신체검사 결과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신청만 했다면 추후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Biometric Centre와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문을 닫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canadaupdates.com

졸업은 했지만 학교 행정 처리 지연으로 수료증과 성적표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일시적으로 PGWP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수료증과 성적표 없이 PGWP 신청을 해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경력은 추후 EE(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참관 가능한 수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0년 가을과 2021년 봄 학기는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추후 PGWP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했다. 총 이수시간의 50%만 학교에서 직접 수강하여도 허가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읽기자료 3>캐나다 '취업·이민' 문턱 낮춘다 ...쿼터 확대·요건 완화

현재 캐나다 이민국이 PGW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이후에 PGWP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신호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취업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대해 호의적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참고로 기존 PGWP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교육 과정 이수 후 180일 내로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생비자(Study Permit)가 유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방문 비자(Visitor permit)로 연장을 하거나 해외에서 PGWP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캐나다에 있지만 현재 유효한 거주비자가 없다면, 복원(Restoration) 신청과 함께 PGWP를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정규학교를 졸업해야 한다(어학연수는 해당되지 않음). 캐나다의 모든 학교, 모든 프로그램이 PGWP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CIC)에서 공표한 학교의 PGWP P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식 수료증과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 미달, 재적, 퇴학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풀타임(Full-Time) 학생이어야 한다. 중간에 파트타임(part-time)으로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 단, 마지막 학기의 경우에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PGWP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즉, 이전에 PGWP를 허가받은 신청자라면, 다시 다른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여도 PGWP를 발급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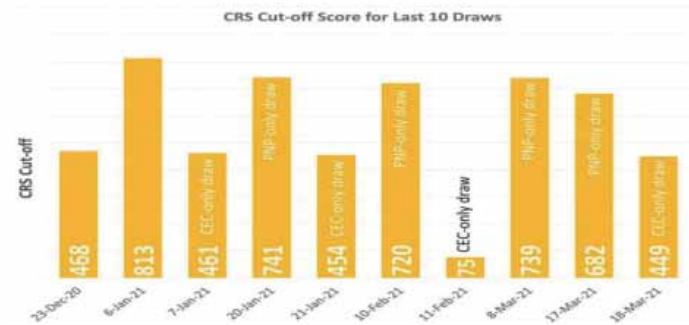
캐나다 이민국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이민을 허가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

새로운 이민 및 난민 데이터(IRCC)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1년 1월에 24,665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였다. 이는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수치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올해 401,000 명의 이민 쿼터를 달성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연초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 3개년 목표 상향조치이다. 2021년 401,000명, 2022년 411,000명, 2023년 421,000명으로 총 1,233,000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읽기자료 3>캐나다 '취업·이민' 문턱 낮춘다 ...쿼터 확대·요건 완화

이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미달된 2020년 이민 목표를 보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이민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Cut-off 최저점으로 초청된 Express Entry 2021년 2월 ©CIC(Immigration and citizenship Canada) NEWS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지난 2월 13일 있었던 Express Entry(EE) 선발 결과였다.

'EE'란 캐나다 내에서 워킹 퍼밋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프로세스의 이민이다. 신청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Express Entry에 본인의 프로필을 등록하면 이 안에서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라고 하는 종합 랭킹 시스템에 의해 새로운 점수가 부여되고, 그 가운데 상위 순위의 지원자를 선발해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대장(Invitation Letter)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CIC 뉴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부 장관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는 2월 13일 Express Entry 점수를 75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합격자를 선발한 뒤 27,332명에게 초대장(Invitation to Apply)을 발부했다. 이는 EE 풀에 등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CEC(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청인들에 해당한다.

합격점 75점은 전무후무한 점수로 '캐나다 이민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번 선발은 이민 카테고리 중 캐나다 경력 이민(CEC)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CEC 지원자들은 최소 경력 1년과 영어점수 'CLB 5점'이라는 조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과감한 조치는 앞으로도 수시로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팬데믹 이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향된 이민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도 이민자 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읽기자료 3>캐나다 '취업·이민' 문턱 낮춘다 ...쿼터 확대·요건 완화

CTV 뉴스에서는 새로운 특별 이민 프로그램 발표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르코 멘디치노(Marco Mendicino) 이민국 장관은 4월 14일 특별 이민(New Pathway)이라는 한시적인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전했다. 오는 5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 가능한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총 90,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 의료(Health Care) 종사자 2만 명, 필수 업종(Essential Occupations) 종사자(점원 및 판매원 포함) 3만 명, 캐나다 대학 졸업자(4만 명) 등의 쿼터별 인원 제한이 있다.

이 New Pathway는 캐나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민을 원하는 경우 거의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며 기존 심사 조건에 비해 파격적이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는 팬더믹이 종식되면 경기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EBS뉴스 / 2021.4.19. /이일신 글로벌리포터

IV.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를까?

(김승섭, 우리 몸이 세계라면/동아시아)

-인종에 따른 유전자 형질 차이

1. 인종에 따른 형질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여 적어 봅시다.
(형질이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성질을 말함.)



2. '유전자에 우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3.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해봅시다.

*관련된 과학적 개념

- 유전자 발현의 원리 (유전자 중심 원리)
- 우성과 열성의 과학적 정의

4. 같은 인종 집단 내에서와 다른 인종 집단 간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내 봅시다.

5. 염기서열의 차이가 인종 간 우성과 열성을 나눌만큼 큰 차이를 보였는가? 이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관련 도서

- ① 우리 몸이 세계라면 (김승섭)
p.154 ~ p.163
: 3. 기록 - 차별이 투영된 몸
- ② Bell Curve: Intelligence and Class Structure in American Life
: 인종과 지능의 관계
- ③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 세 번째 강의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

V. 다른 나라 국가 알아보기

1. 다음 국가 중 한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의 국가를 찾아 봅시다.

미국, 베트남,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브라질, 호주, 태국, 미얀마, 러시아

선정한 국가:

2. 그 나라의 국가의 가사를 옮겨 적고 해석해 봅시다.

원문 가사:

2. 그 나라의 국가의 가사를 옮겨 적고 해석해 봅시다.

해석 내용:

3. 그 나라가 이런 가사의 국가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해 봅시다.
(역사적 사실 및 배경 등)

4. 학급 친구들과 함께 다른 나라 국가를 부르고 연습해봅시다.(발표예정)
-학급별로 한 곡 선정
-학급별 발표, 시상 예정

VI. 우리가 차별을 멈춰야 하는 이유

1. 역사적으로 국가별, 인종간 차별을 멈추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가지 찾아봅시다.

읽기자료 4>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

특히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스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보스니아 내전이나 르완다의 종족분쟁, 킬링필드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전 등 세계 곳곳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됨으로써 홀로코스트 문제가 여전히 국제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20세기 최대의 대학살로 꼽히는 만큼 이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소설·다큐멘터리 등도 많이 등장했다. 대표작으로 200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이나, 아트 슈피겔만의 만화 《쥐》 등이 있으며, 자전적 수기에는 유명한 《안네의 일기》를 비롯,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엘리 위젤의 《밤》 등이 있다. 영화 작품 중에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선들러 리스트》 등이 있으며, 특히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을 다룬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을 유머스럽게 풀어낸 영화로, 칸 영화제 그랑프리 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포함 3개부문에서 수상하였다.

또 홀로코스트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Karl Adolf Eichmann)을 찾기 위해 16년에 걸친 추적 끝에 법정에서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크라임 스토리》를 비롯해 홀로코스트 희생 유대인 휴면계좌 공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행사 등 홀로코스트에 관한 뉴스는 20세기가 지난 시점에도 인종·민족·국가·종교를 초월해 인권 회복 차원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홀로코스트 [Holocaust] (두산백과)

2.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 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국내법정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2.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시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 형사 피의자는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해 간섭받거나 명예와 명성에 대해 비난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사람은 국내에서 이동과 거주에 자유가 있고, 출국하고 귀국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피난처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16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 없이 혼인할 권리를 가지고, 혼인에 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공직을 맡을 권리를 가진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시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모든 사람은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하며, 인권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 27조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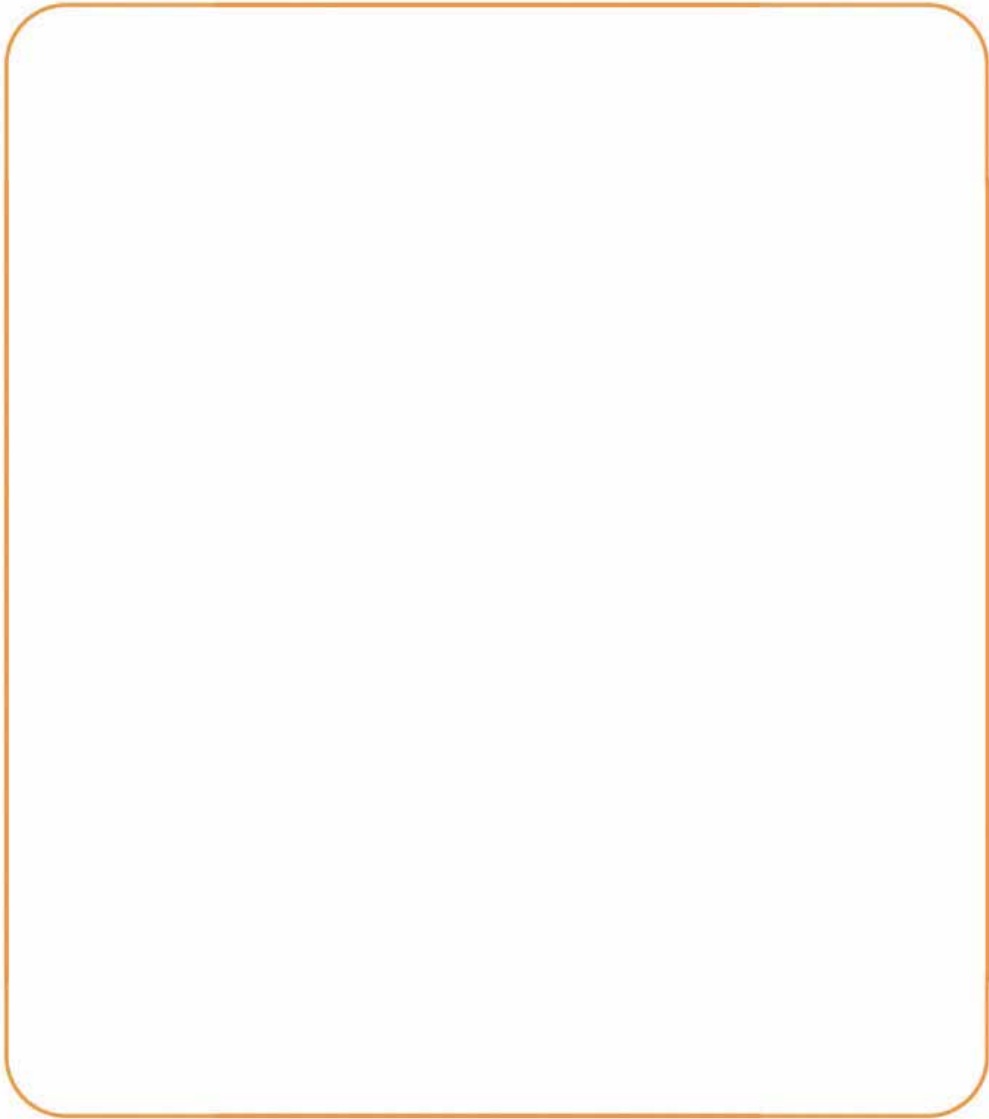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 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세계인권선언을 영어로 번역해 봅시다.

3. 세계인권선언을 영어로 번역해 봅시다.



4. 학급별로 세계인권선언을 이미지로 만들어 봅시다.(1인당 1개 이상)
-반별대회 / 상품있습니다.

VII. 차별을 멈추려는 우리의 자세

1. 차별을 멈추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글을 작성하고, 행동으로 옮길 항목들을 정리해봅시다.

2. 위의 작성한 글과 항목들을 영어로 번역해봅시다.

Ⅶ. 차별을 멈추는 날 - 최종 정리

1. 앞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을 정리해봅시다.
2. 활동을 하며 읽었던 3권의 책의 내용에 대하여 학급별로 독서 퀴즈를 풀어봅시다.
3. 학급별로 연습한 다른 나라 국가를 발표 해봅시다.
4. 학급별로 제작한 세계 인권선언의 이미지를 전시해봅시다.
5. 차별을 멈추기 위한 우리의 구호를 정리하고, 백산고등학교 만의 차별금지 구호를 외쳐봅시다.

♣ 자율교육과정을 통해 느낀점



장려상

문화감수성을 갖춘 세계시민이 될 우리들

☐ △ ◎ 프로젝트

이유정 | 오산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과 연계 [교과명: 국어, 도덕, 사회, 미술]

대상학교급(학년) | 초등학교(6학년)

심사
의견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역과 융합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드게임을 활용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문화 교육에 적합한 책,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영역과 융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뒤 이를 문화 배지의 형태로 수렴하여 문화 이해와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1 프로젝트의 필요성

가. 필요성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 모두가 작은 사회인 교실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받는 경험과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감수성을 갖춘 세계시민이 될 우리들 ☐ △ ◎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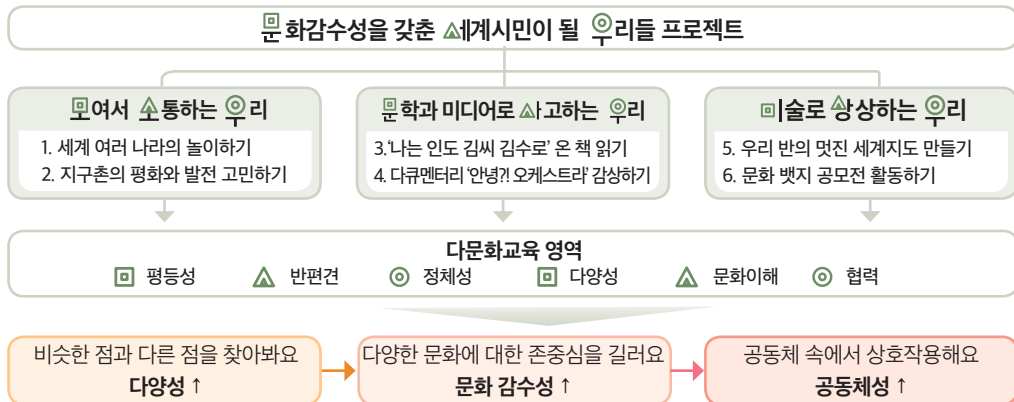
첫째, 다양한 문화에 있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는 **다양성**을 갖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다양성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감수성**을 갖도록 한다.

셋째,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프로젝트 활동을 친구들과 협동하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을 갖도록 한다.

2 프로젝트의 구성

가. 프로젝트의 개요



활동사진



남아공-공 이어받기



미국-볼링



태국-세팍타크로

활동결과	-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직접 해보면 우리나라의 놀이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체험할 수 있었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에 대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소 감	- 런던이 영국인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② 모여서 소통하는 우리 -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생각하기

활동목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다.				
활동개요	관련 교과		단원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다문화 요소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활동단계	교수 학습 활동
마음열기	▶ 통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본다. - DMZ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본다. -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 비교해보고 생각해본다.
실행하기	▶ '꿈꾸는 DMZ' 보드게임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생각한다. -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모형 드론으로 제거한다. - 지뢰가 제거된 땅에 평화의 나무를 심는다.
응용하기	▶ '유라시안 익스프레스' 보드게임으로 지구촌의 발전을 생각한다. - 통일된 한반도에서 철도를 이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동하며 다양한 인물, 문화,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활동사진



통일 교육 보드게임



꿈꾸는 DMZ 보드게임



유라시안 익스프레스 보드게임

활동결과	- 놀이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동을 배워나가며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유럽까지 육지로 이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지리적 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소 감	- 보드게임으로 지뢰를 없애니까 기분이 좋았다. 진짜로 우리나라에 지뢰가 없어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

③ 문학과 미디어로 ▲고하는 우리 -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온 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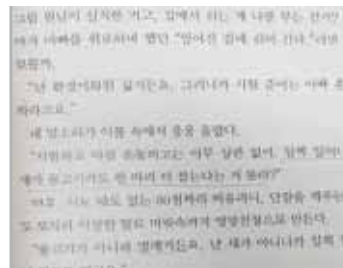
활동목표	문화다양성 동화책을 활용한 1학기 1권 읽기를 통해 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활동개요	관련 교과		단원			
	국어		독서단원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5.속담을 활용해요			
다문화 요소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활동단계	교수 학습 활동
마음열기	▶ 온라인 수업 시간에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책과 학습지를 각 가정 배부한다. - 내용 확인 학습지는 등교 개학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확인한다. ▶ 온라인 수업 시간에 E-학습터를 활용하여 과제를 제시한다. - 책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도록 한다. - '국어 5. 속담을 활용해요' 단원에서 속담을 온라인으로 학습한다. -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책에 나오는 속담 1개와 속담의 뜻을 찾아 댓글로 달도록 한다.
실행하기	▶ 등교 개학 후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동화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골든벨 퀴즈를 실시한다. - 골든벨 퀴즈를 통해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만들어 본다. - 친구들이 낸 문제를 함께 풀어본다.
응용하기	▶ 등교 개학 후 '나는 인도 김씨 김수로' 에 나오는 속담을 함께 확인하고 그 속담들이 쓰이는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 독후 활동으로 주인공인 '김수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을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한다.

활동사진



문화다양성 동화책 배부

전북 E스쿨 과제 제시
- 책 표지 보고 댓글 달기

동화책을 활용한 속담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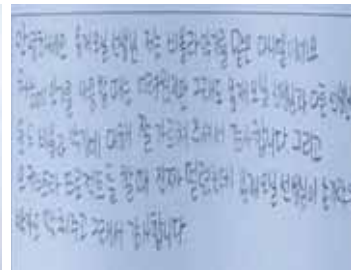
활동결과	- 문화다양성 동화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공감할 수 있었다. -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문화감수성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 감	- 친구들이 수로에게 인도사람 다문화라고 놀려서 수로가 화가 났을 것 같다. - 수로가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슬프고 그랬을 텐데 참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게 멋있었다.

④ 문학과 미디어로 ▲고하는 우리 -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감상하기

활동목표	영화 읽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활동개요	관련 교과		단원			
	국어		8. 작품으로 경험하기			
다문화 요소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활동단계	교수 학습 활동
▶ 마음열기	▶ 영화를 감상하기 전 포스터를 보고 어떤 내용의 영화일 것 같은지 예상해본다.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나 선입견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실행하기	▶ 감상지를 작성하며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를 감상한다.
▶ 응용하기	▶ 영화를 본 후 기억에 남는 장면과 다문화 학생이 누구이며, 왜 기억에 남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영화를 본 후 등장하는 다문화 학생 중 1명이 되어 오케스트라를 가르쳐 주신 용재 오닐 선생님께 편지를 쓰며 공감 능력을 기른다.

활동사진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감상하기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 감상지

‘안녕?!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이 되어 편지 쓰기

활동결과	- 다큐멘터리, 영화 자료를 활용하여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 능력을 향상시켰다. - 영상을 감상한 후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상이 되도록 하였다.
소 감	- ‘안녕?! 오케스트라’에서 처음 악기를 잡아 본 애들이 하는 연주가 시끄러웠는데 마지막에 ‘반짝 반짝 작은 별’을 다 같이 연주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 다니엘이 흑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처음에 놀랐다.

⑤ 미술로 ▲상상하는 우리 - 우리 반의 멋진 세계지도 만들기

활동목표	각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대륙에 속한 나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개요	관련 교과		단원			
	사회		사회-1.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다문화 요소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활동단계	교수 학습 활동
마음열기	▶ 2 3명씩 짝을 지어 6대륙 중 표현하고 싶은 대륙을 선택한다. ▶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륙에 나타낼 정보를 찾는다. - 백지도에 표시할 나라를 협의하여 정한다. - 사회 교과서, 사회과 부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 모형 등을 활용하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실행하기	▶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륙 백지도 모형에 표현한다. - 국기, 대표적인 음식, 건축물, 유명인 등 다양한 정보를 나타낸다. ▶ 각 모듈별로 만든 대륙을 수합한다. - 6대륙을 위치에 맞게 붙여 세계 지도를 완성한다. - 6대륙의 위치를 확인한 후 5대양도 표시한다.
응용하기	▶ 세계 지도에 모듈별로 국기 스티커를 붙인다. - 사회과부도를 활용하여 나라별 국기 모양을 확인한다. - 국기에 담긴 뜻과 의미를 알아본다. - 나라의 위치를 찾아 세계지도 백지도에 국기 스티커를 부착하며 대륙별 국가를 확인한다.

활동사진



세계의 집 모형을 활용해 대륙의 정보 찾기



세계 지도 모으기



완성된 세계 지도

활동결과	- 짝과 협동하여 대륙을 꾸미는 활동을 함께 협의하고 구상해 완성함으로써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켰다.
소 감	- 옛날에 우리가 만든 집 모형이랑 음식 모형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사회과부도에서 쓸만한 정보가 많아서 대륙을 꾸미는 데 도움이되었다. - 학급 게시판에 우리가 합쳐서 만든 세계지도가 있으니깐 멋지다.

⑥ 미술로 상상하는 우리 - 문화 뱃지 공모전 활동하기

활동목표	문화 뱃지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활동개요	관련 교과		단원			
	미술		2. 아름다움의 비밀			
다문화 요소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활동단계	교수 학습 활동
마음열기	▶ 노트북을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찾는다. - ‘다문화 일러스트’, ‘존중 일러스트’, ‘다양성 일러스트’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그림을 검색한다. ▶ 노트북을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문구를 찾는다. - ‘다문화 문구’, ‘세계 문구’, ‘세계 시민 문구’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문구를 검색한다.
실행하기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뱃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편집한다. - 그림 크기, 글씨체, 글씨 크기 등을 편집한다. ▶ 자신이 디자인한 뱃지 그림과 문구를 제출한다. - 제출한 뱃지 디자인을 인쇄하여 투표를 한다. - 투표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을 선정하고 상장을 수여한다.
응용하기	▶ 역할을 나눠 협동하여 문화 뱃지를 제작한다. - 인쇄된 뱃지 디자인 자르기, 뱃지 기계로 뱃지 만들기, 분류하기 등 역할을 나눠 뱃지를 제작한다.

활동사진



문화 뱃지 만들기 공모전



문화 뱃지 만들기 공모전 대상작



문화 뱃지 완성 모습

활동결과	- 뱃지를 여럿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과 집단 정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뱃지를 실생활에 활용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소 감	-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도 구글에서 다양한 그림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되었다. - 내가 만든 뱃지를 동생들을 줬는데 멋지다고 해서 뿌듯했다.

4 프로젝트의 결론

가. 모여서 소통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길렀다.
그리고 협동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나. 문학과 미디어로 사고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동화책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문화 감수성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미술로 상상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지도를 직접 꾸며보며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 배지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교육부,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2019)
- 교육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2019)
- 교육부,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2019)
- 교육부, 초등학교 6학년 미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2019)
- 다문화가정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보고서, 『L.E.D 교육을 통한 함께 빛나는 교실』, 지고은(2019)
- 다문화가정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보고서, 『교실 속 어울림, 다문화 감수성 GRIT 기르기』, 권태우(2018)
- 다문화가정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보고서, 『다꿈 배움을 통해 하나로 성장하는 ONE(元.願.圓) 프로젝트』, 임영미(2017)
- 다문화가정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보고서, 『함께 있어 더욱 아름다운 Rainbow Smile』, 국선아(2016)
- 교육과학사, 다문화교육 용어사전(2018)
- 교육부, 2020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2020)



장려상

상상플러스 - 수업 교류를 통한 상호문화 프로젝트로 상생(相生) 더하기

강수희 | 대전외삼중학교

교육과정 | 교과명 영어

대상학교급(학년) | 중학교(1학년)

심사
의견

상호문화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적용된 상호문화접근법을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고 한-필리핀 간 상호문화 교류와 20차시의 프로젝트 학습을 체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영어수업에서 문화교육에서 벗어나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로 실행방향을 잡았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려는 점과 문화교육 자료를 축적하고 일반화 할 방법을 모색 하려는 점이 돋보인다.

1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러나 저 살아 있는 별들 가운데에도 닫혀있는 창문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빛을 잃어버린 별들, 잠들어버린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해야 한다. 들판에 띄엄띄엄 떨어져 타고 있는 그 불들 중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해야 한다.”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인간의 대지>

본 프로젝트는 외부적으로는 세계화의 흐름, 내부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문화교육의 중요성, 언어와 문화의 긴밀한 관계,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영어 수업이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문화교육에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수업에서 다루는 문화가 교과서의 읽기 지문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시수, 평가 등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교육이 개발적 정보 파악과 같은 지식 전달로 흐르기 쉬웠다. 문화교육의 내용 또한 원어민의 문화, 목표 문화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문화 체험활동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기회나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대상 문화교육자료에 비해 중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제안 역시 부족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호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이 외국어 교육에 적용된 상호문화접근법을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고, 영어 교과와 연계해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해외 수업 교류를 통한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생의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이를 일반화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본 프로젝트 해외수업교류 현황

→ 2016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학생 영어 동아리 활동으로 필리핀 Las Pinas National High School과 수업 교류를 실시하고 있음

기존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교육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 실행 방향
· 진도 · 평가 ·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영어 수업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율 제한적	· 해외수업교류 활동의 한계	·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개발
· 읽기 지문 위주 · 일회성 다문화 행사	· 개인 일상 전달 · 일방적 자문화 소개	· ‘소통, 협력,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 활동 개발
· 원어민의 문화, 목표 문화에 대한 일방적 지식 전달 한계	· 학생의 능동적 참여 수업 개발 필요	· 학생 중심 활동,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 ·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활용 · 학생의 상호문화능력 신장

2 프로젝트의 목적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상호문화교육¹⁾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개설개설 및 학생 모집

교류학교 협력 교사와 협의, 공동 프로젝트 목표 및 추체 선정

상상플러스 - 수업 교류를 통한 상호문화 프로젝트로 상생(相生) 더하기

- ◆ 수업교류 : Las Piñas National High School의 Pen Pal Club 학생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 상호문화 : 객관적 시각으로 자문화를 탐색하고 호기심, 개방성, 열린 태도로 타문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민족 중심주의나 맹목적 이국정서에 빠지지 않고 양 문화를 비교한 후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 ◆ 상 생 : 다문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태도를 함양한다.

목적 1	다양한 영어 시청각·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4 skills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
목적 2	프로젝트 활동이 요구하는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존중)의 과정을 토대로 학생이 다른 언어나 문화를 가진 사람과 소통하며 일정한 관계를 맺는 상호문화능력을 신장시킨다.
목적 3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고 다문화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킨다.
목적 4	필리핀 교류학교와의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문화교육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일반화 할 방법을 모색한다.

3 이론적 배경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활동의 주제 및 내용, 방법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문화능력이란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다. (Byram, 1997)

1) 장한업(2009, 2014)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이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통찰하고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으로 상호문화교육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목 표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 신장
◆ 지식 :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소통에 필요한 서로에 대한 정보	
◆ 태도 : 상호문화적 만남에서 갖추어야 할 호기심, 개방성, 자신의 문화를 타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자세	
◆ 기술 : 타문화를 발견·해석하고 자문화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 문화의 다름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에 대처하는 능력, 의사소통 상황에서 지식, 태도와 기술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내 용	문화, 정체성, 고정관념, 편견, 민족중심주의, 차별 ²⁾
방 법	상호문화적 절차
◆ 자문화 인식 : 자신의 문화, 문화 참조기준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 타문화 발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교사가 소개한 다른 문화를 보고 자신의 느낌과 이유 말하기, 자신의 가설 세우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기	
◆ 양문화 비교: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차이점<유사성)를 비교하기, 자기 문화 인식 효과	
◆ 타문화 관용(수용): 타인의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 단, 인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할 것	

(장한업, 2014)

4 프로젝트 수업 계획

교과와의 연계를 분석하고 필리핀 수업 교류 협력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의 주제 및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최종 선정해 창체 동아리 활동 계획을 완성하였다.

순서 (차시)	관련교과	프로젝트 주제 및 상호문화적 절차	활동 내용	상호문화 능력	상호문화 내용
1 (1~4)	도덕 영어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자문화 인식]	- 사진첩에서 정체성 탐색하기 - 사진을 활용한 자기소개 앨범 만들기	지식 태도	정체성 문화
2 (5~8)	영어	내 이름을 불러줘! [타문화 발견] [자문화 인식]	- 필리핀 친구 이름 찾고 느낌 말하기 - 필리핀의 이름짓기 문화 탐색하기	지식 기술	고정관념 정체성 문화
	사회 영어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	- 우리나라 이름짓기 문화 탐색하기 - 필리핀 이름 짓기 문화와 비교하기 - 나의 이름 소개하기	지식 기술 태도	
3 (9~12)	영어	필리핀의 놀이문화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 주어진 물건의 용도 추측하기 - 필리핀 놀이 소개 포스터 만들기	기술 태도	문화 다양성 정체성
	사회 영어	우리나라 놀이문화 [자문화 인식]	- 우리나라 전통 놀이 소개 영상 만들기	지식	
4 (13~14)	사회 국어 영어	다른 언어, 같은 마음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문화 수용]	- 필리핀 지리적 특성과 언어의 관계 - 필리핀 공용어와 한글의 공통점 찾기 - 타갈로그어로 자기 소개하기	지식 기술 태도	문화 다양성 정체성
5 (15~18)	국어 도덕	다른 이야기, 같은 마음 [자문화 인식]	-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관 탐색하기 - 전래동화 영어로 번역해 책 만들기	지식 태도	정체성 인류보편적 가치
	영어	[양문화 비교]	- 같은 주제의 필리핀 전래동화 읽기	기술	
6 (19~20)	사회 영어	모두 다 꽃이야 [양문화 비교]	- 문화충돌의 원인 파악하기 - 욕입기의 의미 설명하기 -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탐색하기	지식 기술 태도	편견, 차별 갈등, 인권

2) 유럽평의회에서 제작한 'Kit Pedagogique.(2018)에서 제시하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

5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가.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일시	2021.3.12.(금), 3.26.(금)	관련교과	도덕, 영어	차시	1-4
프로젝트 주제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상호문화능력	지식, 태도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역량	상호문화요소	개인 정체성, 집단 정체성, 문화		
학습목표	· 가족 앨범에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찾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앨범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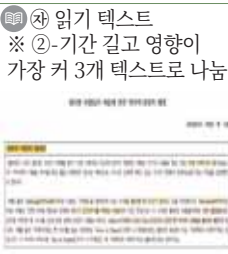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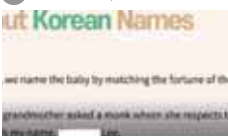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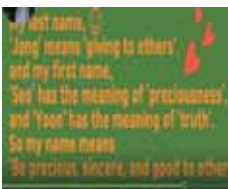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원격수업 1-2 차시	도입 (15') ◆ 동기유발 - 거울 보고 자기 모습 그리기 ◆ 프로젝트 주제 안내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체성 개념 파악 및 확장하기 (65') ◆ [프로젝트 준비] - 정체성의 개념 파악하기 - 정체성의 개념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om3INBWfoxY -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정리하기 -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탐색하기, 답변 공유하기	㉔ 유튜브 영상 학생 활동지 
	지식 기술 [자문화 인식] ◆ [프로젝트 실행 1] - 가족 앨범 탐색하기 - 가족 앨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진 찾아내기, 관련 (개인적·집단적) 정체성 파악하기	㉔ 가족 사진첩, PPT ※ 가족 앨범 준비를 사전 공지하여 탐색 시간을 충분히 확보
 대면 수업 3-4 차시	자기 소개 앨범 만들기 (60') ◆ [프로젝트 실행 2] - 자기소개 앨범 만들기 - 가족 앨범에서 골라낸 사진으로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글 작성하기 ◆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㉕ 크래프트지 또는 ㉖ 패들릿 활용 ※ 활동 결과물은 온라인으로 우선 공유하고 국제우편으로 교류학교에 배송 
	정리 (20') ◆ [프로젝트 마무리] - 갤러리 워크 ◆ 생각 나누기 및 다음 차시 예고	

■ 다음 프로젝트 설정 이유

필리핀 친구들과의 일대일 매칭이 완료되고 자기소개 앨범 만들기가 한창 진행되던 참에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필리핀 친구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이거 영어 맞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다음 프로젝트의 주제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나. 내 이름을 불러줘!

일시	2021.4.2.(금), 4.16.(금)	관련교과	사회, 영어	차시	5-8
프로젝트 주제	내 이름을 불러줘!	상호문화능력	지식, 기술,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고정관념, 정체성, 문화		
학습목표	· 텍스트를 읽고 필리핀 사람들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필리핀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 매칭된 필리핀 친구의 성, 이름, 중간이름, 별명을 말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이름짓기 문화를 탐색하고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㉔) 및 유의점
 대면 수업 5-6 차시	도입 (10')	◆ 생각 열기 - 필리핀 친구의 이름을 보고 느낀 점 공유하기	
	역사와 이름 관계 파악 (40')	◆ [프로젝트 실행 1] - 필리핀 역사와 이름의 관계 - 모둠을 6개로 나누기, 모둠별로 ①-④까지 각각 다른 시대를 설명하는 텍스트 읽고 내용 파악하기 - 필리핀 역사와 이름의 관계 파악해 발표하기 ① 식민지 이전 ③ 미국 식민지 시절 ② 스페인 식민지 시절 ④ 현재	㉔ 읽기 텍스트 ※ ②-기간 길고 영향이 가장 커 3개 텍스트로 나눔 
	지식 태도 [타문화 발견]	◆ 학생 활동 모습 	㉔ <발표내용 정리> 
 대면 수업 7-8 차시	기술 [타문화 수용]	◆ [프로젝트 실행 2] - 내 필리핀 친구 소개하기 - 필리핀 친구의 이름에서 영어식 first name, middle name, family name과 nickname 찾아내기 - 모둠별로 매칭된 필리핀 친구 소개하기	㉔ ㉔(필)이름소개영상 
	이름에 담긴 문화 소개 (60')	◆ [프로젝트 실행 3] - 나의 이름 소개하기 -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 탐색하기 -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 에피소드 소개하기	㉔ ㉔ 활동지, PPT 
	지식 [자문화 인식]	◆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 	◆ 활동 결과물(영상) 
 대면 수업 7-8 차시	[양문화 비교] (20')	◆ [프로젝트 마무리] - 생각 나누기 -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이름 짓기 문화를 살펴본 후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 공유하기	※활동 결과물은 교류 학교와 공유

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놀이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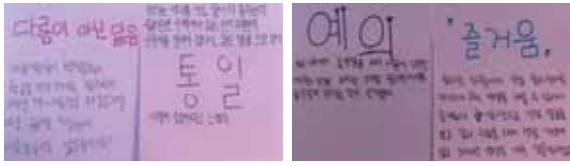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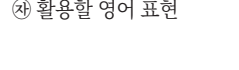
일시	2021.5.14.(금), 5.28.(금)	관련교과	영어, 사회	차시	9-12
프로젝트 주제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놀이문화	상호문화능력	지식, 기술,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상호문화요소	문화의 다양성, 정체성		
학습목표	- 영상을 시청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필리핀의 놀이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 - 우리나라 전통 놀이의 유래 및 규칙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 한국과 필리핀 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말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대면 수업 9-10 차시	도입 (15') ◆ 동기유발 -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도구로 놀이방법 추측하기 ◆ 프로젝트 주제 안내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놀이문화 비교하기	☞ 필리핀 놀이도구 
	필리핀 놀이 소개 포스터 제작 (65') ◆ [프로젝트 실행 1] - 필리핀 놀이 소개 포스터 제작 - 필리핀의 대표적인 놀이문화 소개 영상 시청하기 - 잭스톤, 요요, 상카요, 고무줄 놀이 체험하기 - 필리핀 놀이 중 우리나라 놀이와 유사한 것 찾기 - 규칙, 도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 탐색하기 - 필리핀 놀이 유래 및 규칙 소개 포스터 만들기	☞ (필)놀이소개 영상 
	태도 기술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 학생 활동 모습  	◆ 활동결과물(포스터) 
 대면 수업 11-12 차시	전통놀이 소개 영상 제작 (70') ◆ [프로젝트 실행 2] - 우리 전통 놀이 소개하기 - 모둠별로 필리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 선정하기 - 놀이 규칙 소개 글 작성하기, 영상 제작하기	☞ 윷놀이 세트, 연, 팽이, 제기 ☞ 활동지, 스마트폰 ◆ 활동 결과물(영상) 
	지식 [자문화 인식] ◆ 학생 활동 모습  	◆ 학생 활동 소감 
	정리 (10') ◆ [프로젝트 마무리] - 생각 나누기 - 활동 소감 공유하기	

라. 다른 언어, 같은 마음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일시	2021.06.25.(금)	관련교과	영어, 국어	차시	13-14
프로젝트 주제	다른 언어, 같은 마음	상호문화능력	지식, 기술,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정체성, 문화의 다양성		
학습목표	- 필리핀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리적 특성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 필리핀어와 한국어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다. - 필리핀어로 간단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㉔) 및 유의점
 원격수업 13-14 차시	도입 (15') ◆ 마음 열기 - 필리핀 친구들과 인사 나누기 ◆ 동기유발 ㉔ - 필리핀의 주요 7가지 언어 소개 영상 시청하기 -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㉔ ㉔(필)영어, 7개 주요 언어 소개 영상 
	지리와 언어의 관계 (20') 지식 [타문화 발견] ◆ [개념학습] -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언어 ㉔ - 섬으로 구성된 나라, 언어에 미친 영향 - 필리핀 정부의 따갈로그어 공식어 지정 - 존댓말, 존칭어를 사용하는 따갈로그어	
	한글과 타갈로그어 비교 (15') ◆ [적용학습] - 필리핀어와 한국어 비교	㉔ 활동지, PPT 
	기술 [양문화 비교] ◆ [확장학습] - 타갈로그어로 자기소개 하기 - 모둠별 사회의식 입장, 필리핀 친구들에게 타갈로그어로 자기소개 표현 배우기 - 배운 내용 활용해 자기소개 발표하기	
	[태도 타문화 수용] ◆ [확장학습] - 타갈로그어로 자기소개 하기 - 모둠별 사회의식 입장, 필리핀 친구들에게 타갈로그어로 자기소개 표현 배우기 - 배운 내용 활용해 자기소개 발표하기	
	정리 (10') ◆ 생각 나누기 - 수업 참여 소감 공유하기	㉔ 활용할 영어 표현 

■ Teacher's Comments - 본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등교수업이 전면 중지된 상태인 필리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고안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학생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마. 다른 이야기, 같은 마음

일 시	2021.9.3.(금), 9.10.(금)	관련교과	국어, 영어	차시	15-18
프로젝트 주제	다른 이야기, 같은 마음	상호문화능력	태도, 기술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정체성, 인류 보편적 가치		
학습목표	· 한국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전래동화를 찾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 책을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대면 수업 15-18 차시	도입 (10') ◆ 동기유발 -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3P1CnWl62lk ◆ 프로젝트 주제 안내 -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④ 동영상 
	한국인 가치관 탐색 (15') ◆ [프로젝트 준비] - 한국인의 가치관 탐색하기 -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발표하기 - 한국인이 중요시하는 가치, 한국인의 장점에 대한 조사 결과자료 살펴보기 → 충(忠), 효(孝), 예(禮), 정(精) → 부지런함, 인정, 책임감, 인내심	 ④ PPT, 포스트잇 <출처: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래 동화 찾고 번역 (120') ◆ [프로젝트 실행] - 전래동화 찾고 영어로 번역하기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을 보여주는 전래동화 찾기 - 모듬별 역할 나누기(영어 번역, 삽화 그리기 등) - 최종 결과물 완성하기	④ 예시, 활동지, 채색 도구, 스마트폰
	태도 기술 [자문화 인식] ◆ 소가 된 게으름뱅이 ◆ 효자가 된 불효자 	◆ 학생 활동 결과물 
	정리 (15') ◆ [프로젝트 마무리] - 갤러리 워크	※ 거리두기 유의

■ Teacher's Comments - 필리핀 수업교류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인 전래동화 번역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읽고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아보고 필리핀 전래동화 중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찾아본다. 필리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동화책은 추후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고 다른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류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이다.

바. 모두 다 꽃이야!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일시	2021. 10월 말 예정	관련교과	도덕, 사회	차시	19-20
프로젝트 주제	모두 다 꽃이야!	상호문화능력	지식, 태도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상호문화요소	편견, 차별, 갈등, 인권		
학습목표	· 캔슬 코리아(Cancel Korea) 사건을 살펴보고 욕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탐색한다. · 문화 간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과 태도를 탐색한다. · 인권과 정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계	주요 활동	자료(㉔) 및 유의점
 원격수업 19-20 차시	도입 (15') ◆ 동기유발 - 문화 간 갈등의 예 소개하기 - 필리핀계 미국인 벨라 포치의 욕일기 문신 - 일부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갈등 고조 - 필리핀 트위터 캔슬 코리아(Cancel Korea) 운동	㉔ 사진 
	욕일기의 의미 탐색 (15') 지식 ◆ [개념학습] - 욕일기가 상징하는 것 알아보기 - 일본 군국주의, 전쟁 범죄 - 반성 없는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 한국인에게 욕일기는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반하는 범죄임에도 여전히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㉔ PPT, 활동지, 상상플러스 사전 제작 영상 ※ 필리핀에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사전 조사해 발표하게 한다.
	갈등 원인, 해결 방법 탐색 (15') 태도 ◆ [적용학습] -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탐색하기 Q) 벨라 포치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일부 한국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Q) 벨라 포치와 비슷한 실수를 한 다른 경우? Q) 타문화에 대한 무지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Q)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㉔ PPT, 활동지 ※ 학생 희망에 따라 편지쓰기나 댓글쓰기 중 한 가지 선택
	편지 댓글 작성 (20') 기술 ◆ [확장학습] - 설득, 사과와 위로의 편지쓰기 - 벨라 포치에게 욕일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 쓰기 - 편견과 차별로 인해 상처받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위로의 댓글 쓰기	※ 객관적인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 글을 쓰도록 지도
	정리 (15') ◆ 생각 나누기 -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 서약하기 -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세 가지 고르기 - 세계시민 서약서 작성하고 모두 같이 낭독하기 - [모두 다 꽃이야] 노래 함께 부르기	㉔ PPT, 세계시민 서약서, 노래 동영상

6 결론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꾼. I got you, 칙칙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BTS, <소우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필리핀 수업 교류학교와 공동 상호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결손으로부터 스스로 회복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연 채로, 서로 만나고 있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 잠들지 않고,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상호문화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학년말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에서 들려오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무지와 오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와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자.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서로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 우리 모두의 교육 회복을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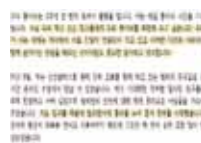
프로젝트 결과 및 향후 계획



▲ 수업 교류 MOA 체결(온라인 서명식)



▲ 학생 활동 소감



▲ 프로젝트 결과물 교환



▲ 대! 모여, 문화의 날 행사 계획(2021.11월 예정)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 장한업(2009):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32, 105-121.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서울 : 교육과학사.
- Byram, M.(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 Multilingual Matters.
- 미리캔버스(템플릿·일러스트), 유튜브, 벨라 포치 인스타그램



장려상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온라인 평가도구 개발

이평수 | 원미유치원

교육과정 | 누리과정 연계 한국어능력

대상학교급(학년) | 유치원

심사
의견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온라인 평가 도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동일한 오프라인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구현한 평가도구로 다문화유아들의 연령 및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점이 좋으나 지필 자료만으로는 평가도구의 신뢰도나 타당성의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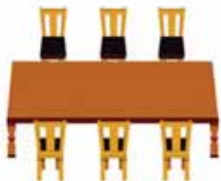
본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온라인 평가도구'는 기존 평가도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동일한 오프라인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구현한 평가도구로서 다문화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성취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비대면으로 한국어능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2 기존 평가도구의 단점

- 기존 평가도구의 경우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용 평가 기록지, 간이문항카드, 전래동화카드, 상황보드, 그림카드, 손가락 가족 인형 등이 필요함
- 평가 진행을 위해서 평가도구 사용방법에 대해서 평가 교사에게 장시간 교육이 필요함
- 평가 완료 후 교사용 평가 기록지를 바탕으로 부모 안내서를 작성해야 함
- 언어별 번역 문서가 필요 할 경우 별도로 부모 안내서를 추가 제작 해야 함
- 반드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직접 대면해서 평가를 진행 해야 함

전래동화 카드(7장)



상황보드		그림카드(4장)
식탁 상황보드	사계절 상황보드	
		
동네 상황보드	유치원 일과 상황보드	손가락 가족 인형(1세트)
		

3 온라인 평가도구의 장점

- 테스트 진행을 위해서 데스크탑/노트북 또는 테블릿 PC 와 필기도구만 준비하면 됨
- 평가 방법이 쉬워서 짧은 안내 교육으로 평가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음
- 평가 완료 후 자동으로 교사용 평가 기록지, 부모 안내서가 자동 생성됨
- 언어별 번역 문서는 자동 생성됨
- 성취도 평가 및 부모 안내서도 자동으로 생성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및 언어 평가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음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함)

4 온라인 평가도구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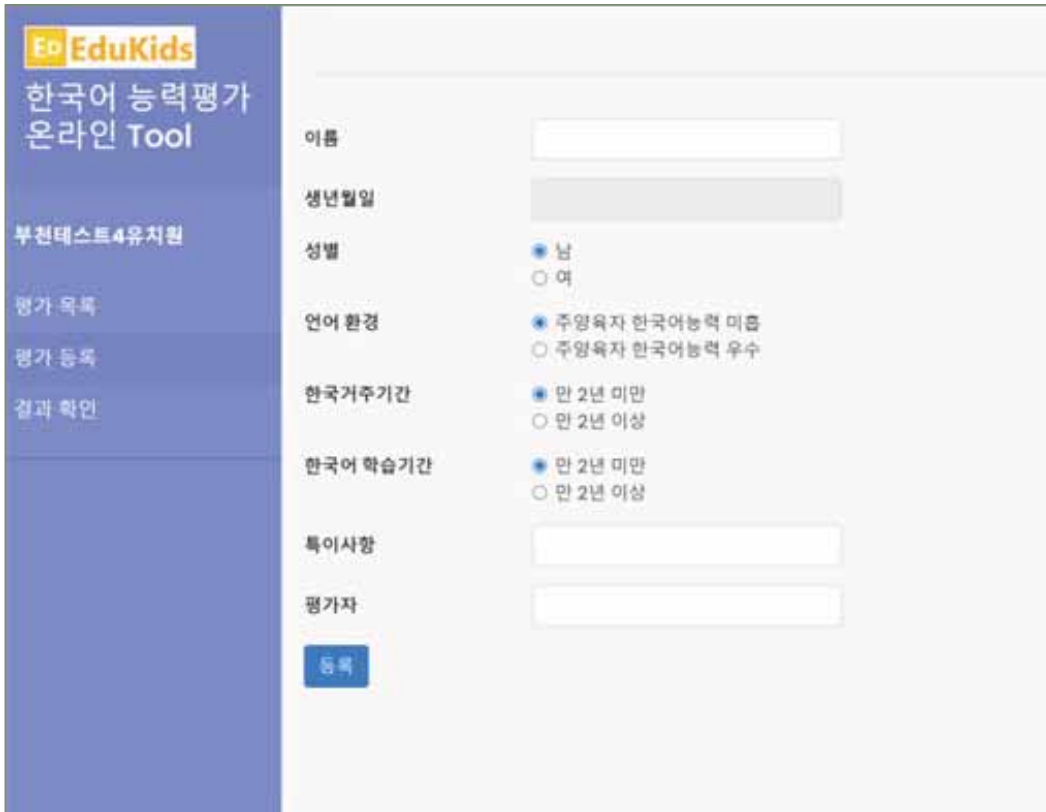


평가 진행 순서

온라인 평가도구는 **평가등록 -> 평가목록 -> 평가진행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 됩니다.

평가등록

평가등록은 아래 화면과 같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언어환경, 한국거주기간, 한국어학습기간, 특이사항, 평가자 순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판정되어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duKids
한국어 능력평가
온라인 Tool

부천테스트4유치원

평가 목록
평가 등록
결과 확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언어 환경 ☒ 주양육자 한국어능력 미흡 ☐ 주양육자 한국어능력 우수

한국거주기간 ☒ 만 2년 미만 ☐ 만 2년 이상

한국어 학습기간 ☒ 만 2년 미만 ☐ 만 2년 이상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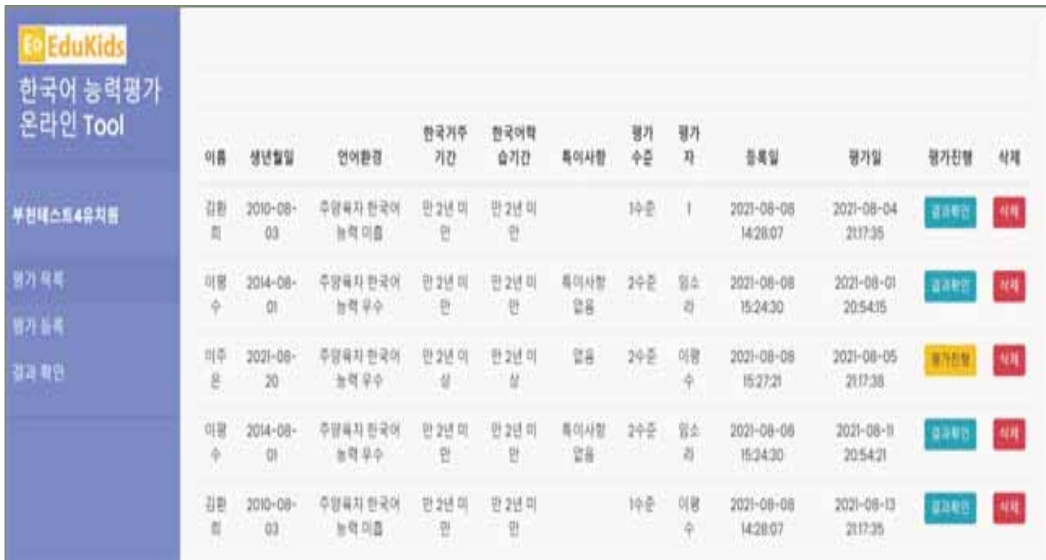
평가자

등록

평가등록화면

평가목록

평가등록 메뉴에서 테스트 하고자 하는 원아를 등록하면 아래 그림처럼 평가 목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목록 화면에서 평가진행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진행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언어환경	한국거주 기간	한국어학 습기간	특이사항	평가 수준	평가 자	등록일	평가일	평가진행	삭제
부천테스트4유치원	김환 희	2010-08-03	주양육자 한국어 능력 미흡	만 2년 미 만	만 2년 미 만		1수준	1	2021-08-08 14:26:07	2021-08-04 21:17:35	결과확인	삭제
평가 목록	이영 수	2014-08-01	주양육자 한국어 능력 우수	만 2년 미 만	만 2년 미 만	특이사항 없음	2수준	임소 라	2021-08-08 15:24:30	2021-08-01 20:54:15	결과확인	삭제
평가 등록	이주 은	2021-08-20	주양육자 한국어 능력 우수	만 2년 미 상	만 2년 미 상	없음	2수준	이영 수	2021-08-08 15:27:21	2021-08-05 21:17:38	평가진행	삭제
결과 확인	이영 수	2014-08-01	주양육자 한국어 능력 우수	만 2년 미 만	만 2년 미 만	특이사항 없음	2수준	임소 라	2021-08-08 15:24:30	2021-08-01 20:54:21	결과확인	삭제
	김환 희	2010-08-03	주양육자 한국어 능력 미흡	만 2년 미 만	만 2년 미 만		1수준	이영 수	2021-08-08 14:26:07	2021-08-04 21:17:35	결과확인	삭제

평가진행

평가진행 화면은 아래와 같이 좌/우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좌측 화면에서 평가 상황 설정, 준비물, 응답시간, 지시문/정답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데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감추기 버튼을 클릭해서 좌측 화면을 감출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 버튼은 단축키가 배정 되어 있어서 해당 키보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항간 이동이 가능 합니다.



결과확인

테스트가 완료되면 아래 결과확인 화면에서 교사용평가기록지와 부모안내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안내서는 언어선택에 따라서 12개국어로 자동 번역되어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평가수준	평가자	등록일	평가일	언어선택	교사용평가기록지	부모안내서
김한희	2010-08-03	1수준	이영수	2021-08-08 14:28:07	2021-08-04 21:17:35	교사용평가기록지	언어선택 •	부모안내서 부모안내서[일회도평가]
이영수	2014-08-01	2수준	임소리	2021-08-08 15:24:30	2021-08-01 20:54:15	교사용평가기록지	언어선택 •	부모안내서 부모안내서[일회도평가]
이영수	2014-08-01	2수준	임소리	2021-08-08 15:24:30	2021-08-11 20:54:21	교사용평가기록지	언어선택 •	부모안내서 부모안내서[일회도평가]
김한희	2010-08-03	1수준	이영수	2021-08-08 14:28:07	2021-08-13 21:17:35	교사용평가기록지	언어선택 •	부모안내서 부모안내서[일회도평가]

교사용평가기록지는 아래와 같이 수정가능한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	B	C	D	E	F
1						
2	<1수준> 종합 평가 결과					
3						
4	영역	구인	구인별 점수 및 수준		영역 총점	영역 수준
5			점수	수준 «상·중·하»		
6	듣기·말하기	의미 이해	7	중	32	상
7		의미 표현	15	상		
8		음운 인식 및 발음	1	하		
9		듣기·말하기 태도	9	상		
10	읽기·쓰기	읽기·쓰기 준비도	7	중	20	상
11		의미 이해	3	상		
12		의미 표현	4	중		
13		읽기·쓰기 태도	6	상		
14						
15	평가 결과 및 특이사항					

부모안내서는 이전 평가기록이 있을 경우 일반 안내서와 성취도평가 두가지 모두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 안내서와 성취도평가 안내서 그림입니다.



5 온라인 평가도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향 설정

- ▶ 다문화유아의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의 영역 및 구인별 점수와 수준을 확인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에서 실시되는 통합 및 개별 언어교육과 한국어학급(유치원)의 입급·복귀를 결정할 때에도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다문화유아의 한국어교육이 지원되도록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 평가 결과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 후, 성취도 평가를 통해 다문화유아의 한국어능력 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평가가 어려울 경우 Zoom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평가도 가능 합니다.

6 평가 예시

아래는 유치원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아래는 원격에서 Zoom을 이용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비대면 평가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4장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1 초·중·고 학생

최우수상 소중한 나의 “M.E.L.O.N.”
서혜정 (성환중학교)

우수상 달라도 좋아, 달라서 좋아!
정지안 (대덕중학교)

우수상 가르침의 자세
권은송 (서일고등학교)

장려상 함께 꿈꾸는 나날
주다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장려상 걱정을 넘어 내 이름처럼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박시민 (산내초등학교)

장려상 아무튼, 한국어 배우기
도지원 (전주금평초등학교)



최우수상

소중한 나의 “M.E.L.O.N.”

서혜정 | 성환중학교



작성자가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작성하여 목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글이었다. 또한 자신과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성찰, 성장하는 과정의 변화가 잘 드러나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더욱 응원한다.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저 스스로를 ‘멜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멜론의 스윗한 것처럼 모두에게 스윗하게 대한다는 점, 멜론에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다양한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저와 멜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를 멜론과 연관 짓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멜론에 숨겨진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 가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없는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의 언어가 공존하여 들리고 외가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저에게 당연한 일이었기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라왔다는 것을, 제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주목하는 그들의 시선은 평범하게 자라고 싶었던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저는 점점 ‘평범하게, 튀지 않게, 남들과 다름없이 사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채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해 성환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된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였습니다. 다문화 학급 선생님께서 제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지만 베트남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베트남어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며 대회에 나가는 것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긴 저는 고민 끝에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베트남어로 된 각각의 글을 암기하여 말해야 했는데,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충남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참가

혼자 좌절하기도 했고, 연습하다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다문화 학급 선생님의 많은 도움과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고, 덕분에 열심히 대회

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후회 없이만 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대회에 열심히 임했고, 두 번의 대회 끝에, 감사하게도 동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의 일상은 그 전과 똑같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다문화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 마스크 줄 만들기, 마스크 기부하기 등의 코로나 시국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유관순 웅변 말하기 대회,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리아타임즈 주관 한국 다문화 청소년상 모범중학생 분야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고향인 베트남에 대해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거나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고 저의 진로도 외국어 분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임즈 주관
다문화 청소년상 수상



다문화동아리 '누리다움'활동



성환 지역사회를 위한
동아리 활동 물품 기부



전교 학생회장 도전

이렇게 저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라는 경험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자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는 학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다문화 학급 콕미진 선생님께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제게 대회에 나가 보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 저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에 가입하여 독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사서 봉사, 운동장 쓰레기 줍기 봉사 등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에 딱 맞는 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영어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동아리 활동

제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멜론(Melon)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멜론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Multicultural background eventually let me overcome negative things.** (다문화 가정이라는 배경이 결국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났지요. 하지만 아직 멜론이 되지 못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다문화 학생들이 '멜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

달라도 좋아, 달라서 좋아!

정지안 | 대덕중학교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기 작성자의 생각과 경험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글이다. 특히 지인, 친구, 학교, 환경, 진로 등 다양한 관계와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의 글로 마무리 한 점이 돋보인다.

나에겐 친척처럼 지내는 중국인 가족이 있고, 초등학교 때 알게 되어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몽골인 친구가 있다. 또 현재 우리 반에는 중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있고 나는 그 친구가 학급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 어려서부터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준 것 같다.

먼저, 중국인인 분옥이모(CHUI PENCHU)가 우리가족과 처음 만난 건 내가 3살 때였다고 한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분옥이모는 우연히 우리 엄마를 만났고, 서툰 한국생활에 엄마의 작은 친절로 시작이 되어 엄마가 아파 병원 수술을 했을 때에도 우리 집에 와서 간호도 해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가 친척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 후 분옥이모는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예쁜 아이도 낳았다. 나는 동생이 생겨서 무척 기뻐다. 내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장난감이나, 동화책 등을 물려주는 것이 즐거웠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나와 취향이 비슷한 몽골인 친구 흘랑이는 한국으로 유학 온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되었는데, 한국어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서로 집에 초대해서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생겼다. 흘랑이 어머니께서 몽골 전통음식을 만들어주셨는데, 처음 먹어보는 특이한 맛이었는데도 무척 맛이 있었다. 흘랑이가 부모님과 몽골어를 사용할 때는 낯설지만 멋있어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우리 가족과 함께 서로 축하하며 즐거운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흘랑이가 몽골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바란다.

지금 나와 같은 학급에는 3월에 중국에서 온 친구가 있다. 부모님도 모두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친구여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한국어학급과 우리 반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는 영어로 주로 학교생활에 대해 알려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국어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 나와 함께 각 과목의 멘토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는 우리나라로 오고, 또 누군가는 다른 나라로 가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어울려 점점 하나의 지구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이제 다문화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범한 나에게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생긴 것처럼 말이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달라도 서로 배려하는 친절함 마음과 행동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만큼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다양하다.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기 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영상교육, 지속가능 발전 실천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녹색 성장 실천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본 ‘데라이 중학교’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우리학교와 데라이 중학교는 벌써 26년 째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할 수가 없어 온라인 교류로 이루어졌다. 나는 발표자로 우리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대해 직접 소개하게 되었다. 방학 동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가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새삼 놀라웠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가 나에게겐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닌, 너무나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본 학생들과 만난 적도 없지만 온라인 교류를 통해 발표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는 지구라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학교의 ‘다행이다’ 프로젝트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행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다문화 공동체’ 프로젝트이다. 다문화 관련 여러 주제와 난민 문제,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한 후 대덕 어울림 워크북에 여러 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년 반 동안 이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더 큰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책과 신문들을 읽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의 꿈은 디즈니와 같은 문화 예술 콘텐츠 기획을 하는 것이다. 요즘은 내가 기획하는 문화 예술 콘텐츠에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한 축으로 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는 일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그리고 장래에 나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고 싶다는 의미 있는 다짐을 해보기도 한다.

문화가 다른 나의 이웃에게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난민 문제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까지..... 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써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가야 할 과제이며, 이제는 지구라는 마을에 사는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을 매일 매일 깨닫고 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함께 노력할 때 어쩌면 지구촌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수상

가르침의 자세

권은송 | 서일고등학교



다문화교육봉사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찰하면서 노력하고 성장한 과정이 잘 드러난 수기로 평가하였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변화해 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작년부터 다문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 조금 망설임은 있었지만, 이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큰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은 기대를 안고 멘토링에 임했다.

어릴 적 살았던 지역에 다문화 가정인 이웃이 무척 많았다. 당시 영어 학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다문화 가족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 덕분인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몇 차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말았다.

한참 학생에게 수학을 설명하는데, 유독 어려워하는 부분에 막혀 같은 내용을 반복 중이었다.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다시 하자, 다행히 잘 이해하고 끝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었는지, 다음 수업에서 똑같은 부분을 복습하다가 또다시 막혀버렸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혹시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이라서 이해가 느린 건가?'라고 생각해버리곤 화들짝 놀랐다. 분명 아무런 편견도, 차별도 없이 대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무의식중에 내국인 가정과 구분하고 있던 것이다. 배우의 속도는 다문화 가정 탓을 하고, 정작 다문화 가정 아이가 수학보다 국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다.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도, 작은 실수에는 편협한 시각의 안경을 쓰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도 나도 모르게 일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반성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 같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평소처럼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 한 문장을 써도 또박또박, 정확한 획순과 받아쓰기를 지켜서 쓰고 한 마디를 내뱉어도 그 속에 은어나 비속어가 섞이진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됐다.

특히, 친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때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 친한 친구이다 보니 일상에서 말하듯 편한 단어가 나갈 뻔 한 것을 겨우 막은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실수의 반복을 통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언어와 맞춤법, 줄임말 등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와 같이 수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가르치는 방법이 충돌하여 두 가지를 모두 학생에게 알려주면 무척 혼란스러워했다. 그렇다고 하나로 통일하자니 선택받지 못한 방법을 위해 준비해간 시간

과 정성이 아까워서 곤란한 상황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타협과 협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나만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 받는 대상이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아서였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친 것은, 초등학교 동생의 수학 숙제였다. 당연히게도 동생은 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내가 조금 더 동생의 눈높이 맞추어 설명하고, 동생이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며 귀 기울여 들었다면 올바르게 수업을 이어나갔을지도 모른다.

배움은, 가르치는 사람의 배려와 가르침 받는 사람의 경청이 맞아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다행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경청의 태도가 충분했고,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이긴 했으나, 나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수업하는 것이 즐거웠다.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는 학생이라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과 학생도 함께 재밌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코로나 19로 인해 화상 수업으로 각자 1시간씩 맡아 수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학생이 좋아하는 것과 연관 지으려고 자연히 노력하게 됐다. 축구를 좋아한다는 말에, 축구공에 있는 다각형을 알아보는 등 최대한 시각적 참여형 수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마침 가르치는 학생과 막내동생의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아서 동생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좋았던 수업이 무엇인지 등 오히려 내가 동생에게 배웠다. 8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라 은연중에 어린애로만 봤었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의 분명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도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학생을 존중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많은 고민을 했다.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수업 내내 최대한 많은 칭찬을 해주었다.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고 혹시나 잘못된 답을 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며 격려했다. 이를 알아내고 멘토링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러한 언어습관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지 않았다. 지난 나의 언어를 돌아보니 타인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날카롭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멘토링을 하는 내내 말 그대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다 보니, 왜 선생님들이 그토록 예쁜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지 알게 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의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첫 만남 때만 해도 질문에도 낯설어하며 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칭찬을 시작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였다. 틀리더라도 계속 참여하려는 모습에 나도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고 실력도 빠르게 발전했다.

칭찬은 받는 사람을 성장시켰지만, 칭찬하는 나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었다. 칭찬을 찾으려다 보니 학생의 좋은 점을 찾기 위해 유심히 지켜보았다. 관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바라는 바도 알게 되었고 그에 맞춰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서로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자신감이 없으면 잘할 것도 못하게 되고 내가 오르기도 남는 위치인데, 시도조차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하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

각했고 이를 학생에게 해주고 싶었다. 다문화 멘토링 활동은 매번 새로운 교훈을 주며 나를 내면적으로 성장시켰다.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가르친다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인 것 같다. 멘토링을 하는 동안 이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교훈 받은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장려상

함께 꿈꾸는 나날

주다현 |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문화교육봉사-멘토링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진솔한 감정을 담아 작성한 수기로, 코로나 시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봉사대상 아동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 2021학년도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문화 가정 교육 봉사 동아리 ‘글로벌 봉사단’부장 주다현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한 분의 지도 교사 선생님, 23명의 멘토와 8명의 중학생 멘티들, 그리고 10명의 초등학생 멘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주 토요일 총 4개의 여학생실에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아리의 가장 큰 특색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전공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국어, 수학, 기타 일반 과목뿐만 아니라 외고인 만큼 8개의 전공어과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학생들이 모여 각국의 언어 수업 또한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각각 계획해 운영합니다.

정상 수업과 특별 수업이 있는데 정상 수업은 멘토와 멘티를 1:1로 지정해 진행하며, 해당 멘토는 매주 바뀌어 모든 아이가 모든 선생님과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중간중간 따분해하지 않도록 어버이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엔 특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버이날엔 부모님들께 편지를 쓰고 카네이션을 색종이로 만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한 달에 한 번씩 체육활동 및 야외활동을 진행하며 실제 학교 교육과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엔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불가하여 줌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만큼 아이들의 집중력과 참여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영어 동화책 구연, 뮤지컬, 온라인 참여 수업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2년간의 동아리 활동 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글로벌 봉사단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물론, 다양한 놀이, 체험활동도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1교시에는 빼빼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멘티 아이들과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필요가 없었다는 듯이 혼자 척척 만드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멘토인 저희가 멘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만든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만드는 것이 아직 미숙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었고, 이 모습을 보고 기존의 제가 너무 이해타산적이진 않았나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점토를 활용해 눈사람 꾸미기 활동을 했습니다. 점토가 너무 딱딱해서 옆에서 도와주니 색깔을 섞어서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끝까지 만들어보겠다는 아이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대망의 선물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는 만큼 부원들이 함께 선물을 고민하고 개인별로 취향에 따른 모두 다른



정상수업-가을 쌤과 희준이의 영어수업



특별수업-아버지날 맞이 카네이션 만들기



온라인수업-다현 쌤과 한나의 영어수업



특별수업-크리스마스 파티

선물을 준비한 만큼 아이들의 반응이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혹여나 좋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원이 산타 분장을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주며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부원 모두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1학기 동안 글로벌 봉사단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다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며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당연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봉사단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 타지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문화적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로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 초등학교 3학년인 혜원이와 같이 한 영어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봉사 첫날에 만났을 때는 혜원씨도 많이 어색해했고, 저 역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많이 막막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수업 한 수업, 천천히 진행하며, 너무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혜원씨가 마음을 여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제는 혜원씨와 수업할 때마다 웃으며 인사하고,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1학기에 처음 수업할 때까지만 해도 혜원씨가 영어 단어나 문장을 마주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줄어들던 것 같았고, 수업 중에도 흥미를 가져주지 않는 난감한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읽기 어려운 문장이 있더라도 일단 읽어보고 스스로 해석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혜원씨와 함께 “2021 Bucket list”, 즉 2021년이 끝나기 전까지 해보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직접 영어로 써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혜원씨에게는 어렵지만, 틀리더라도 처음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스스

로 영어로 작문하여 쓰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작문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글자 수대로 빈칸은 뚫어놓고 한 글자씩 알려주는 게임 방식으로 혜원이가 혼자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혜원은 제가 그날 가져온 책인 Frank Baum의 "The wizard of oz"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놀랐던 점은, 보통 대다수는 긴 영어 문장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두꺼운 책들은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혜원은 혼자서 책을 펼치고 한장 한장 넘겨가며, 자신의 수준에서 아는 영어 단어들을 찾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문장을 해석하기 시작한 점입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혜원이가 초반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제가 진행했던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식이 혜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다시 한번 나의 꿈인 진정한 교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다소 수동적인 방식으로 공부했던 혜원이, 이제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동아리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 그런지 말도 전혀 안 통하고 순조롭게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겁을 먹곤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이들이 수업하기 싫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며 끈질기게 보채기도 하지만, 또한 전날 열심히 수업을 준비한 것에 비해 아이들의 반응이 냉담해 허무하고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밝고 통통 튀는 에너지의, 청주 외고 대표 동아리 '글로벌 봉사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미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저로서 글로벌 봉사단에서의 활동들이 평생 잊지 못할 즐겁고도 귀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면 금방 언어장벽은 무너진 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하루하루,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꿈꾸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글로벌 봉사단, 사랑합니다!



장려상

걱정을 넘어 내 이름처럼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박시민 | 산내초등학교



작성자의 경험이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지는 진솔하고 감동을 주는 글이었다. 적응과 배움의 과정에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동의 입장에서 잘 드러낸 수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에서 온 저는 산내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는 박시민입니다.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바로 저의 새아빠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저의 이름은 '리푸민'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새아빠가 저를 한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박시민'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의 뜻을 잘 몰랐는데 엄마께서 알려주셔서 너무 기뻐고 새아빠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에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내고 있는 저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저는 어느 날부터 엄마가 제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7살 때 한국으로 가셨고 옆에 다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있었지만 가끔 통화만 하는 엄마가 그냥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던 10살 가을에, 엄마께서는 저에게 한국으로 들어와 엄마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보고 싶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른 한국에 가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한국말도 몰랐습니다. 또 베트남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친구들과도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다시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베트남으로 오신 엄마와 새아빠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픈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엄마와 한국 새아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엄마와 아빠, 귀여운 동생 새로운 나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멋진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나는 한국 새아빠의 손을 잡고 차를 타고 산내초등학교에 도착해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산내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고 한국어학급인 온누리반에서도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이야기 할 때는 베트남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엄마 외에 제 말을 알아듣거나 저와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 보니 아직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저에게 한국어를 쉽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온누리반에는 저보다 먼저 베트남에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마운 온누리반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 와서 온누리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도민혁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베트남에서 왔고 제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고 농담도 하고 서로 장난도 가장 많이 치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노래 부르며 춤추기를 좋아하는 몽골에서 온

이루무는 저보다 한 달정도 늦게 온누리반에 들어왔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직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수학은 자신있는데 이루무가 항상 저보다 수학 점수가 높아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수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누리반에서 매주 화요일 방과후에 1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무의 동생인 만도하도 함께 놀 때가 있는데 춤도 잘 추는 동생입니다. 화가 나면 좀 무섭긴 하지만 무척 귀엽습니다. 장난꾸러기이기도 합니다. 5학년 바로 옆 반인 하산은 몽골에서 왔고 온누리반에서 만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매일 학교에 일찍 와서 함께 축구를 할 정도입니다. 처음에 이 친구와는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누리반에서 이 친구들과 오전동안 함께 공부하고 오후에 반으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몸이나 표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표정과 말투를 보면 이해가 갈 때도 있습니다. 민혁이와 저는 베트남어로, 이루무와 하산은 몽골어로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인사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날 때나 헤어질 때는 베트남과 몽골어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4학년 때 친구들도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를 옆에 친구가 설명해주고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천천히 몇 번씩 다시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말도 잘 못해서 화장실이 어딘지 몰랐을 때 친구들이 화장실도 같이 가 주고 선생님께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4학년을 지내면서 한국말도 좀 더 알게 되고 발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두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의 5학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5학년 친구중에는 재미있는 말을 해서 나를 웃게 해주는 친구도 많습니다. 운동을 잘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저보고 “시민아 너 축구 진짜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하고 칭찬해줄 때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키가 큰 제가 우리 교실에 행성 모형을 붙일 때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고맙다고 박수를 쳐 줄 때는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발표하는 친구들의 공부내용도 좀 더 많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온누리반에서 배우는 다문화교육활동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실 수업이 끝나면 매주 월요일에는 온누리반 친구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나 운동을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하는 ‘신나는 놀이체육교실’을 합니다. 온누리반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니까 서로 사이가 더 좋아지고 친해집니다. 가끔 경기하다가 다투기도 하지만 체육활동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5학년 온누리반 친구들 4명이 방과후에 수학공부를 합니다. 온누리반에서는 주로 한국어를 배우지만 온누리반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교과 시간에 배우는 수학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족한 수학공부를 알려주십니다. 저와 이루무는 수학을 좋아해서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산과 도민혁은 수학을 어려워해서 5학년인데 아직 3학년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다문화 방과후활동으로 ‘종합아트’ 미술을 공부하는데 연필꽃이를 만들기도 하고 책과 다른 꾸미기나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고 붙이고 색칠하는 일은 참 즐겁습니다. 이처럼 온누리반에서 다문화 방과후활동에 참여해 내가 잘하는 체육활동과 미술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자심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부를 배우면서 어렵게 느껴지던 공부도 이제는 자신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는 것은 조금 떨립니다. 수업시간에 발표하는게 어렵고 말하기와 읽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읽기는 잘 읽는데 정확하게 읽기 어려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읽기, 말하기, 듣기도 잘하고 큰 소리로 발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베트남어로 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온누리반 선생님이 많이 도와 주십니다. 5학년 교실에서도 저

의 국어와 사회공부를 도와주시는 다사랑 학습보조 이종언어선생님도 계신데, 앞으로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5학년 교실 수업이 어렵지 않고 발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제가 가장 좋아



방과후활동-매주 월요일 신나는 놀이체육



방과후활동-매주 화요일 수학공부



방과후활동-매주 수요일 종합아트



생활 속 한국문화체험-동물원



생활 속 한국문화체험-아쿠아리움



생활 속 한국문화체험-송편 만들기



생활 속 한국문화체험-김장하기



이종언어말하기대회참가-베트남어

하는 수학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 이루무처럼 더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푸는 수학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온누리반에서는 생활 속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동물원, 아쿠아리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작년 추석 명절에는 한복 입기, 윷놀이, 제기차기, 송편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았고 겨울에는 학교에서 김장 만들기를 해서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고기와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대전중앙시장에 가서 한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줄넘기를 사왔습니다.

올해에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 나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말과 베트남어를 말하는 대회인데 선생님이 대회에 참여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준비해 나가보았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동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도 축하해 주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만 할 수 있었던 제가 처음보다는 한국어를 제법 잘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던 저를 도와주신 온누리반 선생님과 친구들, 3학년때부터 지금 5학년 선생님과 저를 칭찬해주고 도와준 친구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저도 나중에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기쁘게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고, 한국의 새아빠와 엄마, 동생의 아들과 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새아빠는 저를 학교에 처음 데려와 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한, 제 이름도 새아빠가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고 세계에서든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한국에 왔기에 처음엔 모든 게 어렵고 낯설었지만 친구들과 매일 축구도 하고 공부할 수 있어 전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걱정을 넘어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우뚝 서도록 지금도 노력하는 저를 나의 고향 베트남에서도 응원하겠지요?

엄마, 아빠 나의 귀여운 동생과 함께 살고 있기에 하늘을 날만큼 행복한 나의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장려상

아무튼, 한국어 배우기

도지원 | 전주금평초등학교

심사
의견

한국에서의 적응과 배움의 과정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잘 작성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다운 당차고 진솔한 면모가 드러나 재미와 감동을 주는 글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6학년 도지원이에요.

저의 아빠는 재중동포이고, 엄마는 중국인이예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다녔어요. 작년에 할머니가 한국에 오셨고,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만나러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 만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홉 달 동안 아무 곳도 못 가고 할머니와 함께 한국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만 봤어요. 너무 심심했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서 한국 학교를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 9월에 현재 다니고 있는 전주금평초등학교에 왔습니다. 한국 학교에 처음 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국말도 잘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지원입니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었어요. 여기 학교 맨 처음 온 날, 한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빠만 쳐다보았어요. 아빠가 중국어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서 쉬는 시간에도 저 혼자만 놀았어요. 다행히 반 친구 중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하는 말을 중국어로 말해주었어요. 공부할 때도 어려운 단어는 그 친구가 알려주었어요. 그 친구는 엄마가 중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학교에는 한국어학급이 있어요. 우리 반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어학급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왔어요. 작년에는 한국어학급에서 자음과 모음부터 배웠어요.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쉬웠는데

나의 한 문장

날짜: 10월 14일 화요일
어제 emart 에 갔어요.
저의 아이디어
어제 emart 에 갔어요.

날짜: 10월 20일 화요일
어제 저녁에 중국공부했어요.
어제 저녁에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2020년 10월에 적은 문장

나의 한 문장

날짜: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오늘은 우리 가족이 중국에서 온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날짜: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오늘은 우리 가족이 중국에서 온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어요.

2021년 8월에 적은 문장

갈수록 글자의 뜻을 외우기가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기뻐요. 글자도 배우고 한국어 말을 배우면서 제 실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작년에 글자를 배우니까 선생님이 ‘어제 뭐 했어요?’라고 물어보셨고, 어제 한 일을 써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엇을 쓸지 몰라서 잘 못 썼어요.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도 쓰니까 한국어 문장 쓰는 것이 괜찮아졌어요. 올해도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진짜 간단하게 썼지만, 올해는 제가 쓰고 싶은 것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어학급에서 어려운 것을 공부해요. 국어, 사회, 과학 시간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을 한국어 선생님 이랑 같이 공부해요. 너무 어렵지만 선생님은 한국 친구들도 어려워하니깐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요. 내년에는 중학교에 가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에 가야하니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한국말을 잘 못 하니까 친구들은 보드게임을 같이 해 줬어요. 그 보드게임은 한국말을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축구도 했어요. 수업이 끝나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학교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친구들이랑 라면을 먹었어요. 제가 한국 음식 중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라면이 되었어요. 학교 앞 카페에 가서는 친구들이랑 아이스티를 마셨어요. 카카오톡 앱을 깔고 반 친구들과 카톡도 했어요. 나는 별로 한국말을 잘 못해서 쓸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단톡방에서 재미있게 대화했어요. 게임이야기,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 BTS 이야기 같은 것을 했어요.

저는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한국말 하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되니까요. 친구들 이랑 선생님들 모두 제가 한국말 잘 못해도, 이상하게 말해도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틀린 것은 다시 알려주었어요. 저는 우리 반에 있을 때는 수업 시작 전이나 쉬는 시간에 담임선생님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생하고 뭐하고 놀았는지,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하는 것도 아닌데 담임선생님은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이제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우리 엄마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살 동생은 유치원 다니면서 저보다도 한국말을 잘하고, 저도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데 우리 엄마가 한국말을 못해요. 제가 학교에서 보는 한국어 책을 다 배우면 선생님이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알려주었어요. 우리 엄마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지금은 많이 잘해요. 제가 중국에서 살 때는 아빠와 중국말로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한국사람 만날 때만 한국어로 이야기했었어요. 이제 아빠랑 저는 한국어로 함께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제가 틀린 한국말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저는 아빠랑 한국말로 말할 수 있게 되어 좋아요.

저는 한국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아요. 중국에서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밤 12시까지 해야 했고,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외워야하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학교의 선생님은 친절하고, 공부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체육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국 학교는 체육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많아서 좋아요.

저는 나중에 커서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요즘 집에서도 재미있는 장난감을 제가 만들기도 해요. 아직도 어려운 공부가 많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4장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2

교원 및 강사

최우수상

실만한 물가_삶이 있는 미술실

신경아 (관산중학교)

우수상

좌충우돌 온라인 개학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원격수업

서현원 (인천한누리학교)

우수상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내게 가르쳐준 것

김상현 (세류초등학교)

우수상

‘너에게 난, 나에게 넌’ - 『시리아 아이들과의 동반 성장 이야기』

정영원 (대야초등학교)

장려상

두더지가 지나가다!

신혜선 (보라초등학교)

장려상

편견을 보듬을 수 있는 작은 용기

이은주 (서울영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려상

오합지졸 밴드부

김효진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장려상

소통하며 닮아가는 우리

하지우 (전의초등학교)

장려상

코로나 19 시대, 전남다문화교육의 중심에서 다문화교육을 외치다!

정은혜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장려상

행복한 한국어학급, 그 안에서 동반성장한 우리

박한아 (하남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최우수상

월만한 물가 - 삶이 있는 미술실

신경아 | 관산중학교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으로 전입해온 교사의 학교적응 사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다문화 학생이 80%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로 발령받은 교사의 두려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미술교과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사례 등이 교육 현장의 다문화 인식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다.

프로로그

“선생님은 왜... 이런 학교에 곳에 오셨어요?”라고 묻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미술실에 놀러 온 뽀빠머리 남자아이가 저도 모르게 내뱉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새카만 눈동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밀려왔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하필 이런 곳에 가야 하지?’라고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교육열로 유명한 학군지의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내가. 추천서와 자소서 더미에서 밤을 지새우며 제자들을 합격으로 이끌던 경력으로, 왜 비 학군지로, 그것도 하필 중학교로 가게 되었는지. 세상이 왜 나를 몰라주는지 서운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첫인사를 갓던 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오셨지요?” 교감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학교예요. 음... 전교생의 87% 정도 되려나?”

“네에...?!!!”

“중국어랑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해요?”

“중국 아이들은 그래도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러시아 아이들이 소통이 잘 안 되긴 하지만... 통역 선생님이 항상 계시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발령받은 학교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과 선부동 뿔골 고려인 마을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100여 개국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국경 없는 마을로 불리는 바로 그곳에, 저는 미술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입학식

중1 담임이 되었습니다. 영문으로 표기된 이름이 가득 차 있는 명렬표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열여섯, 국제결혼 가정이 셋, 귀화 가정이 하나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인인 아이는 스물 세 명 중, 단 세 명뿐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낯선 나라에서 온 아이들의 이름과 학부모님의 이름을 노트북과 핸드폰에 입력하는 것으로 새 학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축하와 동시에 아이들은 작성해야 할 서류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번역기를 돌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지요. 엉뚱한 내용을 적는 아이들이 수도룩해, 저는 손짓과 발짓을 섞어가며 뜻을 이해 시키려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의 말을 하는 아이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자 도우려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시작으로 세 명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며 한국어가 부족한 친구들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능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온종일 바쁘게 통역을 돕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어느 순간 그 모습에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중첩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국어를 몰랐던 어린 시절, 친구들의 도움으로 적응했던 거였구나!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에 기대어 성장했고 이젠 자신이 돕는 입장이 되어 손을 내민 것이었구나...

아이들은 누구도 원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입국하고 아무 준비 없이 학교에 적응해야만 했지요. 그 어리고 어린아이들이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끌어주며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생기부에 써주시나요?' 학군지의 학교에서 도우미를 모집할 때면 늘 들었던 말입니다. 아이들은 얻는 것이 있어야 자신의 시간을 내는 것에 익숙했고 교사들 또한 생기부를 들이대며 아이들을 쉽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새 학교의 입학식 풍경은 제 마음속 단단했던 무언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스물 세 명의 아이들의 입학식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심과 오만함이 무너진 한 사람, 바로 저의 입학식이었습니다.

18년 전, 교사로 살아가고자 했던 첫 마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에서-

아이들의 명렬표를 보고 첫 수업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각자의 고국에서 불리던 님선 이름들.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지만, 정현중 시인의 시처럼 한 명 한 명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문자도로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수업을 구상했어요.

조선 시대 민화의 한 갈래 중 '문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도는 한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옛이야기를 글자 속에 그려 넣어 뜻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그림입니다. 이 문자도의 형식을 빌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에 담긴 삶을 그림으로 풀이한다면,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그림들이 미술실 칠판에 붙기 시작하자 3학년 수업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너 중국인이었어? 충격이네, 전혀 몰랐어!”

“몰랐냐? 근데... 나 중국어 하나도 못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희 엄마도 베트남이었어? 하... 지금 알았네. 우리 학교에 베트남이 또 누가 있지?”

“아, 너희 할머니가 벨기에 사람이었어? 니가 흑인이라 가족들 다 아프리카인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한국인이야 귀화했거든.”

3년이나 같이 지낸 친구들이었는데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칠판에 새 그림이 붙을 때마다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띄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담임을 맡은 여자아이인데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성격마저 수줍어 대화가 쉽지 않은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남자가 구름 위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날개가 달렸고 머리에는 동그란 관을 쓰고 있었어요.

“천사구나!” 저는 아이에게 말을 붙이려고 다가갔습니다.

“음..... 아빠요.”

“와! 아빠가 천사처럼 마음이 고우신가 봐?”

“음... 아빠 죽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저는 애써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엄마요” 그리고 보니 엄마 뒤에는 커다란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름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었습니다.

“You are perfect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완벽하단다...)”



돌아가신 아빠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저는 마스크를 열린 눈 밑으로 끌어당겨 울렸습니다. 수업을 어떻게든 마치고 아이들을 내보낸 뒤 저는 텅 빈 미술실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따뜻하고 슬픈 그림을 통해 저는 아이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쓰여 있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는 아내와 세 아이를 남겨두고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인 어머니는 친정집에 삼 남매를 맡겨놓고 혼자 한국에 들어와 일하며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무슬림 집안에서의 딸의 역할이 지워졌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가사를 도맡으며 오빠와 어린 동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천국에 계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차라리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아이를 위해 저는 공문을 수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문화, 다자녀, 기초생활 수급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특별히 높은 학교여서 외부의 지원도 찾아볼 수 있었고, 학교 안의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개인이 도울 수 없는 부분을 학교가, 지역 사회가, 사회적 기업이 촘촘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아이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연결해주었고, 추천서를 통해 장학금과 노트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며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Добрый вечер 도브리 비에체르! (좋은 저녁입니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유독 많은 학교입니다. 땃골이라 불리는 고려인 마을이 학교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술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고려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색채 감각을 보고 있으면 그저 감탄이 나옵니다. 너무 멋지다! 이 부분의 색채가, 묘사가, 형태가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지만 고려인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뒤쳐져 칭찬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어느 날 수업 중이었어요. 미술실 밖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여자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한 데다 학교에 적응을 못 해 혼자서라도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주 째 무단결석이었는데 오랜만에 학교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학교 안 나와요. 일하러 가요. 미술 좋아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를 또 빠지겠다는 말인가?’ 말도 통하지 않았고 수업 중이니 우선 간단한 인사만 하고 아이를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 저를 꼭 껴안는 거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니 조금 전에 그 아이가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별의 인사를 하려고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국어로 이별의 말을 준비해서 말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아이에게 해주었어야 할 말이 가슴의 응어리가 되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꼭 기억해줘… 네가 어디에 있는 선생님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왜 아이들 말을 배워 볼 생각을 하지 못했나…! 다시 한 번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는 절실한 바람은 강렬한 동기가 되어, 저를 러시아어 수업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안산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일과를 마치고 퇴근 후 zoom에 접속하면 강사 선생님은 ‘Добрый вечер! 좋은 저녁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좋은 저녁에 퇴근의 기쁨을 반납하고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와 같이 잊을 수 없는 제자를 맘속에 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서 온 미술 시간

학교와 아이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미술 수업의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이들의 삶으로부터 수업을 계획하니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림으로 소개하는 여러 나라 |

아이들과 동포 이주 역사 강의를 들었을 때, 동포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과 고려인 아이들은 언어가 다르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로 이어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술에서 ‘먹의 문화’로 정의해보았어요. 먹은 아시아 미술을 하나로 잇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기에 먹물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나라 한 곳을 조사해 그 나라의 동물(영모화), 식물(화훼화), 인물(인물화), 풍경(산수화), 정물(기명절지화)을 연습해보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작품의 틀은 동양의 서화 재료인 족자로 통일했지만, 각양각색의 문화가 개성 있게 담긴 생생하고 재미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 관산 말모이 |

온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다양한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친해지면 서로의 모국어를 궁금해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학교의 언어를 모은 그림카드 디자인 <관산 말모이> 수업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모듬이 협동하는 수업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 안의 50개의 단어를 선정해 3개 국어 이상의 그림카드를 표현하는 내 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똑똑하게 나누었습니다. 밀그림 담당, 채색 담당, 중국어 담당, 러시아어 담당...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사전을 찾고 번역하며 개성이 듬뿍 담긴 우리만의 말모이(사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 다문화 로고 디자인 |

혁신학교 컨퍼런스 데이를 기념하여 다문화 학교의 상징인 로고를 디자인했습니다. '다문화란 OO이다. 왜냐하면, OO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제를 쓰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고를 디자인했지요. 결과물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흔히 보는 다문화 미술 행사의 결과물인 차별, 피부색, 평등 같은 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다문화는 감사와 희망, 조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로고들은 컨퍼런스 데이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큰 화면으로 상영했는데 교사들의 가슴에 묵직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란 '함께'이다.
왜냐하면 여러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여러가지 '조화'이다. 왜냐하면 여러가지를 배워면서 조화를 하나하나씩 지켜 맞추면서 알아가고 배워가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꽃봉오리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감사이다.
왜냐하면 여러나라 친구들과 공부할수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음악이다.
왜냐하면 여러 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란 상이다.
왜냐하면 여러 문화가 어울리면 그 문화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 세계가 모인 우리 동네, 나만 아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

학교 앞에는 다문화 음식 거리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고려인 마을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어요. 아이들과 가까워지자 이 거리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의 단골 가게도 알려주고, 간식을 사러 들르는 마트도 소개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인터넷에도 알려지지 않는 숨은 맛집들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맛집과 메뉴를 하나씩만 소개해주어도 우리 동네 맛지도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디자인하고 입체로 음식 모형을 만드는, <세계가 모인 우리 동네, 나만 아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열고 싶은 바람입니다.



설만한 물가

학교에 발령받은 지 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불이 꺼진 미술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숨어서 무슨 장난을 치려나? 불안한 마음에 따라가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이 꺼진 교실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품을 붙여놓은 칠판 앞에 쏘르르 앉아 그림을 감상하며 자기 나라 말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 광경에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미술실로 작품을 구경하러 왔어요. 저는 미술실에 늘 밝게 불을 켜두었습니다.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창작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이 꼭 웅달샘에 모여드는 새들처럼 사랑스럽고 예뻐어요.

아이들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작품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칠판에 붙여주었어요. 작품 수가 점점 많아지자 전시해줄 공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학교 복도와 게시판을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작품을 사랑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설 주무관님은 흔쾌히 100여 개의 못을 박아주셨지요. 한 학기가 지나자 학교 곳곳에 아이들의 작품 300여 점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실을 활용하기 시작하자, 특별실 리모델링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같았지요! 교장, 교감 선생님은 하고 싶은 공사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모든 결정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된 아트스튜디오를 만들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수업 틈틈이 미술실에 필요한 가구의 형태와 치수를 하나하나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미술실 안과 바깥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네 군데를 만들었어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지라 페인트 브랜드와 색상, 칠판 재질과 프레임 색상, 갤러리 조명과 색온도 등 세부적인 것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보태주셔서 기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제가 꿈꾼 미술실은 아이들에게 설만한 물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의 자녀이든, 좋은 재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언어를 뛰어넘어 맘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곳...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학창 시절의 미술실을 떠올리면 사랑받고 위로받았던 따뜻한 장소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

세상과 동떨어진 오지로 왔다고 생각했던 이곳은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편협하게 살아왔는지 느끼며 매일 매일 낮아집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학교에 곳에 오셨어요?”

아이의 새카만 눈동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우러 왔어. 너희들에게 배우러... 세계의 곳곳에서 별처럼 빛나는 너희들이 이 작은 미술실에 와주어 내 세상을 넓혀주었어. 정말 고마워.”



우수상

좌충우돌 온라인 개학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원격수업

서현원 | 인천한누리학교



본 교육수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 운영내용을 담아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언어적 한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므로 우수상에 선정하였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인 우리

인천한누리학교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이 선포되었던 2020년, 저는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급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사용하는 언어, 문화, 학습 경험 등 많은 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게는 반년에서 짧게는 3~4일 정도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은 이제 겨우 한글을 떼었거나 한글도 전혀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 개학 준비와 고민들

인천한누리학교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 형태를 과제형이 아닌 매일매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앞서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스마트패드나 웹캠을 지원하였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에 필요한 '구글 클래스룸'과 '행아웃 미트'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연습을 도왔습니다. 또한, 학생 보호자의 학교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해 수업 교재, 학습 준비물을 학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필요한 연수도 듣고 물리적 환경을 준비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고민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들인데 원격수업이 가능할까?', '기기를 처음 다뤄보거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언어도, 학습 수준도, 한국어 능력 등 많은 점이 다른 학생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지도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개학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말을 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원격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도와주고 싶는데 저도 컴퓨터나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해요." 와 같은 말에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학부모-교사의 협력으로 가능했던 온라인 개학

2020년 4월 16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새롭고 도전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에 화상 수업에 접속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자녀의 서툰 한국어 수준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걱정되며 수업 내내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수업을 듣는 학부모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주문한 헤드셋이 내일 도착한다며, 헤드셋이 없어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화면만 쳐다보는 아이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는데 화상 수업에서 두 명의 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사전 연습은 문제없었는데 개학 당일 갑자기 접속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학교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11시쯤 학생과 학부모가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개학일이 내일인 우리 학교 정보부장 선생님께서 학생의 스마트 패드를 살펴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제 옆에 앉아 함께 컴퓨터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며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수업에 접속하지 못한 또 다른 학생에게 건 전화에서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중언어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신 날이라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학생은 며칠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으며, 오늘이 개학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보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접속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중언어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로그인하여 온라인 수업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 주거나 화상 전화를 걸어 직접 보여주는 등 학생의 모국어로 하나씩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기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도 이 학생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통화에 참여하여 학생이 수업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수업 내내 함께하는 학부모, 기기 문제로 접속하지 못해 학교에 온 학생과 학부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학생, 헤드셋이 없는 학생…….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중에서도 저를 가장 난감하게 한 것은 제시간에 잘 접속하여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컴퓨터 앞에서 말없이 계속 대기 중인 몇몇 학생들이었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준 학생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모든 학생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신 여러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과의 원격수업이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로운 도전인 원격수업에서도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넓혀준 원격수업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의 손에 종지와 연필을 쥐어주는 마음으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여러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하루에 1~2가지 안내하고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온라인 예절 알아보기, 마이크나 카메라 켜고 끄기, 자기 화면을 공유하며 발표하기, 이미지 검색 · 삽입 · 편집하기, 음성 입력하기, 번역하기, 동영상 촬영하기 등. 한국어를 거의 모를텐데 눈을 반짝이며 무언가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해 나갔습니다.

동물이라는 주제로 여러 한국어 어휘를 익힌 후, 학생들이 스스로 세운 분류 기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넣어 낱말 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문서에서 바로 이미지를 검색하여 삽입할 수 있는 것

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더니 금방 따라 하였습니다. 언어적 수준과 인지적 수준의 큰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극초급의 한국어 학습자인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을 줄여주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기 초반에는 번역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경험이 없거나 한글 영어 중심의 자판으로 글을 입력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음성 입력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어떤 학생은 “우와~!” 하며 감탄했고, 또 어떤 학생은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게는 너무 익숙하고 편했던 것들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 등을 자신감 있게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목표 도달과 오류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번역 오류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의 특성 및 한국 언어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보 검색과 공유 활동도 많아졌습니다. 지구와 달에 대한 과학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쉬는 시간에 자신이 찾은 멋진 동영상 자료를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보여달라고 하자, 이 학생은 자연스럽게 ‘발표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우주 크기 비교’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도 잊을 채 영상에 빠져들었고 영상이 끝났을 때는 모두 박수치며 영상을 찾아 공유한 친구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새롭고 재미있고 자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학급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서로에게 칭찬과 질문의 댓글을 남기는 등 격려하고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도 한 뼘 더 성장한 시간

원격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정리 내용이나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한국어 듣기·말하기를 연습하는 등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학생 대화방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고, 한국어가 서툰 친구를 위해 과제 내용이나 안내 사항을 다시 알려주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를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에서 미디어를 주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격수업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 역시 교사로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직에 첫발을 내딛던 그때처럼 2020년은 낯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미래 사회를 살아가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 앞으로의 다짐과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다시 만난 우리의 소망

2020년 여름 무렵, 우리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등교 수업이 결정되었을 때, 학생들은 등교 날짜와 챙겨갈 준비물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학교에 오는 것을 기대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 역시 많이 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학교 교실에서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해·표현·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 활용되고 학습 주도성과 상호작용이 컸던 원격수업의 장점을 학교 교실에서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 외에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따뜻한 공감 능력 등도 함께 키워야 함을 기억하며 교실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언어, 문화, 경험을 넘어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수상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내게 가르쳐준 것

김상현 | 세류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맨발로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 학생들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브이로그 활동을 시도하는 등 교사로서 도전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므로 우수상에 선정하였다.

그런 게 있어?

초등 교사들에게도 다문화 특별학급은 생소하다.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 학교 이야기를 하면 백이면 백 물어보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에 대해 아는 선생님은 단 한 명뿐이었다. 다문화 특별학급이 있는 안산의 한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선생님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류초등학교에 발령받으면서 다문화 아이들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것을 알았지만 업무를 배정받는 당시 교감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이 직책은 너무 낯설었다. 특별학급이 운영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면 아마도 특수학급인 듯했다. 함께 근무하던 부장님들께 조언을 구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게 있어?”였다. 낯설고 흔치 않은 교실이기도 했다. 마치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교직인생 처음이었다. 내게는 여러 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아이들의 출석부와 교육청,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쥐어져 있었다. 당장의 상황들이 많이 부담스러웠다. 허겁지겁 전임자와 교무부장님께 여러 설명과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만으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그려지지 않았다. 시, 도 장학사님께도 메시지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특별학급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할 영역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두근거림 반, 두려움 반으로 다문화 특별학급 아이들과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난 무엇을 가르쳐야 하지? (.....)아니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등교하는 첫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특별학급의 시간표와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 든 안내장을 준비했다. 이중 언어 강사님께 부탁드려서 영어와 중국어 버전의 안내장도 준비했다. 안내장들을 배부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실에 방문했다. 그 때 나와 마주한 아이는, 아주 당연한 듯이 내게 중국어(!)로 이야기를 건넸다.(여전히 그건 어떤 말인지 모른다.)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라 너무 당황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내

게 말을 건네는 상황에서 순간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안내해줘야 할까? 내가 천천히 설명해줘도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

아이들은 원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특별학급으로 왔다. 자, 처음이다. 깔끔하고 따뜻한 첫 만남을 위해 옷매무새를 바로 잡고 웃음을 준비했다. 2학년, 3~4학년, 6학년 순으로 아이들이 왔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라며 밝게 인사했다. 아이들보다 내 긴장이 더 많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하는 나의 질문이나 안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 때, 외국에서 제대로 말을 못해 킁킁거렸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답답함이란...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에 빠졌다. 아니, 가르칠 순 있을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충격이었다.

“너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 좀 하니?”

한글 읽기 쓰기를 무척 잘하는 6학년 제자에게 물었다.

“전혀요. 1학년 때부터 교실에선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아이는 그 상황이 당연한 듯 대답했다. 그 대답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다. 같은 반인데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그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놀란 사실은 특별학급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무척 잘하는 반면, 막상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도착했을 때 영어를 내 말처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행 초반에는 대화를 한다기보다 영어를 써서 미션을 완수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 환경에서 며칠 지내면 그래서야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항상 영어가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돌아온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았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일 것이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의사 전달과 더불어 감정과 생각을 나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성원들의 친밀감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습득하고 느끼는 부분이다. 아이들이 학급에서 더욱 깊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를 안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내 손에는 한국어 교재와 교과 어휘가 들려 있었다. 당장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걱정을 많이 했던 터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어휘와 어려운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준비했었다. 그 교재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짹짹 채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생각을 조금 바꾸었다. 그리고 경험을 떠올렸다. 외국에 나갔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그렇게 내 경험을 들춰보았을 때, 내가 영어를 쓰기 시작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거나 도와준다는 믿음과 환경, 그리고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환경과 필요성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야 내게 막막하게 다가왔던 다문화 특별학급 예산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목표들을 세워나갔다.

첫 번째 목표. 대화하고 싶은 교실환경을 만들자.

두 번째 목표.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표현하게 하자.

세 번째 목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교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대화하고 싶은 환경은 어떻게 만들까

낯선 사람들과 함께일 때,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 환경이 불편했다는 뜻일 것이다. 최소한 나는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학급에 왔을 때 교실이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다.

마침 교실은 나무재질로 된 마루였다. 처음엔 조금 적응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해서 맨발교실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가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만 배치하였다. 맨바닥은 예상보다 더 포근했다. 교실은 한층 넓어지고 깔끔해졌다.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신발장도 가져다주셨다.(!!!)



교실 뒤 공간

독특하게도 이 교실 뒤편은 암벽등반용 벽으로 되어 있었다. 이곳은 아이들이 활동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곳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공부한 내용을 계속 보면서 수정하기도 하고 털실로 연결하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이 계속 쌓여가면서, 수업시간에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야기할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세류초등학교 V-LOG 유튜브

교육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도와주는 것 아닐까

초등학교 교사 경력에 쌓여가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살아가는 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지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학급에서 제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행복했다.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활동할 때 그때만큼 아이들이 자신에게 솔직한 적이 있을까?

특별학급 아이들은 개성이 다 달랐다.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다.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말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표현일 테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

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V-LOG로 남겨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수줍어하면서도 함께 했던 교육활동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

얼마 전 2학년 학생이 교실에 있는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자기 만에 좋은 소리를 찾아내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동의를 구하고 그 멜로디를 녹화해서 안전로고송 대회에 출품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결과도 좋았고 주변에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주었다. 학생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그 모습에 괜히 뿌듯했다. 현재 다문화 특별학급 아이들은 한글로 동화를 만들고 있다. 부족하지만 한국어로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표현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다.

친구들과 어떻게 나눌까

다문화 특별학급이 정말 특별하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자기 반 친구들과 소통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닐까 했다. 그래서 특별학급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수업내용 중에서 흥미 있는 주제는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기 초에 함께 식물을 기르는 활동, 동화를 소개하고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보는 활동, 재미있었던 보드게임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활동 등이었다.



전교생과 함께 만든 동화 프로젝트

특별학급이라고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 걸까

모든 아이들은 교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가진다. 그 중에서 자존감을 획득하거나 준거집단을 가지거나, 소속감을 가진 아이들은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또 주체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말을 하지만, 시간을 함께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 깊숙이 스며있지 않고 1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문화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다문화 아이들도 그 안에서 자존감을 획득하고 준거집단을 가질 수도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들은 이제 그런 준비들을 어느 정도 마친 사회이지 않을까?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게 우리를 다른 존재라고 선을 긋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아이들과 지내며 활동했던 많은 것들은 사실 내가 일반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화하고, 표현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감정을 나누고, 배려하는 모든 활동들은 특별학급 이전에도 해왔던 활동들 아닌가?

특별학급이라서 특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그 위화감은 어느새 사라졌다. 모두 똑같이 단지 배우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수상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시리아 아이들과의 동반 성장 이야기』

정영원 | 대야초등학교



시리아 배경의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서 헌신하는 교사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문화존중을 바탕으로 이슬람문화권 학생에 대한 지도사례는 기존 사례와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지 않은 길 #도전

2020년 2월의 어느 날, 새로운 학교로의 시작을 알리는 학급 배정과 더불어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던 날이었다. 교사들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한 이 날은 내 교직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았다.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나는 낯설고 낯선 한국어학급을 맡게 되었다. 학교에 발령이 나고 인사를 잠깐 왔을 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한국어학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었고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주어지니 눈앞이 캄캄했다. 대학교에서도, 현장에서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황에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까마득했다. 그 상황에 허우적거릴 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생각났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을 알기에 무엇인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다행히도 우리 학교와 가까운 곳에 한국어학급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곳의 선생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 학교에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로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

#첫 만남 #시리아 #한 가정의 9+1남매 #코로나 #문화충격

아이들을 만나기 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시던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시리아 국적을 가진 아이들로 모두 한 가정이라고 했다. 2020년 그 가정에는 9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학교에는 6명이 다닌다고 했다. (2021년에 동생 1명이 탄생해 10명이 되었다는 사실) 누르, 카디자, 아바스, 핫산, 모하매딕, 자흐라 중 큰 애들 3명은 나이가 다르지만 학령 수준에 따라 같은 학년에 배정이 되어있었다. 이 아이들에 맞추어 학급을 준비하고 있던 중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개학 연기와 함께 온라인 개학으로 학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정확한 상태 및 가정환경 상황도 알 수 없기에 1차 멘봉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했기에 자흐라(큰누나)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해봤다. “여보씨요? 뉘..뉘..알아씨요...” 전하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눌한 한국말은 그래도 나를 안심케 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다행인 것인가! 전화통화로 아이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e학습터를 통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잠깐 만나자고 했다. 몇몇의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왔을 때 아이들을 그제서야 처음 볼 수 있었다.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들은 내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달랐다. 첫인사와 함께 한국말로 천천히 아이들이 e학습터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본 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

국, 가정방문을 하기로 하고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은 고장이었고 다행히 대문이 열려있어 집안으로 들어서자 정리가 되지 않은 각종 쓰레기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일단 내가 온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 아이들을 불렀고 아이들과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온라인 수업에 아이들의 집을 보고 온 후 머릿속에서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문화적인 차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임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추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아이들에게 한국어학급으로 오면 제일 먼저 손 소독을 시키거나 손을 씻고 오도록 지도를 했다.) 가정방문 이후에도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몇 차례 가정방문을 더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등교개학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드디어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등교를 통해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래포형성 #산책 #민원창구 #감정분출

교사와 학생들의 래포형성은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안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핑계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다. '오늘은 언제 일어났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야?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뭐야? 시리아에 대한 기억은 있어?'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통해 궁금한 점들도 물어보고 아이들의 생각들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후에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서라도 계속 산책을 하자고 조르는 일들이 잦아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책을 통해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원격학급에서 아이들을 자신들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에게 다 쏟아내었다. 그것을 쏟아낼 곳이 없었다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에 다행이라고 여겨졌다. 아이들에게도 감정의 분출구가 필요했고 그게 나라에서 감사하기도 했다. 물론, 아이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원격학급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해주었다.



산책 중인 아이들의 밝은 모습

#다꿈반=한국어학급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문화도 배우고

시리아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또한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여 반을 편성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남자아이들은 나와 함께 공부를 하고 여자 아이들은 한국어강사(여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아이들이 교실로 찾아오는 즐거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비석치기도 직접 한글로 꾸며보고, 한글 동화에서 한글도 찾아보고, 동요 속에서 한글 찾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다꿈반에서는 아이들과 문화체험으로 각종 요리체험을 했었다. 과일찰쌀떡, 바람떡, 쿠키, 케이크도 만들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그 집은 파티 날이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아이들은 모두 한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었던가!’ 아차 싶었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가족의 화목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다꿈반 안에서는 계기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계기교육을 같이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물론 원격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예로 환경교육 차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집에서도 서로 경쟁하면서 찾아오고, 학교에서도 돌아다니며 찾아오더니 약속했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동요 속 한글 찾기



한글 비석치기 제작



케이크 만들기



마리모 키우기



과일 찹쌀떡 만들기



호국 보훈의 달



팽이 시험



딱지치기



병뚜껑 모으기



바다숲 만들기



테라리움 꾸미기



세월호 교육

#라마단 #이슬람 #할랄 #문화존중

나는 살아가며 라마단이라는 단어를 내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볼 일은 없었다. 나는 무슬림이 아닐뿐더러 이슬람 문화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라마단을 검색해서 찾아보게 될 줄이야! 작년에는 온라인 개학 기간과 라마단 기간이 겹쳐서 아이들의 출석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마단 기간에 아이들이 등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원격학급 선생님들도 출결 문제와 더불어 많은 걱정을 하셨기에 교감선생님과 상의 후 아이들의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 결석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 라마단 종교의식이라는 가정체험학습으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이 방법은 이슬람 학생들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이 되었으면 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존중했던 부분은 그들의 문화이다. 무슬림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의 식단을 봐서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메뉴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신다. 또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솔직히 아이들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잘 몰랐는데 한국어학급 교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몇 번 보고 속으로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었던 내 모습을 돌아보니 뿌듯했다.

2학기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시리아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과 관련된 라마단 이야기, 그들의 음식문화 할랄'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준비 중이다..

#너를 만나 #마무리 #너희들에게 바라는 점 #꿈

만일 내가 한국어학급을 담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일반학생들과 생활을 이어갔다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본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무난하게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난 나에게는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들이 내 교직생활의 커다란 자양분이 되어 조금 더 성장하는 교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를 통해 아이들은 한국을 만나고, 나는 아이들을 통해 시리아를 만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외교관이다.' 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주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약속해본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천덕꾸러기로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꿈을 꼭 실현하는 자존감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자라나가길 기대해 본다.



장려상

두더지가 지나가다!

신혜선 | 보라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경험이 진실성 있게 잘 표현되었으며 학생들과의 유대관계가 수기에서 잘 표현되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순수성에 대하여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 및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 학교 그늘진 정원에는 보랏빛 맥문동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나는 평소 오묘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내는 보라색을 참 좋아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왠지 우주 갤럭시를 담고 있는 것만 같다. 우리 학교는 ‘큰 그물’이라는 뜻을 가진 옛 지명 ‘보라리’에서 따온 ‘보라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빨강과 파랑이 섞여 균형 잡힌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개성 만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 학급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에 달해, 가끔은 여기가 바로 ‘보라 지구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생김새의 여러 친구들이 함께 놀고 배우며 ‘우리’로서의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랏빛 갤럭시 만 큼이나 짝 아름답기 때문이다.



올해는 1학년 담임인 동시에 마을교육과 다문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학기 초 저학년군의 한글 해득 상태를 진단하는데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5명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의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특히 D는 본교 부임하고 처음 만났던 J의 둘째 동생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중도입국 한 지 3년이 채 안되었다. 3학년이었던 J를 처음 마주했던 그해도, 학기 초 ‘작은 사회’와 같은 우리 반 생태계 평화를 위해 사범대 학생인 남동생을 ‘교육봉사’라는 미명 아래 우리 교실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글보다 말의 이해도가 좋은 J의 교과 공부 적응을 도와주게 한 매우 유별난 교사 누나였다. 또래 친구보다 발달이 성숙한 J에게 풀어 쓰는 말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 용어를 문장으로 써내는 것은 한국어가 발달해온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꾸준한 보충학습의 노력이 필요했다. J 형제의 한국 학교 적응의 최선에서 함께했던 선경험 덕분인지, 삼남 D의 입학 과정 전면에서 2019년보다는 확실히 3년 묵은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묻어났다.

교육청의 배려로 올해도 방과후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의 추가 예산 수혜를 받게 되었다. 코로나 상태 악화로 인해 외부 강사 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내가 담당하여 상반기 한글 미해득 5명의 맞춤형 지도를 하게 되었다. 매일의 교육과정은 2시간으로 이루어졌다. 1차시는 읽고 쓰기 위주의 기초 학습, 2차시는 보드게임이나 그림책 등을 활용한 한글 놀이로 구성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사제 간 친밀도는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커질수록 현실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중국인 친구 Y는 받침이 있는 글자의 발음과 쓰기를 어려워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한국을 한 몸에 품은 H는 소리대로 읽는 것과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한 차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가진 D는 평음, 격음, 경음 소리의 차이를 특히 구별하기 힘들어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 특성이 개별화된 만큼 기개발된 교재를 엄선하여 전체에 적용 학습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를 재구성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기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여덟 살 마음은 참 재미있다. 손으로 만지작거린다는 점은 비슷해 보여도, 연필 잡기는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지만 놀이라면 무한정의 활력과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다. 보드게임, 카드 게임, 블록 만들기, 그림책 찾기 등 놀이 활동에 기반을 둔 2차시 생산 활동 시간에 아이들은 최고의 적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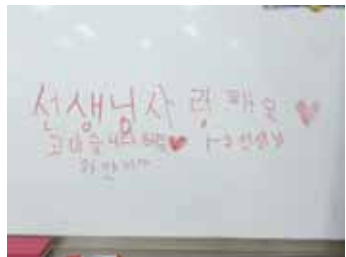
2차시 한글 놀이 활동 모습

방과후 한글 공부 생활의 루틴이 되어갈 때쯤 아이들과의 유대는 사제지간 이상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기초 학습 부진과 부모 소득의 연관성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 최신 연구 결과와 같이, 생활 전선에 편종된 부모의 관심이 아이들의 생활 면면에 아쉬움을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교사인 나 또한 아이들의 사연에 이입하여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다. 굳이 ‘상담’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일상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오늘 하루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무언가 변화를 꾀하지 않아도 마음이 동해서 섰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이 자연스러운 교육의 행위가 얼마나 큰 보람으로 다가올지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교육의 순수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잠시의 한글 지도가, 낯선 과제에서 어느새 익숙한 경험으로 소중하게 기억되었다. 하루는 깨발랄 H가 수업 내내 굳은 얼굴이었다. 무슨 일일까 넋지시 돌려 물어보니,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이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스스로 머리도 묶고 계란 후라이 해서 밥도 챙겨 먹고 가방도 싸서 학교에 왔다고, 그래도 H다운 씩씩함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딸고 감고 돌려 묶어있던 평소의 스타일에 비해 H의 시무룩해진 입꼬리만큼이나 머리카락이 한 갈래로 길게 축 늘어져 있었다. 그래서 힘도 내고 보양도 함께 챙기자고, 여름맛이 이열치열 떡볶이 파티를 하기로 했다. 이슬람 풍습을 따르는 D의 사정을 존중하여, 돼지고기 조미가 아닌 생선과 닭고기 조미의 소스와 재료를 넣어 만들었다. 복날에는 역시 닭고기지, 계란 껍질 까기부터 의욕을 내더니 하하후후 매워도 매워서 더 맛있는 떡볶이와 함께 빨간색 하트표 우정기 깊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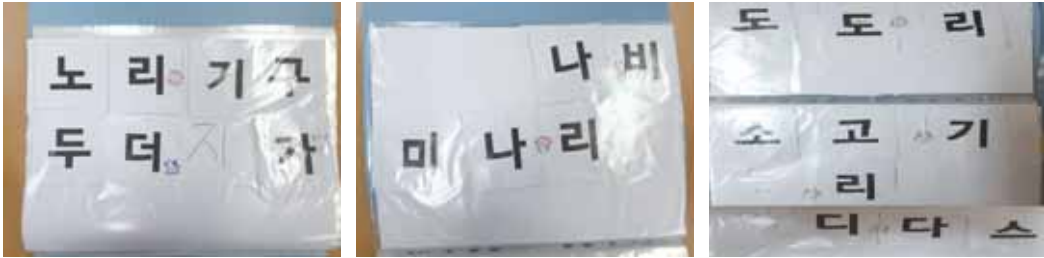
이열치열, 매워도 매워서 더 맛있는 떡볶이

우리말 중에 가족을 일컫는 ‘식구(食口)’라는 말이 있다. 먹으면서 친해진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참말이다. 쌀과 자도 떡볶이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공부 의지를 응원하다 보니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묻어나는 행복과 불행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도입국한 J와 D 삼형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 차별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J의 담임을 하던 당시에도 또래보다 덩치가 큰 J는 분명 ‘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J의 손길이 닿은 다른 친구들은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필자 또한 모스크바와 말레이시아에 파견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어권 학교 문화나 이슬람 가정 문화를 객관화하여 이해하는 일은 지금도 과히 도전적이다. 더군다나 최근 아동학대 키워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D의 행동적 특성과 가정 훈육 방식에 교사로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방과후 D의 담임선생님과 동행하여 D의 엄마가 근무하는 일터를 찾게 되었다. 통화가 어렵고 저녁 시간 가정 방문이 어렵다면 일터의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관심을 갖고 애정을 붙이면 인간사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다. D의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 온 지 3년 차가 되는 올해까지 지역만리의 이 땅에서 2명의 아이를 더 출산한 굳센 엄마였다. 집안일 역할 분담에 유독 엄격한 엄마와 형아들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다고 뚝뚝 쏟아내던 D의 눈물은, 꽃집 문을 나서는 엄마의 환한 웃음 앞에 무색해졌다. 저녁 7시 퇴근해 방 두 칸짜리 집으로 돌아와 남자아이 네 명과 갓난쟁이 딸을 보살피는 일이란 생각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라고 했다. D는 내가 판단한 것과 동일하게 다섯 중에서 가장 영특한 아이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와 따로 러시아어 공부 시간을 가진다고도 했다. 아이 네 명이 엉겨 붙어서 네가 해라, 싫다 형아 네가 해라, 몸싸움하는 것을 떼어 놓다보면 엄마의 마음도 어디론가 떼어진다고 했다. 우리네 인생이 테이프 커터기처럼, 포스트잇처럼 깔끔하게 떼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다. 그래도 아이의 생활에서 어떤 연유에서든 “때린다”는 행동을 당하게 된 정황이 발견되는 동시에, 상시 긴급 신고의무자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은 “야 썰레폰 폴리짜”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똑단발의 엄마 얼굴에서 젖 향기가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J부터 D까지 3년을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서 함께한 의리로라도 이번엔 단단히 알아주길 바란다고 간절한 눈빛을 전했다.



상반기 한국어 교실 수료식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7월 24일 상반기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한 학기 교육과정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가나다라마바사 안에서 형아 옷에 쓰여 있던 ‘아디다스’가 보이고, 간밤에 엄마아빠 둘이서 우리 몰래 보고 왔다는 ‘미나리’가 보이고, 그런데 이게 뭐람? “두더지가 지나가다”? ‘두더지’, ‘가지’, ‘나가다’를 맞춰 본건가 했더니, “두더지가 지나가다.” 문장을 완성한 것이었다!



2021 상반기 중도입국 한국어교실 포트폴리오 학습 내용

단어와 단어가 만나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붙듯이, 한국어 한 자 한자로 쌓아간 아이들과의 보랏빛 유대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질문을 놓고 답을 찾아가고 느낌표로 감동하길 희망해 본다.



장려상

편견을 보듬을 수 있는 작은 용기

이은주 | 서울영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격수업 대비를 위하여 유아놀이배움지원안과 놀이꾸러미를 사전에 미리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유아들의 학습 결손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

커다란 꿈의 동네, 대림동에서의 만남

「큰 숲」나는 한국과 중국이 공존하고 있는 대림동에서 근무한다. 출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간판이 대림동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듯하다. 빨간 간판의 양꼬치 가게, 머릿속 한자 실력을 총동원해서 겨우 읽은 ‘육자미식상’이라는 음식점, 간판 귀퉁이에 한글로 작게 북경요리 전문점이라고 쓰여진 가게, 국제 환전소, 출입국서류대행 중국 여행사를 지나 유치원에 도착한다. 학창 시절 대림동 인근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대림동에 사는 친구 집에도 놀러 가고 이 주변 가게에서 친구와 떡볶이도 먹으며 대림동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란 셈이다. 대림동은 이제 작은 중국을 닮았지만 이름처럼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커다란 꿈의 동네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동네의 낯선 변화 과정이 두려운 감정으로 비춰 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지내고 보니 사람 사는 거 매 한 가지였다.

대림동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5년, 이제 정기전보를 앞둔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 우리 유치원은 다문화 정책 학교(유치원) 5년차이다. 올해 우리 반은 만 4세 16명으로 12명이 중국인이며 나머지 4명이 한국인이다. 한국인 4명 중에 2명은 부모님이 한국으로 귀화를 한 가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류상의 구분일 뿐, 교실에 들어가면 모두 동양인의 얼굴을 한 너도 나도 그냥 비슷한 그 또래의 모습이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온다. “선생님! ○○이가 자기 중국 사람이라요!” 아주 놀란 목소리였다. 우리는 교실에서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행사 시작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는 모두 다 한국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가 중국인인 걸 알고 놀랐던 그 아이도 사실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인 어린 자녀에게 나타나는 이 정체성의 혼란에 대하여 교사로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방학 때면 한 달 정도 중국에 다녀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개학 후 아이들이 중국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고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녀와서 조잘조잘 이야기해주는 걸 듣는 것이 여간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중국 방문 중에 친지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배운 중국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이열썬썬 말하며 중국 숫자를 안다고 한 명이 목소리 높여 뽐내는 순간 우리 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열썬썬워워치파하며 단체 중국어 숫자 공부 시간이 되어버린다. 이때 아이들의 표정에는 꽤나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이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어린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이다. 교사는 이 순간을 놓치면 안된다. “어머나 ○○이가 숫자를 중국어로도 말할 수 있구나! 선생님도 ○○이에게 중국어를 배워봐야 겠는걸” 이 어린이가 훗날 한국 사회에서 자칫 중국인임을 숨기는 어린이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본인이 중국인임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초등

선생님과 대화에서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다. 내 아이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어른들의 지나가는 무심한 대화에서 중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내뿜어진 상처를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유아기부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길러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유아교육을 해야겠다는 진한 사명감이 불타오른다.

편견에 대처하는 나와 너의 자세

“입학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거기...” 말을 쉽게 이어가지 못하는 한 학부모의 전화다. 이곳에 5년째 근무하면서 이쯤 되면 어떤 것이 궁금해서 머뭇거리는지 느낌이 온다. 나는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어본다. “어머님,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라고 어렵게 입을 열어 “거기 중국 애들 몇 명이에요? 중국 애들 많아요?” 역시나 내가 생각한 그 질문이었다. 이곳에 근무하면서 입학시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 이제는 그게 왜 궁금한지 되묻고 싶어진다. 한 번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다 와서 다문화 교육에는 마음이 열려있는 편이지만 우리 유치원에 입학하기는 왠지 주저하게 된다면서 중국 애들 몇 명인지 물어오는 이중성을 가진 한 학부모에게 매우 화가 났다. 다시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내가 가르치는 소중하고 순수한 우리 반 아이들 얼굴이 하나 둘 씩 떠올라 그 아이들을 싸잡아 낙인을 찍어대려는 느낌을 받은 듯 순간 나도 욱하고 말았다. 국적만 다를 뿐 다 같은 유치원생이고, 오히려 더 순수하고 바른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나 또한 격양된 목소리로 어필하기 시작했다. 우리 유치원은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으로 재원생 학부모와 인근 주민에게 아주 인기 있는 유치원이다. 그만큼 학부모와 소통을 잘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교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으로 민주적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에 유치원에 대한 나의 자부심은 대단했던 것 같다. 이내 그 입학 문의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편견을 가진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넓은 아량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보는 등 나에게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기술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누리과정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놀이 경험

우리 반 교실을 살펴보면 다 한국어로 소통한다. 그러나 더 자세히 유아들의 놀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해당 놀이 상황에 맞지 않는 미숙한 표현으로 대화가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듯 다문화정책학교(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언어지원과 정서지원이 1순위라고 생각한다. 언어와 정서를 동시에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메모하며 대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모여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대집단활동에서 소소한 이야기부터 아이와 교사의 일대일 이야기까지 그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듣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유아들이 한 말을 교사가 수첩에 적기 시작하니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적은 거예요?” 하며 말이 글로 바뀌는 과정을 눈여겨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교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 생각이나 경험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에 더 재미를 느껴 “선생님아랑 또 이야기할래요.” 하고 다가오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마주 이야기를 하여 아이들의 언어 표현을 동시에 탄생시켰다. 자신의 동시를 서로 듣고 들려주며 동시 전시회도 열고, 동시집을 만들어 가정과 연계하는 언어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유아들이 지은 동시를 가정에서도 읽어보며 학부모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감과 유아언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고, 유아들은 눈에 띄게 어휘력이 발달하였으며 자신의 동시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다. 더욱이 교사와 유아와의 레포는 아주 친밀하게 형성되었으며, 어느

덧 우리 반 아이들은 친구와 교사 앞에서 조잘조잘 말 많은 수다쟁이가 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부터 원격 수업과 등원 수업이 병행되다가 올해 유치원은 전면 등원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가를 원격수업 대비를 위하여 유아놀이배움지원안과 놀이꾸러미를 사전에 미리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유아들의 학습 결손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영림 집콕놀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놀잇감과 놀이 방법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등원 수업과 연계하였다. 어느 날 우리 반 한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형이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2주간 등원 중지 대상자가 되었다. 유치원은 등원 수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의 학습 결손을 막고자 그 주간의 누리과정 관련 교재교구와 미술 놀잇감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할머니 편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미술 놀이를 특히 좋아하는 ○○이가 너무 좋아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니 앞으로도 개별 유아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였다.

요즘은 대외체험활동이 어려워 아이들이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비대면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수업에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공연을 비대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서도 학급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험활동을 전면 취소하기보다는 같은 주제의 활동을 공동체험에서 개인별 체험활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샌드아트체험 계획은 1인용 모래체험놀이를 구입하여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김장체험은 원내 이론 수업과 활동 방법 등을 시범수업으로 알아보고 김장용 재료를 가정으로 제공하여 가정과 연계한 김장체험으로 유아들의 체험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였다.

문학작품을 통한 언어교육을 위하여 교실에서는 질 높은 그림책을 틈틈이 읽어주고 제공해주었다. 가급적 세계 수상작이나 다문화 반편견 적용 그림책, 세이펜과 연동하여 유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림책을 읽고 접할 수 있도록 교실에 마련해 두었다. 다문화 유아의 초기 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어놀이 강사를 채용하여 일주일에 2~3회 정도 자유놀이 시간에 다양한 언어자극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언어놀이 강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강사를 선정하여 유아 대상으로 학기 초에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유아 한국어능력 평가 기록을 실시하고 담임교사와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우리 반 유아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한국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 삼아 일과 중 개별유아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소통,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합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 학부모가 함께 모여 그들의 자아 존중감 회복을 통한 부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심리 원예 활동 동아리를 운영하였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그 모임을 '플라워데이'라고 이름 지었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심리원예치료사와 함께 원예 치료를 하며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와 한국 가정의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보이지 않은 거리감 따윈 내려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으며, 유치원은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은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공동체의 장이 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학부모 연수로 ZOOM을 활용한 쌍방향 연수로 모색해 보았다. 심리독서치유사와 함께 「관점의 차이-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통 방법을 찾아보는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추진하였다. '천만의 말씀', '핑!'이 두 권의 그림책을 함께 읽고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리와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이 연수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걸음씩 다가갔으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연수 후기를 남겨주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때로는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아이가 커갈수록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은밀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 반 사례를 보면 어머니보다 아버지나 할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에 비해 교사가 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유아 발달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유아교육에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거나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다양성이 재미있어지는 소소한 경험

유치원 식수대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사용 중지되어 유아들은 집에서 개인 물병을 챙겨 등원하고 있다. 보온병을 들고 와서는 “물 마시고 싶는데 물을 못 마시겠어요.” 하며 다가온 ○○이가 생각한다. 보온병 뚜껑이 잘 안 열리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엄마가 싸주신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고 한다. 유치원에 있는 여분의 차가운 생수를 넣어 섞어 준다고 하니 엄마가 찬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괜찮아! 섞으면 미지근해진단다.” 하며 아이를 달래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얼마 뒤 중국에서 짜장면을 팔아보기로 한 TV에는 프로그램에서 중국 사람들은 찬물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고 안내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유아들이 집에서 챙겨 온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교사가 냉장고에 준비해 둔 생수를 줄 때 “엄마가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랬어요.”라고 걱정 어린 말로 외치던 몇몇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여름이면 차가운 얼음물을 먼저 찾는 나의 모습과는 또 다른 소소한 문화의 차이가 흥미로운 문화의 다양성으로 마음속에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작은 변화를 그리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건 틀린 거지’ 다문화정책학교 5년차에 접어들면서 나의 생각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에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다르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지’ 생활 속 다양한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가정통신문을 e알리미로 발송하면 이내 교무실에 전화가 울린다. “이게 뭐예요?” 방금 받은 알리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학부모의 전화이다. 발령 초기에는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 묻는 질문에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준비가 되어있다. “네~ 아버지님, 방금 발송한 가정통신문 내용은요”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준비가 되어있다. 내가 만약 당장 중국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중국어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어로 쓰인 안내문을 얼마만큼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주저 없이 전화를 걸어 바로 물어봐주시고 유아교육에 관심을 보여주는 학부모님이 더없이 감사한 순간이다.

사랑에 빠진 개구리, 그리고 꼬마 돼지에게

초록 개구리는 심장이 쿵쿵 뛰고 몸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한다. 어딘가 아픈 것 같아 동물 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그건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분 좋은 초록 개구리는 꼬마 돼지에게 사랑을 한다. “나는 예쁘고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하양 오리를 사랑해” 하지만 꼬마 돼지는 “너는 초록이고 오리는 하양이잖아!” 하지만 개구리에게 색이 다르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2004년 안데르센상 수상작가 맥스 벨트하우스의 대표작 <사랑에 빠진 개구리> 동화 내용 중 일부분이다. 우리 반 아이들과 지내면서 때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웃음이 절로 나오다가도 어쩔 땐 한숨 한 번 크게 내쉬기도 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꼭 하양 오리를 사랑하는 초록 개구리가 된 것 같다. 어쩌면 한 때 나도 꼬마 돼지였는지도 모른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꼬마 돼지들에게 한 번쯤 권해주고 싶은 동화이다.



<마주 이야기로 유아들이 지은 동시>



장려상

오합지졸 밴드부

김효진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다문화학생 동아리 운영 수기를 통해 기존 사례와 차별성 있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학생들과 교사의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우리 학교는 2012년에 개교하여 올해 10년이 된 충북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이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모두가 다문화 청소년인 조금 특별한 학교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보통교과뿐만 아니라 수준별 한국어교육, 기계, 설비, 전기와 같은 기술교육을 실시해 한국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다. 우리 학생들은 전국에서 모였으며 그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도 있고, 타국에서 출생하고 자라다가 사정에 의해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은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는 우리 학교에서 9년 차 음악교사이다.

오합지졸 밴드부. 내가 지난 6년간 이어 온 우리 학교 락 밴드동아리 이름이다. 오합지졸 밴드부는 이전에 학교 내 매점으로 운영되었던 작은 건물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였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학생들과 참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애뜻한 기억이 남아있다.

처음 밴드부가 생기면서 새로 산 악기들도 있었지만 일부 악기들은 다른 학교에서 쓰지 않는 악기들을 받아온 것이었다. 내가 처음 밴드부를 시작할 당시에는 밴드실 안에 냉난방기도 없었기에 여름철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겨울철에는 석유난로 하나에 웅기증기 모여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연습했었다. 그만큼 밴드부에 주어진 예산은 많지 않았다. 방음벽 설치가 되지 않아 이리저리 튀는 소리를 바로 잡으려고 튜브가 나면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식당에 가서 계란판을 얻어 모아 우리 키보드도 훨씬 큰 계란판 탑을 서너 채 쌓기도 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교내외 크고 작은 공연과 대회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솜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의의와 동기를 두고 연습하였다.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의 열정은 그 무엇보다도 큰 울림을 만들어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작년 우리 밴드부는 세 명의 지도교사가 함께했는데, 우선 나는 클래식 피아노와 국악 작곡을 전공하였다. 모두 락 밴드와는 거리가 먼 음악들을 해 온 셈이다. 미술선생님은 대학시절 아마추어 드러머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나의 부탁으로 우리 밴드부에 합류해 주셨다. 전문상담 선생님은 우리 밴드부에 교외행사가 있을 때마다 운전과 촬영을 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내가 만난 우리 학교 다문화 학생들 대부분은 음악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없고, 악보를 보거나 음악에 대한 지식도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우리들이었지만 함께 음악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보다 뜨거웠기에 우리는 '오합지졸'이라는 이름을 달고 밴드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는 지금 나의 6년간의 밴드부 발자취 중 작년 밴드부 아이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우리 밴드부에는 신입단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1기부터 전해오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현 밴드부 멤버와 교

사가 함께 심사위원이 되어 작은 오디션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제작년 2월 기존 밴드부원 네 명이 졸업을 하고, 한국어 방과후수업과 밴드부 활동 시간이 겹쳐 활동을 못하게 된 두 명을 제외하니 남은 밴드부 멤버는 고3인 성희(필리핀-한국)와 새양이(중국 중도입국) 둘뿐이었다. 성희는 맑고 깨끗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청량한 보컬이다. 새양이 또한 질고 애절한 발라드 감성의 보컬이다. 우리는 악기를 맡아 줄 단원이 필요했다.



처음 매점이었던 공간에서 시작하여 점점 진화하는 밴드부실 내부

성희와 새양이는 나를 비롯한 선생님들과 함께 신입단원 오디션 심사위원을 맡았다. 오디션을 개최하기 전 오디션 개최 공고문을 교내 곳곳에 붙이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참가 신청을 받았다. 오디션 당일 신청한 학생 중 몇몇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맞춰 준비한 후 오디션을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 그냥 교내 밴드동아리 신입단원을 선발하는 작은 오디션이었지만, 오디션에 참가한 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엿보였다. 그 중에는 제작년에 밴드부에 지원했다가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경우(중국-한국)도 있었다.

3학년 경우는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트로트 마니아였고, 제작년 오디션에서 <부산갈매기>를 불렀었다. 그리고 락 음악을 지향하는 우리 오합지졸 밴드부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타깝게 오디션에서 탈락했었다. 작년 역시 오디션에서 <영일만 친구>를 불렀다. 멤버들과 나는 경우를 두 번 떨어뜨리기 참으로 미안했다. 그렇게 우리 락 밴드에 트로트 새싹이 보컬로 합류하게 되었다. 1학년 라빈이(중국-한국)는 교회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오디션에서 어쿠스틱, 일렉기타 모두 솜씨 좋게 연주했고, 보컬과 드럼, 건반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듣는 귀도 제법 좋아 오디션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낸 청음 문제를 대부분 맞혔다. 우리 밴드부에 꼭 필요한 멤버가 될 것 같았다. 1학년 승미(태국-한국)는 보컬을 지원했다. 준비한 노래를 선보일 때는 쭈뼛쭈뼛 자신 없는 모습이었지만, 개인기로 준비해 온 춤 실력에 반한 우리는 망설임 없이 승미를 뽑았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흥이었다. 1학년 은선이(태국-한국)는 중학교 때 어쿠스틱 기타를 조금 배웠었고 이어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밴드부에 지원했다. 베이스기타 자리가 비어있어 은선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 새양이와 같은 반 친구인 3학년 학생 3명도 함께 지원을 했다.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민우(필리핀-한국), 피아노를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지원한 종윤이(중국-한국),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K-Pop에 푹 빠져버린 만빙이(베트남 중도입국)였다. 그냥 오디션을 구경하려고 놀러 온 희준이(중국-한국)도 밴드부 멤버가 되었다. 밴드음악을 참 좋아하지만 잘 다룰 줄 아는 악기도, 노래를 부를 자신감도 없어서 우물쭈물하던 희준이는 밴드부 매니저라도 시켜달라며 우리를 졸랐고, 엄씨였던 희준이를 우리는 ‘엄매’(엄 매니저를 줄여)라고 부르게 되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매는 밴드부의 드러머가 된다). 이렇게 작년 오합지졸 밴드부 멤버는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멤버들은 각각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청소년이었고, 그 중 두 명의 학생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이었다. 구성된 멤버들과 3명의 선생님들을 희준이가 단체 채팅방으로 묶어 온 오프라인으로 첫 연습곡 선정에 대한 회의를 하였고, 그때부터 우리의 밴드실은 새로운 빛깔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밴드부 연습 모습과 세계인의 날 맞이 지역행사 찬조공연 모습

우리 밴드부는 교내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날’과 같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의 찬조공연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우리 밴드부가 몇 년 전부터 매년 가을마다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제천에서 열리는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가 그것이다.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하는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는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를 환경의 중요성이 담긴 노랫말로 개사하여 부르는 경연대회이다.

사실 우리 밴드부는 이 대회에 가슴 쓰린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매년 이 대회를 꾸준히 참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 매년 예선 탈락, 참가상, 장려상 정도였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 멤버인 성희와 새양이가 참가했던 제작년 대회만 해도 우리는 부푼 기대와 다르게 예선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매년 대회가 끝나면 연습 때마다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무한리필 고깃집에 데려가 속상해하는 아이들을 달래며 나 또한 아쉬워했다. 우리는 그 아쉬운 마음을 불판 위의 잘 익은 고기로 가득가득 채우고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어김없이 제천 시내에 제12회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 개최 포스터가 붙었다. 매년 꺾은 꿈이지만 작년 역시 우승의 꿈을 꾸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일단 팀을 나눌 필요가 있었다. 밴드 연주를 하기에 10명은 너무 많았다. 두 명의 보컬,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두 대의 건반을 맡고 나니 경우와 성희, 승미의 3명이 남았다. 우리는 참가팀을 두 팀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락 밴드팀의 7명과 경우, 성희, 승미로 구성된 트로트팀이었다. 락 밴드팀은 락 그룹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를 참가곡으로 고르고 우리 밴드동아리 이름 ‘오합지졸’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트로트팀은 ‘천사vs악마’라는 팀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 윤수현의 <천태만상>을 개사하기로 하였다.

먼저 원곡의 가사 개사부터 하였다. ‘오합지졸’팀은 민우가, ‘천사 vs 악마’팀은 성희가 주도하여 개사를 시작하였다. 곡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환경 보호의 의미를 가득 담은 멋진 가사로 개사되었다. ‘오합지졸’팀은 원곡의 가사를 최대한 해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게 들릴 수 있도록 개사하였고, ‘천사 vs 악마’는 환경을 지키려는 천사 경우와 이를 방해하는 악마 경우,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승미로 역할을 나눠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미있게 개사하였다.

개사된 가사를 가지고 우리는 대회 참가 신청서를 냈고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선 무대에 올랐다. 제작년에 한 번 떨어진 무대였기에 성희가 많이 긴장한 듯 보였다. 결과는 두 팀 모두 예선 통과였다. 나중에 심사평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오합지졸’팀은 당시 악기연주가 아직 미숙하여 간신히 예선에 붙었다고 한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었다.

예선 합격 후 우리는 더욱 분주해졌다. 우리는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들어갔고, 기숙형 학교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밴드실도, 우리의 열정도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질 줄 몰랐다. ‘오합지졸’의 보컬을 맡은 만빙이는 바꾼 한국어 가사가 익숙하지 않아 틈만 나면 악보를 보며 가사를 되뇌었고, 민우가 발음연습을 도왔다. 건반악보 보기가 익숙하지 않은 종윤이와 새양이는 음들을 일일이 숫자와 자신만의 기호로 표시하며 거의 암기할 정도로 연습하였다.

체구가 작은 은선이는 베이스기타의 무게 때문에 찢찢맸고, 다재다능한 기타리스트 라빈이는 나와 함께 다른 친구들의 연습을 보조했다. 초보 드러머 엄매 희준이는 제각기 다른 친구들의 박자에 그만 자기중심을 잃고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천사 vs 악마'팀의 경우, 성희, 승미는 노래뿐만 아니라 소품제작과 안무연습에 가을밤 찬 공기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본선 날이 되었다.

본선에는 총 10개의 팀이 뿔뿔했다. 우리는 참가자 대기실에서 앞 팀의 연주를 지켜보며 순서를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서 아이들은 혹시나 가사를 실수할까 개사한 가사를 끊임없이 되새겼고, 악기연주를 맡은 아이들의 손가락은 허공 속에서 까닥였다. '천사vs악마'팀이 먼저 본선 무대에 올랐다. 걱정과는 다르게 가사 실수도, 안무 실수도 없었다. 화려한 의상과 소품은 아이들의 공연을 더욱 빛내주었고, 안무동작 또한 연습 때보다 더욱 큼직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오합지졸'팀의 공연도 성공적이었다.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민우의 특유의 재치 넘치는 애드리브로 라이브 밴드 연주의 생동감을 표현했고 관객들은 환호했다. 막판까지 한국어 가사와 씨름했던 만빙이는 다소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티 안 나게 고비를 잘 넘겼다. 무대 위의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 무대 위의 순간을 진정 즐기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모든 참가자의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후련한 마음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다시 생각해도 아쉬울 것 없었던 무대였다. 느낌이 좋았다. 결과는 '오합지졸'팀 은상, '천사 vs 악마'팀 금상이었다. 몇 년간의 이 대회 도전에서 이렇게 금상과 은상이라는 큰 상을 동시에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사회자의 입에서 우리 팀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우리는 얼싸안고 서로를 축하했다. 오합지졸 밴드부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쓴 날이었다.



오합지졸 밴드부 '환경 노래 개사 경연대회' 참가 및 수상 모습

지금, 그때의 아이들은 성장하여 일부는 졸업을 하고 일부는 2학년이 되었다. 원래 같으면 진작 밴드부 신입단원을 충원하는 오디션을 봤겠지만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 추억이 가득 어린 밴드부실은 올해 초 다목적 카페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다. 튀는 소리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벽면은 이제 사방이 통유리 도어로 바뀌어 탁 트인 공간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늦은 시간까지 불 밝혀 연습하던 그 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즐거움으로 불을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거쳐 간 지난 6년간의 오합지졸 밴드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공간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기분 좋은 추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장려상

소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지우 | 전의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천하였을 뿐 아니라 비다문화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에 기여하였으므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1. 당황스러웠던 다문화 교육과의 첫 만남

2020년 3월, 신규 교사로 첫 발령을 받던 날,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학교를 생각했던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전의면'이 어디지? 처음 들어선 학교는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시골이었다.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인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다문화 교육', 3월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학생 현황 조사였다. 다문화 학생 현황 조사 결과는 내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전교생 180명 중 33명, 전체 학생의 약 18%가 다문화 학생이었다. 게다가 총 6개국의 학생들로 매우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이 학교에서 다문화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가득 안은 채 2020년을 보냈다. 그리고 2021년 3월, 전담 교사였던 내가 첫 담임을 맡게 되었다. 다문화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되었는데, 우리 반 배정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 반 학생 15명 중 무려 7명이 다문화 학생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다!'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 다문화 업무 담당자인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난 해에 다양하게 해보지 못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갖고 2021년을 시작했다.

2. 그 어느 반 보다도 다양한 색깔의 일오삼이반을 하나의 무지개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

서로 다른 다섯 손가락 일오삼이반

올해 우리 반은 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무려 총 5개국의 학생들이 모인, 세상 그 어느 반 보다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모인 반이다. 다섯 개의 손가락이 서로 모양과 쓰임새가 다르듯이, 우리 반은 각자 생김새와 문화가 다르다. 하지만 다섯 손가락이 모두 모여야 하나의 손을 완성해 쓰임새가 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반도 스스로를 '일오삼이반(15명의 3학년 2반)'으로 칭하며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 되어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 이 학급의 담임을 맡게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생김새와 국적이 다른 아이들이 서로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위낙 나라가 다양하기도 했고, 한국어가 서툰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다. 그래서 1학기 초에 '우리 반은 하나야'라는 학급 운영 철칙을 강조하며 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학급명과 학급 로고를 다함께 만들었다. 그리고 정해진 학급명과 로고를 모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일오삼이반이야'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효과는 놀라웠다. 학급명이 생긴 아이들은 학습지나 미술 활동 등 곳곳에서 ‘일오삼이’반 이름을 사용했고, 학급명을 듣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나의 학급 운영 철칙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었다.



학급 로고



미술 활동지



교실 앞 환경

#소통하며 닳아가는 우리

3학년에는 우리 반 7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다. 전체 다문화 학생의 약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나라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년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다문화 교육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문화 교육 주제 중심 통합 프로젝트 ‘소통하며 닳아가는 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알아가고 세계 시민으로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돈가스 안 먹는 아이’라는 책을 읽고 주인공이 되어 일기도 써 보고, 뒷 이야기를 지어내보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다문화 학생들을 선두로 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다문화 학생들이 리더가 되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스스로 다문화 학생임을 드러내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개인별로 면담을 통해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10명 모두 흔쾌히 수락하여 부모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오는 모습이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다문화 학생들이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면서 부모님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방OO 학생은 활동 후 “친구들이 중국의 문화에 대해 신기해 하는 것이 뿌듯했고,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다문화가 아닌 학생들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신기해하며 이를 동등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친구들이 설명해주고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듯 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던 원OO 학생은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문화 친구들도 나와 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러한 소감을 이야기하니 ‘소통하며 닳아가는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에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뿌듯했다.

사실 이 활동에서는 담임 교사로서 활동의 목표와 방향성만 제시했다. 이외의 준비 과정, 체험 내용 등은 모두 학생들이 정했고 나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었다. 본인들이 스스로 체험 부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했고 덕분에 모든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인 나도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았다. 문화가 다르다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편견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교육 활동을 통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세종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 문화다양성 영상 자료 제작’사업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많은 교육 주체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우리 학교 학생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다른 학교에게도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다른 학년에게 공유하고 현관 모니터에 게시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교사들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뿌듯했다.



체험 내용 안내 (중국)



문화 알아보기 (필리핀)



중앙 현관 영상 자료

3. 다섯 손가락 맞춤형 다문화 학생 교육을 통해 하나 되기

나도 이제 친구들이랑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다문화 교육을 맡으면서 걱정스러웠던 점은 바로 ‘학교 부적응’이었다. 국적이나 문화가 다양하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했다.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은 국내 출생 학생들에 비해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지원했다. 우리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한 학교이지만 코로나 19 단계가 격상될 때면, 외부 강사가 교내로 들어올 수 없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활동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였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전담 교사로 가르쳤던 학생 중 2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중도 입국을 하여 기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2학년 김OOOO라는 학생이 있다. 작년에 이 학생과 수업을 할 때 ‘책 펴세요’, ‘앉으세요.’라는 말조차 알아듣지 못했고, 번역기를 사용하여 겨우 기본적인 소통을 하곤 했다. 이 학생도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전혀 언어가 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도 학생도 수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꼈고 그저 눈치로만 알아듣는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청과 세종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가 시내의 동 지역과 버스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모님 나라 말도, 한국말도 자신 있게!

우리 학교에는 국내 출생뿐만 아니라 중도 입국한 학생들도 있어 부모님 나라 말, 한국말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20년에 가르쳤던 2학년 리 000 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중도 입국하여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한국말도 잘 구사하는 학생이었다. 두 언어를 모두 막힘 없이 사용할 줄 알았지만, 발표하는 말투나 자세가 늘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그 와중에 '전국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소식을 접했다. 그 때 리 000 학생이 문득 떠올랐고 부모님과 학생과의 깊은 상의를 통해 내가 지도하여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주제는 '카자흐스탄을 소개합니다.'로 낯선 나라 카자흐스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원고로 작성하여 러시아어, 한국말로 말하도록 했다. 사실 이 학생은 러시아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말도 발음과 억양이 매우 유창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것은 자신감, 비언어적 표현을 하는 방법이었다. 이번 대회의 목표는 이 학생이 러시아어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기 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친구들과 다른 선생님들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듯 끊임없는 격려는 그 학생의 자신감을 한껏 북돋아주었고, 이를 토대로 전국 대회에서 특별상까지 수상했다.

대회 이후 그 학생은 발표할 때 이전보다 목소리도 자신감도 커졌다. 특히, 한국말에 대해 자신감이 상당히 없어 보였는데 이제는 실수를 하거나 틀리더라도 거침없이 한국말을 하고, 글쓰기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회가 다문화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대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4. 소통하며 닮아가는 하나 된 우리 학교

계단에 숨겨진 다른 나라 말?

우리 학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학생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도 다양하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전반적인 교육 활동에 활용하고 싶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총 6개국의 기본 소통 언어를 학교 환경에 녹아들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6개국의 기본 의사소통 언어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계단에 붙였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와 같은 말을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붙여 놓으니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말과 다른 말들에 신기해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말들을 써 보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다문화와 관련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다문화 교육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어!

학급과 학년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계단에 다른 나라 말을 붙여 환경을 조성했으니 뭔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다문화 이해 주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다문화 이해 주간에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는데, 학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이해 교육, 그리기 대회 등을 실시했다. 특히, '다른 나라 말을 찾아라!' 프로그램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읽기에 서툰 저학년 아이들도 아침 시간, 점심 시간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 말을 보고, 국기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학년 중 한 반은 학급 단위로 돌아다니며 정답을 찾기도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어하고,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라며 말씀해주시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학급에서 시작하여 전의초등학교까지 모두 소통하며 닮아가면서 다문화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학교 계단



다른 나라 말을 찾아라



다문화 이해 주간 포스터

5. 당황스러움이 익숙함이 되기까지

첫 발령을 받아 2년째 다문화 업무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우선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다문화 학생은 소수이고 아직까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어나 학습 능력이 훨씬 뛰어나 교육 활동에서 리더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우리 반 중국 국적의 방OO 학생은 늘 받아쓰기에서 90점이나 100점을 받을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유창하고 유머러스한 면이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가 많은 학생이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한국말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로지 나의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학교 생활을 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며 교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동등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다문화 감수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다문화 학교와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현시키면서 교사로서 나도 한층 성장했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교사로서 성장하면서,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장려상

코로나 19 시대, 전남다문화교육의 중심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다.

정은혜 | 전라남도국제교육원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간을 재구성 하는 등 다문화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 하였으므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1. 내 인생의 전환점 - 슬기로운 다문화교육부 파견교사 생활

2016년 3월, 제가 교사가 되어 처음 만났던 다문화학생은 페루에서 온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매우 이국적인 이목구비에 또래보다 덩치도 컸고 친구들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페루 출신 어머니가 한국인과 재혼을 하시면서 데려온 아이는 소위 말하는 '중도입국학생'이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많이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인데 말입니다.

그 친구를 처음 대했을 때 저는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학생은 한국어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 반 친구들과도 잘 적응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지난 1년간 한국어 학급에서 공부를 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반에서는 반장으로서 본인보다 어린 동급생들을 살뜰하게 챙길 줄 아는 멋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문화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남다문화교육 지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다문화교육 지원단으로 활동하며 만나게 된 다른 학교 다문화 학생들의 상황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불편하게 여겼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본인들의 배경을 드러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해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제가 만났던 페루의 여학생처럼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2019년 11월의 어느 날, 전라남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의 파견교사 제안은 제가 교사로서 다문화교육 지도역량을 갖추는데 큰 전환점이 돼 주었습니다.

2. 아시아문화체험관 - 국제문화체험을 통한 다문화감수성 기르기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국제문화체험센터(International Culture Center)는 2018년도 개원 당시 전남의 다문화가

정 중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6개 국가(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의 체험관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나라의 전통문화체험(의상, 놀이, 만들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운영되어온 프로그램 내용은 파견교사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의 다문화이해교육과 6개 국가의 이주여성분이 진행하는 전통문화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문화감수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아시아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축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보완이 시급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간이 너무 폐쇄적이고 정보 구성이 경직되어있어 시설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 아시아문화체험관 리모델링

2020년도에 전라남도 내 다문화가정 분포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체험관에 방문했던 캄보디아 가정 학생들이 어머니의 나라가 없다고 실망하는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관을 새롭게 추가하여 그 국가 출신 다문화가족들과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미닫이문으로 막혀있어 다소 사무적이고 폐쇄적으로 느껴지던 체험관의 모든 문을 떼어내고 체험 물품별 이름표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따듯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각 국가별 유명한 랜드마크를 배치하고 그 옆에는 이주여성 강사님들이 수업 때 쓰시는 실제 인사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문화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배치된 디지털 패널에는 해당국의 아름다운 홍보영상을 재생시켜 학생들이 그 나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층 체험관 중앙에는 최근 전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베트남의 수상가옥을 배치했는데 2021년 체험관 개관 후 베트남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베트남의 외할머니 댁에서 실제로 봤다며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나. 아시아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재구성

아시아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체험관 이주여성 강사님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재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상 학년별 수업을 구분하여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과정안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의수업을 진행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했더니 학생들의 감수성은 높아졌고 강사님들도 더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이해교육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문화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해서 기존 다문화 인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부모님이 한국인인데 왜 자신이 다문화냐고 되물던 아이들이 "인종과 국적 등을 뛰어넘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다문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체험이 끝난 뒤 아이들이 손을 잡고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 나라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셔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필리핀 전통 옷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수업 많이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이 못사는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전통 옷과 바닷가 풍경들이 너무 멋져서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앞으로는 동남아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래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보니 좀 더 수준 높은 다문화이해교육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새롭게 구축된 아시아문화체험관에는 상반기 42교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하반기 역시 40교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총 4,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수상가옥



체험관 수업 모습(일본)



체험관 수업 모습(베트남)



체험관 수업 모습(중국)

3. 세계문화체험관 - 다문화감수성을 갖춘 세계시민 기르기

2020년 3월, 처음 국제교육원에 도착해 마주한 지하 공간은 문자 그대로 텅 비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체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국의 기존 선진지들을 시찰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 체험관 구축을 위한 TF팀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존 다문화지원단 선생님들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총 13명의 TF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TF팀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매주 주말마다 모여 치열한 토의를 했고 결정한 최종 목표는 ‘다문화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 기르기’였습니다. 학생들이 다문화감수성을 가져야만 세계시민의 올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또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이것이 다문화교육의 최종 목표라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말하는 다문화교육 6요소(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및 세계시민까지 총 7요소를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의식주 및 축제를 소재로 풀어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총 7개의 체험 존(오리엔테이션, 세계의 언어, 세계의 집, 세계의 음식, 세계의 의상, 세계의 축제, 세계와 우리)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다양한 TF위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든 세계문화체험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다문화·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감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체험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입구 전경



오리엔테이션



세계의 언어



세계의 집



세계의 음식



세계의 의상



세계의 축제



세계와 우리

나.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시작

세계문화체험관 수업은 1년에 2회 학교의 신청을 직접 받아 30명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수업의 도입부에서 학생들은 먼저 태블릿 PC에 담긴 국제문화체험센터 어플 속의 다문화감수성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현재 다문화 감수성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존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문화감수성과 세계시민역량을 함양해나갔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입구에서 학생들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친하게 지내요’, ‘서로 배려해요’라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까?’의 마을 지도 삽화 코너에서 학생들은 자석 조작 활동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7개의 중요 가치(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이해, 협력, 세계시민)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씩씩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세계의 언어 존’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전 세계 약 6,800여 개의 언어 중 어느 언어가 가장 우수한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한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인사법과 몸짓, 손짓 및 숫자에 담긴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뒤에 학생들은 ‘언어는 달라도 전하려는 마음은 같다’라는 주제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소중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한글처럼 존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집’에서 학생들은 ‘세계의 특별한 집들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하며 전통 집들의 다양성과 문화권 고유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브라질 ‘파벨라 프로젝트’에서 네덜란드 청년들이 벽화를 통해 브라질의 빈민촌을 유명관광지로 바꾼 사례를 보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계의 음식’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인해 풍성해진 우리의 식탁에 대해 살펴보면서 다양성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국의 금기시 되는 음식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반편견

적인 사고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 코너인 ‘세계의 옷’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국가의 독특한 전통 옷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후·역사적인 이유일 거라 추측했지만 사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의 축제’ 존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축제에 대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영상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여러 주제의 전통축제 영상을 보고 난 뒤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의 추석은 시기와 음식, 놀이 문화 등이 전부 다르지만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패럴림픽의 선수들을 보니 장애도 역시 다문화적 배경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와 우리’ 존에서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MOU를 체결해서 가져온 ‘세계와 연결된 우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 운동화처럼 일상생활 속의 물건들이 다양한 나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레타툰베리’가 자신의 자폐증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협력을 추진하는 모습을 본 한 학생이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병이 있다는 것에 좌절했을 텐데 극복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생활하는 시간 대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 세계의 여러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7개의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존의 체험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학습지 활동을 통해 자기 주변의 다양성에 대해 인지하고 다문화교육 이해요소에 대한 개념을 내면화시켰습니다. 또한 7개 가치와 연계된 생활 속 실천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친구들과 발표 및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다문화감수성 지수를 재측정해보니 비록 4~6차시의 짧은 체험이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70점 만점의 감수성 지수점수에서 5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 뒤 학생들은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다른 나라에 가면 다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저희 옆 반의 동남아 친구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무시한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지내야겠어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해야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달려왔던 긴 인내의 시간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구축한 세계문화체험관에는 상반기 30개교 약 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30개교 약 900여명, 총 1,7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 다문화 감수성 테스트



태블릿 PC를 통한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세계의 언어' 인사말쓰기 체험



'세계의 의상' 매직사진관 체험



세계의 축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



'세계와 우리' 행동하는 세계시민 체험



학습지 활동 및 협의 토론 모습



코인과 자판기를 활용한 보상 활동



뱃지만들기 체험

4. 코로나 19에도 멈추지 않는 다문화교육 - 학교로 찾아가기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센터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임시 변경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이루어진 '찾아가는 국제문화체험'은 가뜰이나 체험학습에 목말라 있던 학교 현장에서 대환영을 받았고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학교에서 안전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기획했던 '다사랑 진로캠프' 역시 숙박형 방식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 강사님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1일 형 '찾아가는 다사랑 진로캠프'로 변경 운영하여 2020년 30개교 686명, 2021년도에는 12개교 354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사춘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비해 자존감이 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자존감 향상과 연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감과 협동심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섬 지역과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되어 체험이 힘들어진 학교들의 다문화이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다문화교육연구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놀면서 배우는 국제문화꾸러미'를 개발했습니다. 우선 전남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10개 국(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을 우선 선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안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운영 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사진과 여러 후기를 받았는데 그 중 한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한 뒤 국제문화꾸러미를 활용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다양한 전통악기와 의상을 실제로 체험하니 매우 흥미롭고 유의미한 학습활동이 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발표에 참여해서 좋았습니다.” 이렇듯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더 소외될 수 있었던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해줄 수 있어서 매우 소중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국제문화체험(태국)



찾아가는 다사랑 진로캠프



놀면서 배우는 국제문화꾸러미



꾸러미가이드



꾸러미체험

5.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더욱 소중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다문화교육부에서 파견교사로 임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있었고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험을 하면서 함께 웃는 순간, 그곳에는 그냥 예쁜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서로 다르기에 더 다양해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자신과 다른 타인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기 위해 다문화감수성을 직접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더욱 소중합니다.”



장려상

행복한 한국어학급, 그 안에서 동반성장한 우리

박한아 | 하남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 과정에 대한 수기로 교사의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으며 유아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수기이므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국어학급? 과연 아이들의 한국어능력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유치원은 2019년 9월에 개원한 뒤 2020년에 한국어학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가정 자녀로만 구성된 학급에 아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고 학부모님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학급 지정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과 전문 강사를 운용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한국어능력이 많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대부분 성인이나 초등학생 이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경험을 가진 강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유아기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모어(러시아어)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유치원이 한국어학급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아이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언어발달에 관한 책과 다문화교육 자료집을 밤낮으로 뒤지고 선배 교사, 특수교사 등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적 필요는 한국어교육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습기계 사용, 기초 한글 동화책 읽어주기, 천천히 반복하며 발화하기 등 나름대로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선생님', '화장실', '안 먹어' 처럼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생존에 필요한 한국어 어휘 몇 가지만 말했을 뿐 통역 없이는 유치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초등처럼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련한 교사도 아니고,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도 문외한인데, 어떡하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다문화교육 경험 부족, 교사로서 마음가짐 등 준비되지 못한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교육환경의 미흡함을 운운하며 저의 편향된 생각을 합리화했습니다.

한국어학급 시작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공백을 방지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격수업을 준비해나갔고, 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원격수업 교육 자료를 만들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땀 흘려 만든 유익한 자료들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학부모님들이 한국어로 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어로 흘러가는 영상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한 유치원 한국어학급에다 유치원이 1학급이었던 터라 도움의 손길을 뻗을 곳이 없었습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원격수업의 방법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고 교육적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을 인터넷 속에서 자료를 찾아 나선 결과, 안전교육이나 성교육 같은 의무교육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자료로 준비하였고 원격수업 계획안에는 간단한 설명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어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번 기회를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능력'이 '한국어 표현능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봤던 동화 몇 권을 선정해 뒤 저의 목소리를 넣어 녹음하여 들려주고, 다시 들 때는 천천히 따라 읽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 어휘와 문장을 정리하여 제공한 뒤, 가족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기 활동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고, 아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학급 SNS에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아이에게는 전화를 걸어 가정에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방역수칙을 알려주는 등 유선상으로 관리했습니다. 원격수업용 놀이자료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동네 안에서 아이의 집을 찾느라 한참 헤매고 학부모님과 약속된 장소가 엇갈리면서 생각보다 두 세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층 베란다에서 저를 보자마자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는 아이들, 씩스러운지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들을 보며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저는 마음 모아 유치원 등원을 기다렸습니다.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OOOO 입니다.



<가족에게 한국어 가르쳐주기 동영상>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나는 목이 아파요.
콧물이 나와요.

아는 만큼 나눌 수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한아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어떨겠니?”

“선생님, 한국어교육 과정이 대개 성인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아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국어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간 여러 연수를 통해 많은 이론과 사례를 접했음에도 다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차에 선배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발음의 오류가 조음기관의 미숙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어와 한국어의 언어체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많은 외국인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듣고 저도 아이들의 모어인 러시아어 발음을 연습해보았습니다. 알파벳 중 ж [zh] 발음이 가장 어려웠는데 혀를 위로 말아주는 연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국어 모음 중 몇 가지 발음을 어려워하고 구별을 어려워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이제야 아이들의 마음이 공감되었습니다.

“러시아어랑 한국어랑 발음할 때 혀의 움직임이 달라요.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선생님과 똑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말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아이들을 보며 진심 어린 격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한 한국어(KSL)교재 의미와 교실 활용 자료 개발 과정에도 참여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여자 중 유치원 교사는 유일하게 저 혼자였지만 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 구성을 이해하면서 유아기에 필요한 어휘선정과 문법, 이를 재구성하여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배움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식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니룰 수 있다는 말처럼 이러한 배움은 저를 한껏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2021년 알찬 한국어학급 운영,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선생님, 마리아(가명)가 음절을 자·모음으로 나눠서 다른 글자를 만들었어요.”

“놀이를 통해 더 많은 어휘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매 수업 후, 한국어강사님과 각 유아의 한국어능력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를 수정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배정해 준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한국어학급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검정색을 찾아요!”

“여기에 있어요!”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놀이와 한국어교육을 접목했더니 신나게 놀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에서 배운 한국어를 기억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능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단어의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로 확장하여 다양한 어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발화하였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붙여 천천히 말하는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선생님! 이거!”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빅토르(가명) 블록이 필요하구나!”라고 완성형 문장으로 반응해주었습니다.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미참여로 유치원에 오지 않는 유아들의 학습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여 ‘전화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도움은 유치원 운영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악화된 가정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 아이들이 계속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 발달 검사를 지원해주어서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illegible]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전화 한국어 일지



집에서 '전화 한국어'를 하는 모습

쑥쑥! 함께 성장한 우리

손짓, 몸짓으로 이야기하거나 “이거!” 처럼 간단한 지시어만을 사용했던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하고 싶어요,” “물 먹고 싶어요”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방긋방긋 웃으며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건네주는 물건을 두 손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스파씨바! 감사합니다!”

“다바이 미스트 이그라이쎄! 같이 놀자!”

교실 안에서는 두 가지 언어가 조화되어 들려왔습니다. 각 언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언어들은 부가적인 설명과 대체어를 활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했고, 명절이나 어린이날 등과 같은 중요한 날이 되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차이에 대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타인의 언행을 선불리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교육적 결정을 내리기 앞서서도 저의 기준을 항상 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더니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더 큰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아기 언어발달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차이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4장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3

일반인

최우수상

우당탕 칠남매의 엄마 나일라 이야기

이나영 (중앙유치원)

우수상

함께 행복한 어울림교육

김희자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장려상

고슴도치 아이들

김진아 (드림학교)

장려상

외국인가정의 자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스며들다.

황주현 (수원시글로벌 청소년드림센터)



최우수상

우당탕 칠남매의 엄마 나일라 이야기

이나영 | 중앙유치원



한국 적응 과정에 대한 생생한 묘사뿐 만 아니라 다문화 강사 및 통역사로서의 활동과 성장이 아름답게 기술되어 다문화교육의 안과 밖을 모두 보여주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수기로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는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나일라라고 합니다. 우즈벡에서 연애결혼을 하여 벌써 7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국나이로 38살이며 아들 여섯에 딸 한명을 가진 엄마이지요.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은 레트증후군이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넷째는 유비, 다섯째는 관우, 여섯째는 장비 세쌍둥이로 유치원 6세반에 다니고 있으며 막내인 일곱째는 올해 네 살로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즈벡에서 직장일로 출장을 온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에 왔지만, 저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였습니다.

배우고 익혀야 할 한국문화도 서투르기만 했으며, 한국어도 공부해야 되었습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남편의 도움과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으며 아이들이 커가는 가운데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지내야했습니다. 특히 둘째를 가졌을 때 태어난지 18개월 때부터 성장과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달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레트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진 딸의 모습에서 너무나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레트증후군을 가진 딸아이가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했으며 장애를 가진 딸아이의 성장은 그만 18개월 상태에서 멈추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에게 아들이 생겼으며 계속 넷째가 생겨 병원을 갔더니 뱃속에 세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꿈같이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너무나 무거워 천근만근 힘들었으나, 집안일하며 세아이들을 키우고 세쌍둥이를 위해 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35주 6일되던 날 저는 드디어 세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제 몸이 너무 망가져서 집중치료실로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세쌍둥이를 낳으면서 제 몸이 너무나 위태로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안좋은 것도 모른 채 오로지 세쌍둥이가 태어난 것 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 기쁨이 커서 그런지 제 건강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즈벡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세쌍둥이를 돌봐주시러 오셔서 3개월 정도 도움을 주셨지만 우즈벡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안좋으셔서 다시 고향으로 가셔야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세쌍둥이를 혼자 돌보았습니다. 무척 고생스러웠지만 예쁜 아기들을 보면 힘들고 지쳐있던 제 마음도 다시 환한 웃음으로 힘을 갖고는 했습니다.

큰아들과 레트증후군의 장애를 가진 성장이 멈춘 둘째딸, 그리고 늘 엄마를 찾는 셋째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로 태어난 세쌍둥이와 우당탕~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왔습니다. 즉 제가 일곱째를 가진 것 인데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성별은 상관안하고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아들이 태어났고 저한테 또 하나의 행복이 왔습니다. 막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 집안 식구 모두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고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아 국적도 한국이름 이나영으로 바꾸어 살면서 칠남매를 두고 살고 있는 제가 너무나 행복한 엄마란 것을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는 합니다.



행복한 우리 아홉식구 가족과 세 쌍둥이와 막내모습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힘들겠다~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집 근처 마트에 둘째딸과 세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장을 보러갈 때도 보는 사람마다 한 걱정씩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쌀도 많이 사야겠어요” “한 달에 한 가마니씩 먹나요?” “분유랑 기저귀값도 백만원은 들지요?” “먹는거, 입히는거 모두 돈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이 벌어야겠어요”라며 보는 사람들마다 뭐하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고생스럽게 사느냐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가장 값진 보물인 우리아이들 칠남매를 키우면서 모든 아이가 하나하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란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18개월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 둘째딸은 특수학교와 발달심리센터에 다니며 놀이치료등을 받으며 건강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문화 방문선생님을 통하여 한글어 교육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일찍부터 한글 공부에 흥미도 보이면서 그림동화책도 잘 읽는 우리 세쌍둥이 모습도 대견하지요. 큰아들과 셋째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잘하지만 운동도 좋아하여 태권도, 축구, 달리기 등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서관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책도 풍부하게 읽으며 독서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며, 부족한 교과공부도 모르는 것은 책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아이들의 대견스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이나 예절교육에 중점을 둔 가정교육을 하는 남편의 좋은 점을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서인지 칠남매간에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 때문에 칠남매엄마로서 더 커다란 보람을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루의 소박한 일상에 감사했으며 바쁜 하루일상 중에서도 우즈벡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우즈벡강사로 5년간 활동을 하면서 삶의 위로와 보람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통역사로 2014년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찾아가서 우즈벡의 전통의상과 악기, 놀이감 등을 소개하면서 함께 전통의상을 입고 우즈벡의 악기연주도 함께 해보면서 함께 웃고 기쁨을 느껴보는 아주 보람된 교육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나일라가 아닌 아나영 한국 엄마로서, 칠남매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교육도 잘 해서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기쁘기만 하합니다.



다문화인식개선 활동 모습과 우리 아이 아기때 모습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한국남자를 만나 시집을 와서 사랑스런 칠남매의 자녀를 둔 엄마가 되고 지혜롭고 사랑받는 아내, 다문화강사로서 우즈벡의 문화와 예술을 한국 어린이,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강사를 하게 일을 마련해 준 한국이 소중하고 자랑스롭습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 모두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부며느리”라는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더욱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예뻐를 받으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칠남매간에 서로 정이 있고 학교 공부도 잘하며 예의바르고 인성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그저 대견할 뿐입니다.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로 시골벽적 하지만 사람사는 세상, 우리집이 가장 좋습니다.

우즈벡에서 태어나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시집왔지만 이제는 어떤 엄마들보다 교육열도 많고 가장 중요한 인성바른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18개월에서 성장이 멈춰버려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 옆에 한가족으로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둘째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우당탕~ 하루하루 시끄럽고 울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잘 교육하고 보듬어서 한국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보람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우수상

함께 행복한 어울림교육

김희자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다문화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융통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으며, 그 과정의 어려움과 발상의 전환을 솔직하게 묘사하여 짜임새 있고 감동적인 수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3월, 청주-상주 간 고속도로 위로 하얀 구름이 산자락에 걸쳐 한 폭의 산수화를 봄직한 미려한 풍광이 앞으로 나의 출근길이라는 사실에 연신 감탄하며 보은교육지원청으로 전입했던 기억이 새롭다. 10년도 더 전에 5년간 보은의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인지 낯선 두려움보다 왠지 친근함이 느껴져서 좋았다.

전입해 온 첫날 예산을 살피다 보니, 기존 다문화교육 사업비 외에 교육균형발전지원 문화다양성 교육비라는 항목으로 1억 4천만 원가량의 자체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분담이 정리되지 않아 서로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 난처했다. 신·구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공유하는 내용이 달랐고, 이런 애매한 상황을 못 참는 나의 오지랖 덕분에 점심시간을 넘기기 전 보은교육지원청 문화다양성교육을 나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하게 되었다. '까짓것, 해보지 뭐!' 속리산을 품은 작은 농촌 마을 충북 보은엔 전교생의 60% 이상이 결혼이주여성을 엄마로 둔 학교가 있을 만큼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높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산업단지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 특성 때문인지 중도입국 학생은 거의 없고 모두 국내출생 학생들이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찾아가는 언어강사, 통·번역 지원, 다문화이해 인형극 관람 등의 사업 계획에 맞춰 베트남 영어회화 강사, 언어발달 통·번역 지원사가 선발되어 있었지만 2월 말까지 학교 신청은 언어발달지원 신청 3명밖에 확인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다시 한 번 각각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쉽게 요목화하여 정리하고 재신청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는 한편 이미 선발된 강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시작 시기를 4월로 연기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 19 확산세가 예상외로 거세지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상황이 되었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외 체험활동은 잠정 보류되었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의 이중 언어와 통·번역 지원 신청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5월을 맞으려니 고민이 깊어만 갔다.

보은지역은 15개 초등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가 13개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 외 방과 후 교육, 돌봄교실 운영 등 기존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도 바쁜 상황이라 추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데가 다문화학생 대부분이 국내 출생이다 보니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어교실 등 이중 언어교실을 개설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았다. 더구나 친구들 사이에서 '다문화'라고 구분 지어지는 것을 꺼리다 보니, 교사들도 '다문화'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없는 상황인 듯했다.

기존 계획에 의해 선발된 언어발달 지원사와 영어회화강사, 기초학습 인턴강사를 5월부터 신청학교에 지원하고 통·번역 지원 범위를 가정통신문과 전화 문자메시지로 확대했지만, 생각처럼 신청수요가 늘지 않았다. 그나마 학생 대상 이중 언어(베트남어)지원을 신청하는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보은군 학부모연합회

이*영 회장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다문화사업은 너무 일회적 체험 위주인 데가 계속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상황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 왜 꼭 다문화여야 하지?’

2020. 함께 행복한 어울림교육 시작

다문화, 비다문화로 구분짓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 마음먹고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베트남어를 꼭 다문화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까? 한국말이 서툰 엄마에게 이중 언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엄마를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찾아가는 기초학습지원과 언어발달지원 등 학교의 요구에 따른 지원을 시작하면서, 신청이 저조한 학생 프로그램을 ‘함께 행복한 어울림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주셨던 이*영 회장님께 연락해 학부모회장 몇 분을 더 섭외하고 ‘보은교육지원청 문화다양성교육 학부모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찾아가는 이중 언어 지원 신청 대상을 교직원과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이중 언어 지원에 다문화 어머니들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포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관계기관을 물색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한 후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토픽반을 개설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더 배우고 싶은 게 있는지 물었더니, 한 젊은 엄마가 집에 헌 재봉틀이 있는데 배워서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히고 싶다고 했다. 배우고 싶다는 데 배우게 해줘야지 싶어 보은읍에 재봉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 ‘어울림 재봉 교실’을 개설했다.



다국적 학부모로 팀을 구성하여 ‘어울림 재봉 교실’ 운영을 시작한 후 기대 이상의 반응들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국 엄마들이 왕언니가 되어 베트남 엄마들을 동생처럼 챙기고 스무 살도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레 언니 동생으로 불리고 있었다. 19살에 낳은 한국으로 시집와 유치원생 딸을 둔 **코아, 한국생활 13년째로 아이 셋을 키우는 **홍눔씨는 아이들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할 때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언니가 생겼다는 너무 좋아하며 열심이다.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던가? 대부분 보은에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보은지역 탐방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한국 어머니들과 교육지원청 주무관 도움을 얻어 4인 1팀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2회에 걸쳐 보은지역 어울림 문화탐방을 기획했다. 99칸 한옥의 구병리 우당고택에서 고추장을 만들고 한반도지형의 속리산 전망대를 둘러본 후 차도 한 잔! 다음엔 속리산 법주사와 둘레길 탐방 후 지역 공방에서 도자기체험을 하며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사진 속에서 부쩍 친해진 모습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베트남 어머니들의 모습에 같이 미소 짓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과 떡볶이, 잡채랑 어묵탕 등 간식을 만들며 한국과 베트남의 요리를 서로 배워줄 수 있는 어울림 요리교실도 운영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베트남요리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이런저런 활동을 같이하며 친해진 엄마들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문화다양성교육 강사로 체험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음식과 놀이로 세계문화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세계 속의 한국을 빛다'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베트남 강사가 팀티칭으로 추석의 대표 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어 보고 간단한 놀이, 노래 배우기 등 이웃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어울림으로 역량을 키우는 문화다양성교육 학부모지원단 양성 기초과정

처음 토픽 반 모집 때 안타깝게 합류하지 못한 베트남 엄마가 한 분 계신다. 베트남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까지 갖춘 인재라고 들었는데 토픽 반 개설 일주일 전 닭발 공장에 취업하면서 배움을 포기한 경우였다. 다문화센터나 학교 등에서 강사 활동을 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자신의 재능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다. 이분들 중 몇 명이라도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겠다는 욕심으로 총 40시간 과정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맘먹고, 한 달 넘게 인터넷을 뒤져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이면서 충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김*숙, 이*희 두 분의 전문강사를 모실 수 있었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다문화 교육 인권, 대상별 문화의 다양성 강의안 작성, 발표 및 피드백까지 총 10회, 40시간의 과정으로 문화다양성교육 학부모지원단 양성 기초과정 '소통과 화합이 제일'을 운영하고, 교육장 명의로 수료증까지 발급했다. 프로그램 기획에서 강사 섭외, 운영, 수료까지 결코 만만한 과정은 없었지만, 어머니들의 화합과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1. 이제는 실전! 문화다양성교육 학부모지원단 실행과정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을 바꾸면서 예전 학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올해는 예산의 규모를 줄여 학생지원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프로젝트’로 찾아가는 이중 언어(베트남어)와 우리 말 도우미, 통·번역 서비스를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기초과정 수료 학부모들 대상의 심화 과정과 새로운 참여자 발굴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함께 키워가는 문화다양성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다들 부업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다국적 학부모 10여 명을 대상으로 실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부천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소속 이*희 팀장과 히*미 강사를 초빙해 3시간 과정의 문화다양성 수업 시연을 보면서 수업아이디어를 도출해 각자 활동을 짜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관내 초등학교 4명을 컨설턴트로 초빙해 활동을 검토하고 PPT 제작 연수를 지원한 후 팀티칭으로 직접 수업 시연까지 총 10시간의 1:1 맞춤 지원 과정이 준비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웃 나라의 명절과 놀이를 경험해 봄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세 가지 버전의 활동을 준비했고 한국, 중국, 베트남 학부모 3명을 한 팀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초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함께 모여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담당 장학사인 내가 짜준 활동안 ‘음식과 놀이로 추석 즐기기’에 맞춰 역할을 받고 체험활동 지원을 나갔다면, 올해는 엄마들이 의견을 모아 직접 활동을 짜고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수업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다. 훨씬 수고롭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주제적으로 의견을 내고 서로 도와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외국 엄마가 아닌 우리와 함께 행복한 이웃의 모습으로 자존감을 키워가길 기대해 본다.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교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 온 ‘다문화’라는 용어에 이런 차별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다. 그리고, 학교별 의무교육으로 시행되는 다문화교육과 지자체별 다문화프로그램들이 유의미한 연결고리 없이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나누고 저들의 삶의 모습과 동떨어진 채 일회적 지원으로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2년간 문화다양성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리며 언제든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한국 언니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좋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로 설 기회를 바탕으로 저들이 한국에서 당당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행복한 오늘’을 가꿔가길 바라본다.



장려상

고슴도치 아이들

김진아 | 드림학교



적응과 배움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며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뿐 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나서 다문화교육 수기로서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는 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 시기 교육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인상적이었다.

처음 드림학교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라는 것을 듣고, 살면서 탈북민을 접해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호기심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드림학교로 향했고, 학교에 도착해서 길을 물어보게 되었다. 남학생 둘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였다. 나중에 그 학생들은 중국출신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겉모습으로는 한국 학생들과 다른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많이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았다. 드림학교에는 북한 출신 학생들과 중국 출신 학생들이 있다. 북한 출신 학생들은 탈북을 하여 한국에 입국한, 말 그대로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고, 중국 출신 학생들은 탈북하신 어머니가 중국에서 결혼,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중국에서 낳고, 후에 청소년이 되어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을 한 학생들이다. 공통점은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드림학교 학생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해맑고 예쁘다.’ 이런 말이 있다.

원래 겉으로 더 밝고 웃는 사람이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아이들에 대해 한 명, 한 명 알아가게 되면서 그 말이 더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 역시도 어린시절의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면서 아이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마주하게 된 한국, 정체성 혼란

알고보니 우리 아이들은 몸에 가시를 잔뜩 덮어놓은 고슴도치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오고 동시에 드림학교에 온 학생 중에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을 찌르기도 한다. 서로의 가시들로 서로를 찔러 싸우기도 한다. 북한 학생들끼리, 중국 학생들끼리 어쩔 때는 북한학생과 중국학생이 싸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 역시도 힘겨워한다.

왜 고슴도치 아이들일까? 가시(상처)가 많다. 어린 나이에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겪은 후 기적적으로 살아온 학생들이다. 북한 학생들은 탈북과정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하고 탈북의 힘든 과정을 겪었고,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중국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홀로 입국을 하셔서 10여년이라는 시간을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 아빠, 고모 등과 같이 지낸다.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기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로 힘들어한다. 어머니들께서 한국에 오시고 재혼을 하거나 엄마 옆에 아빠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역시도 학생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머니와

갈등관계에 있다.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의 미안함을 물질로라도 대신해 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지금 감정상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학생 중에는 결국 어머니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중국 출신 학생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학교에 오게 되면 한국어 가나다라부터 시작하게 된다. 발음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면 “안녕하세요.” 부터 나이, 국적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우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으면 “저는 중국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한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고민하기 시작한다. 나는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사실상 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2개의 국적이 생긴다. 20살이 넘어 일정 나이가 되면 국적을 1개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실제로도 국적이 2개인 것처럼 학생들은 정말로 혼란의 시기에 마주하게 된다. 게다가 어머니는 북한분이시니 ‘북한 사람인가?’라는 고민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를 거쳐 한국에서 생활한 지 4-5년 정도가 되면 한국어도 어느새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가시가 많이 유연해지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보다는 훨씬 편해지는 것 같다. 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던 아이들은 어느새 어머니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 이 시기를 겪은 아이들은 더욱 단단해져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여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곳곳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슴도치를 안으려면 아플 수밖에 없다.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른다.

고슴도치가 힘들어서 발버둥 칠 때 고슴도치를 안고 있는 사람의 상처는 더 깊어진다.

고슴도치가 발버둥을 멈출 때야 비로소 그 또한 아픔이 멈춘다.

바로 이와 같다. 우리 아이들을 ‘안는다’ 는 것은 참 아픈 일이다. 아이들이 힘들때면 우리도 역시 힘들어진다. 아이들이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 역시 평안해진다.

아이들을 ‘안는다’ 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아이들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가정에 회복이 있도록 화해자로서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 그래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어느덧 안정되어지고, 상처가 어느 정도 싸매어지고, 정체성이 정돈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들이 한국사람으로 잘 정착하여 사는 것이 나의 역할, 우리학교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

정체성 찾기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역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서울대한국어를 주교재로 1A부터 시작하여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문화체험교육과 어머니의 고향인 북한, 그리고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체성 안착에 도움을 주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험 교육활동으로는 한국의 전통놀이(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등)와 전통시장 체험, 대중교통 이용하기, 역사유적지 탐방, 통일문화기행, 한복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과 태극기 그리기, 애국가 부르기,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영화 감상, 한국노래 배우기 등이 있다. 매년 있는 통일백일장은 북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생각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은 드림학교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하며 통일을 이뤄가고 있다. 이들이 통일미래에 주역이 되고 통일의 화해자가 되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빛낼 것이다.

또 특별한 것은, 북한 학생들과 중국학생들이 서로의 멘토, 멘티가 되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며 관계를 쌓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북한 학생들 역시 부족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공부하며, 중국학생들은 평소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중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대화시간을 늘려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교육회복을 위한 1:1 전화 한국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등교수업이 중지가 되어 한두달 정도는 비대면수업을 진행하였다. 주 3일은 학생들에게 한국어 문법강의를 한 개 듣게 하고 학생들과 1:1로 전화하여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였고, 주 2일은 단어암기를 하고 암기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고 책을 1장 읽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학습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은 총정리식으로 ZOOM으로 한 명씩 단어시험을 보기도 했다. 물론 대면수업보다는 학습효과가 미미하겠지만, 대면수업 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1:1 전화 한국어를 하여 한 명 한 명 배운 문법을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개인별로 대화를 하다보니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평소 부족한 단어 학습량을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그 이후, 우리 학교는 학생수가 많지 않아 초반 한두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면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다문화교육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

다문화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문화(多文化). 문화가 많다. 문화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일 것이다.

드림학교는 북한 학생, 중국 학생, 한국 선생님. 이렇게 3개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 다문화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한 개의 같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육현장에서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물며 다문화교육이라.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선생님들은 북한학생들을 보며 생각한다. 왜 이렇게 거칠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왜 거짓말을 잘하지 등등. 또 중국학생들을 보며 생각한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이렇게 개방적이지, 왜 이렇게 정이 없지 등등. 학생들도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미 4년째 이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나는, 사실은 아직도 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인해 이따금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문화충격일까.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이러한 문화적 충격 역시 고스란히 받는 것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를 만들어 낸다. 각종 어려움을 겪어 온 우리는 누

구보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며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잘 살아낸다. 오투기처럼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 속에는 어떤 걸 담아 두었는지 몰라도 북한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며 잘 지내고 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왜 없겠는가. 싸울 때도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배려를 누군가 시작하고, 그 배려가 다시 또 배려가 되며 양보가 되어 우리를 너그럽게 해준다. 이 어려움 안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다름뿐만 아니라, 나이의 차이까지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고등반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수준에 따라 반이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반에 적게는 14살 많게는 23살까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우쭐대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 되어 학교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나 싶다. 작은 사례로 14살 학생이 칠판에 등을 부딪치게 되었을 때, 20살 형이 칠판을 흔내주는 모습, 또 책상을 옮겨야 해서 끄꽂대고 있는 학생을 대신하여 책상을 번쩍 들어 옮겨 주는 모습들을 볼 때면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 안에서 통일을 몸소 배우고 시작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인함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학교는 생활지도 부분에 더욱 강조하여 교육을 한다. 이성교제, 흡연, 폭력 등 중대한 규칙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서까지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 생활지도가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가장 쉽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일 것 같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 문화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이 또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학생들 역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끔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또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이 가치있는 일임에, 꼭 필요한 일임에 힘을 내고, 또 힘을 낸다. 지금은 당장 교육의 효과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학생들이 성장하여 지난 날을 회상했을 때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 라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장려상

외국인가정의 자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스며들다.

황주현 | 수원시글로벌별청소년드림센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락배달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소중한 기회를 만들고,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관계 맺기, 학업 지원을 시도한 노력이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그란 눈에 유난히도 수줍음을 타는 아이’

정민이(가명)를 처음 만난 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센터 역시 장기 휴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보호자의 근로로 인해 집에 혼자 있어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민이 역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는 두 달여 기간 동안 도시락 배달을 하며 정민이네 가정환경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세 식구가 지내며, 정민이는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수줍게 인사해줍니다. 그렇게 정민이와 인사를 나누고, 정민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정민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중국인이냐고 물어요’

정민이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고 정민이를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정민이의 부모님 모두 중국 국적으로 정민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국은 오히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정민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중국에 연고가 없고,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여느 아이들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인과 똑같습니다.

정민이 어머니는 이런 정민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인으로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러한 정서로 살아왔는데 국적은 중국인 것에 대해 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정민이 어머니는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위해 한국 귀화 준비 중이신데, 최근 갑상선 수치에 이상이 생겨 건강 악화로 귀화 준비와 경제활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민이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 높아졌습니다.

‘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12살의 초등학생 정민이를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고 정민이는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민이는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고민도 많아지고,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의 관심과 조언이 간섭과 잔소리로만 느껴진 정민이는 엄마보다는 때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처럼 기대고 싶은 언니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언니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편지도 주고 받으며,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는 ‘언니 만들어주기’를 목표로 1:1 멘토링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정민이에게 친구 같은 언니와 고민 상담도 하고, 조언도 들으며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멘토는 센터를 이용한 적 있고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학생 언니입니다.

그러나 정민이와 대학생 멘토는 겪었던 상황과 정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민이는 오히려 중국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언니와의 대화는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니와의 대화보다는 차라리 학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언니와의 만남은 숙제처럼 느껴지면서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생 언니랑 대화하는 건 당분간 안하고 싶어요”

센터에서는 그만하겠다는 정민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서비스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정민이와 중도입국한 멘토 매칭은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례 담당자는 정민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센터 가는 게 즐거워요’

2020년 가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시기에 정민이는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내 수업들은 대면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만나던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술, 기타, 수학 수업에 참여하며 학교 친구들 외에도 센터 내 친구, 동생, 언니, 오빠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용자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정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며 낮가림을 하였던 학생들과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매개로 대화도 많아지고 본래 정민이의 장난기 가득한 밝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Hi?High! 치어리딩 단원이 되다.’

이후 센터 사례 담당자의 권유로 치어리딩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어리딩 단원으로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멋진 작품들도 완성하고 성취감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배워서 더 잘해요. 저도 더 잘하고 싶어요.”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정민이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사례 담당자는 치어리딩에 흥미를 붙이며 매우 밝아진 정민이를 위해 격려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봐야 한다’

정민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예민해지는 시기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 것으로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국인과 다른 점이 없다고 느끼는데 한국인이 아니어서 받는 차별과 차이를 경험하면서 다른 형태의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정민이입니다.

정민이가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국적으로 인한 차별이나 소외를 겪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5장

**다문화
실천사례
상답사례**



최우수상

너무 외롭고 불안해요

전란희 (대덕중학교)

우수상

마음의 거리 0m

최미정 (대구세현초등학교)

장려상

끝없는 아이의 절망 속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다.

박동진 (한양공업고등학교)



최우수상

너무 외롭고 불안해요

전란희 | 대덕중학교

상담기간 | 2021.03. 29.(월) ~ 2021.6.28.(월) 12회기

다문화학생 유형 | 외국인

상담유형 | 개인

학교급 | 중학교

주요 호소문제 | 정서



외국인 신분의 중학생으로써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불안과 자해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전반적으로 사례에 대한 기술이 잘 되어 있으며, 호소문제에 대한 상담의 과정과 절차, 개입의 방향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상담사례 개념화와 개입의 내용이 충분히 잘 기술되어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상담개입을 했는지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상담개입의 방법 또한 적절하며 효과적이다.

1 내담자 기본정보

1. 내방 경위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함.

작년까지는 학급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 학교생활이 즐거웠는데 새 학년이 되며 친한 친구들이 모두 다른 반이 되었다고 함. 새로운 학급에 친구도 없고, 체육 시간이나 수업 이동시간에 혼자 다녀 친구들이 내담자를 찌질한 학생으로 볼까 불안하고, 교실에서 대화 나눌 친구도 없어 외롭고, 새롭게 친구를 사귀기 어렵고 답답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함. 저녁에 혼자 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함.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자살을 하게 될까 무서워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함.

2. 인적사항

가. 이름 : 000(여)

나. 학력 : 중학교 3학년

다. 가족관계 : 부모, 남동생

3. 주요 호소 문제

-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 답답해요.
- 교실에서 친구 없이 혼자 다니면 찌질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불안해요.
- 혼자 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해를 하게 돼요.

2 내담자 이해

1. 첫인상 및 행동관찰

긴 생머리, 갈끔한 외모, 하얀 피부, 단정하게 교복을 착용하였으나 치마가 다른 친구들길이에 비해 짧고, 거울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외모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임. 목소리가 밝고, 빠르며, 씬 없이 말을 하고, 처음에 힘든 감정을 표현

할 때도 웃으며 표현하다 눈물을 보임. 눈 마주침을 하며 감정표현을 잘함.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한국어 표현이 능숙하고 대화에 어려움 없이 상황과 감정표현을 구체적으로 구사함.

2. 가족 관계

아버지(48세, 사업) 00에서 사업을 하여 바쁘고 잔소리가 많은 편이라고 함.

어머니(45세, 대학원생) 대학원 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고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함. 내담자가 어머니에게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을 표현하면 더 속상해져서 힘든 일은 말하지 않는다고 함.

남동생(12세, 초등학교) 동생은 귀여울 때도 있지만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듦. 동생과 싸우면 항상 어린 동생과 싸운다고 혼났다고 함.

3. 발달사 및 주요 호소 문제와 관련된 사건

내담자는 00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남 1녀 중 장녀임.

아버지는 바쁘고, 어머니는 자주 외출하여 늦게 들어옴. 동생은 귀찮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장난꾸러기임.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고, 잘 지냈는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함. 친구들이 왕따 당하는 내담자에게 '찌질하고 불쌍하다'며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음. 이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과 자해 행동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않음. 어머니에게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원인을 내담자에게 찾아 내담자의 문제를 바꾸라고 하여 답답하고 화가 났음. 이후에는 내담자의 힘든 상황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게 됨. 어머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한국에서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옴. 한국에서 잘 지내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작년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함. 작년까지 한국어 학급과 학급에 친구들과 친해져 학교생활이 즐거웠음. 새 학년이 되면서 친한 친구들과 모두 다른 반이 되어 체육 시간이나 수업 이동시간에 함께 다닐 친구가 없고 새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하고,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혼자 있는 내담자를 찌질한 학생으로 볼까 불안함. 학교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답답함.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음. 예전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해를 하게 됨.

4. 심리검사 결과

1) AMPQ-III

가. 정서행동특성 총점: 48점(관심군 우선)

심리적 부담	기분문제	불안문제	자기통제부진
7	13	14	14

나. 자살 관련 문항 점수 합 : 2점

5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그렇다(2점)

57.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 아니오(0점)

60.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아니오

다. 자해 관련 문항 점수 합 : 2점

47. 자해를 한 적이 있다 : 그렇다(2점)

2) SCT

- 나의 장래는 인기 있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다.
- 내가 우울할 때는 친구들이 없을 때이다.
-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친구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
- 내가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은 친구 000이다.
-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연기하는 것이다.
- 내가 만약 외딴 곳에 혼자 살게 된다면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다.
- 내 소원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 첫째 소원은 인기있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다.
 - 둘째 소원은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 셋째 소원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다.
- 나의 어머니는 바쁘다.
- 어머니와 나는 말이 안 통한다
- 아버지와 나는 모르겠다.
- 다른 가정에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안 친하다.
-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인기 있는 연기자가 될 것이다.

3 사례개념화

1.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

새 학년이 되어 학급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의 부재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불안과 우울감, 자살 생각, 자해 행동을 보고하고 있음. 이는 첫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인 소속감을 지향하는 특징과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느껴야 할 안정적인 귀속감의 부재로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며, '친구만이 나를 이해하고 수용 줄 것'이라는 생각을 발달시켜 왔던 것으로 보임. 둘째, 학급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왕따 경험으로 생겨난 '혼자 다니면 찌질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는 부정적 자동사고가 더해져 과도한 불안과 우울감을 느낌. 셋째,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며 답답함과 두려움이 커져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부적응적 감정을 보임.

2. 내담자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1) 내담자의 보호 요인

- 상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많음.
- 감정표현을 잘하고, 감정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림.
- 언어 습득 능력과 이해력이 뛰어남.
- 친밀감을 형성한 친구들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담임, 한국어 학급 선생님들, 또래 상담자 자원을 가지고 있음.
-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자녀가 지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개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2) 내담자의 위험 요인

- 왜곡된 사고로 인한 불안, 감정 기복, 자기통제 부진이 높음.
- 어머니가 바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4 상담목표 및 상담전략

1. 상담목표

- 1) 왕따 경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게 한다.
- 2)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 시킨다.
- 3) 내담자 어머니와 관계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 안정적 귀속감을 갖게 한다.

2. 상담전략

- 1) 내담자가 상담 장면을 통해 무조건적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가치조건화된 생각을 벗어나게 하여 불안을 감소 시킨다.
 - 따돌림상황에서 친구들,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기 (수용과 공감 경험하기)
 -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그 때 거기서” 느꼈지만 제대로 수용하고 조절하지 못했던 감정 경험을 “지금 여기서” 다시금 재현하여 제대로 느끼고 관찰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here & now)
 - 따돌림상황에서 내담자가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상담 장면에서 표현하는 연습한다. (빈의자기법)
 - 따돌림 상황에서 생긴 부정적 자동사고를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한다.
- 2)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해 보도록 돕는다.
 -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감정 노트 적어보기’ 연습을 통해 불안, 기분장애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불안, 우울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방법에 대해 알게 하고 적용하게 한다.
- 3)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사회성 발달 및 문제 해결 경험을 갖게 한다.
 - 학급 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에 어려움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전달법’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문제 해결 성공 경험하게 한다.
- 4) 내담자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 및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머니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내담자의 발달적 특징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방법 코칭을 통해 자녀를 수용하고, 공감, 지지함으로 내담자에 대한 관점 및 태도를 개선하도록 도와 내담자가 가정에서 안정적 귀속감을 갖게 한다.
 - 안정적 관계 개선을 통해 ‘친구만이 나를 수용하고 이해할 것’이라는 핵심 신념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상담 과정 및 개입내용

- 내담자의 자살 생각, 자해 행동 표현과 AMPQ-III 검사를 통해 정서 행동 위험군으로 측정되어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빠른 개입과 다양한 도움 방법 모색, 교내외 자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때 내담자는 등교하여 내담자의 지지자원(한국어학급 담임, 한국어학급 강사, 학급 담임, 상담사)을 통한 학습, 정서 관리와 상담 실시함.

회기별 요약

- 1회기(호소 문제의 촉발요인 탐색)

현재 학교생활이 외롭고 힘들어서 학교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함. 어제저녁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해 행동을 함.

갑자기 자살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함. (자해 행동을 하게 된 시기는?) 2학년 때는 한국어 학급과 학급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생활이 즐거웠다고 함. 3학년이 되어서 2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모두 다른 반이 됨. 수업 이동시간, 체육 시간에 함께 다닐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고, 혼자있는 모습을 찌질하게 볼까 불안함.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답답함. 밤에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자살 생각과 자해를 하게 됨. (혼자있는 내담자를 친구들이 찌질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혼자 다닐 때, 작은 소리로 내담자를 불쌍하고 찌질해 보인다고 함. 힘들어서 엄마에게 말씀드렸는데 문제점만 지적해서 엄마에게 화가 나고 답답했음. 친구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학교에 가지 않았고, 자살 생각과 자해 행동을 함.

- 2회기: AMPQ-III, SCT검사(심리검사 실시)

*AMPQ-III: 위기정도 확인을 위한 검사에서는 자살 생각을 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해 행동을 하고 있으나 자살 관련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기분 문제, 자기통제 부진이 높게 나옴. 자살위험 우선 관심군으로 측정됨.

▶ AMPQ-III 검사 결과 우선관심군(자살)으로 측정되어 불안, 기분장애 지속시 자기통제부진으로 자살 행동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시급한 접근이 필요.

*SCT검사: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의 어머니는 바쁘다, 어머니와 나는 말이 안 통한다, 아버지와 나는 무관심하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우울할 때는 친구가 없을 때이다,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친구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외딴 곳에 살게 된다면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다'

▶ 가정의 안정적 귀속감의 부재로 친구들과의 소속감을 통해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내담자의 기분, 불안 문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

- 3회기(가족관계 탐색)

00에서 아버지는 바빠서 늦게 귀가했고, 어머니도 집을 자주 비웠고 함께 있어도 서로 각자의 일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함. 동생은 귀여울 때도 있지만 귀찮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함. 동생 때문에 자주 혼났다고 함. 부모님께 동생과 싸우면 항상 어린 동생과 싸운다고 혼났다고 함.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자주 통화하고 있지만 00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친하지 않았다고 함. 어머니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함. 한국에서 친구들이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함. 내담자의 힘든 마음을 어머니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함.

- 4회기(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갖게 하기)

*어머니 전화 상담

전화를 통한 상담을 진행함. 어머니가 정신없이 바빠서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을 몰랐다고 함. 식사할 때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시내에 다녀왔다고 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함. 자녀가 너무 예민하고 못되게 굴어서 싸우게 될까 봐 무관심했다고 함.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 사춘기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을 수용, 공감하고 공부하는 어머니의 열정을 격려 함. 자녀의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 안내하고 발달적 특징, 공감, 수용 대화 방법 코칭 함.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 자녀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안내함.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함. 상담실 전화 번호 안내하고 자녀 관련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기를 요청함.

- 5회기(내담자의 부정적 자동사고 탐색)

현재의 감정을 감정 카드로 표현하게 함. '외롭다, 답답하다, 불안하다, 부담스럽다, 힘들다'를 선택함. 학급에서 함께

다닐 친구가 없어 외롭고 학교에 오기 싫고 부담스러움. 교실에서 혼자 다니면 친구들이 찌질하게 볼 것 같아 불안하고 힘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함.

▶ “친구 없이 혼자 있으면 찌질하게 볼 것”이라는 부정적 자동사고가 있음.

- 6회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연습하기)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가?) 현재 학급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함. (작년에는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졌는가?) 한국어 학급 친구 중에 내담자와 비슷한 시기에 귀국한 친구가 있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학급 친구들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어 친해졌다고 함.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친구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친구들과 수도도 떨고, 이동시간에 함께 다니고, 외롭지 않아 학교 오는 것이 즐거울 것 같다고 함.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워지기 위해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다고 함. 친구들이 모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내담자가 끼면 싫어할 것 같아 도움 청하기가 어렵다고 함. (학급 내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돕는 또래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나?) 또래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에서 보기는 했는데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함. 또래상담자 이름을 안내하고 또래상담자에게 도움을 청해 볼 것을 권함.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 현재의 내담자 감정의 어려움과 원하는 내용을 표현해서 도움을 청하는 ‘나-전달법’ 대화 방법을 코칭함. ‘나-전달법’을 연습해 봄. (또래 상담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해보겠다고 함. 또래 상담자에게 도움을 청해 보도록 격려하고, 또래상담자에게 도움 청하기를 과제로 내줌.

*또래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마음을 나눌 친구’의 부재를 설명하고 또래 상담자와 협력하여 내담자가 교실 내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7회기(문제 해결 성공 경험 나누기)

(6회기 상담 이후 점심시간에 상담실에 행복한 표정으로 방문 함. 또래 상담자에게 ‘나-전달법’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래 상담자가 앞으로 함께 다니자고 했다고 함. 그래서 너무 좋다며 상담실 와서 표현하고 감.)

(현재의 느낌은?) 편안하다고 함. (편안한 감정으로 변화된 이유는?) 또래 상담자와 함께 이동 수업 시간에 같이 다니고, 체육 시간에도 같이 팀이 되어 편안해졌다고 함. 엄마도 집에 일찍 들어오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고 함. (어떤 점이 상황을 변화시켰는가?) 처음 상담 왔을 때는 혼자 힘들게 안 좋은 생각만 했는데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표현을 했고 친구가 같이 다니자고 했다고 함. (친구에게 도움 요청할 때 괜찮았나?) 많이 어색하고, 힘들어서, 말하려고 결심한 첫째 날은 말을 못 했고, 다음날 말했다고 함. 또래 상담자가 대화하자고 할 때 무뚝뚝하게 반응했다면 이야기 못했을텐데 또래 상담자 친구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함.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함. (내담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을~~ 000! 아주 잘했다”라고 함. 내담자에게 용기를 내어 표현하고, 상황을 변화시킨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함.

- 8,9회기(트라우마 해결하기)

(요즘 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요즘은 자살 생각, 자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함. (처음 자해 행동이나 자살 생각이 났던 상황은?) 00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 친구들과 다시 친해지기 위해 사과도 해보고, 잘못을 다 고치겠다고, 잘못을 알려달라고도 하였으나 무시를 당함.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작은 소리로 왕따를 당하는 내담자에게 ‘찌질하고,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함. (화장실에서의 상황에 대한 느낌은?)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다 눈물을 흘렸고 창피하고, 무섭고, 우울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함. (수용하며 충분히 울어도 됨

을 알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줌.) 2~3분가량 소리를 내며 움. 엄마에게 왕따를 당해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엄마는 바뀌면 된다고 하며 바뀔 부분을 지적해 답답했고 화가 났다고 함.(내담자 입장에서 상황을 충분히 표현해 보도록 하고 내담자가 느꼈을 외로움과 우울함, 분노, 답답한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함) 다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친구들, 엄마에게 표현해 보게 함. (빈 의자 기법)

(학교에서 혼자 다니는 친구를 본 적 있는지?) 00가 있다고 말함. (00친구가 혼자 다니는 모습이 찌질하고 불쌍해 보이는지?) 그렇지 않다고 함. 내담자가 보는 00친구의 모습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똑똑하고, 영어, 한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것 같고, 잘생긴 친구라고 함. (00친구도 혼자 다니니 찌질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절대 아니라고 함. (내담자와 00학생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안 좋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음. (왕따 경험 있는 내담자는 찌질한 사람'이 많나?) 잠시 생각하다 아니라고 함. (그럼 화장실에 있던 내담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너는 찌질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친구들이 말도 없이 왕따를 시켜 속상하고 무서웠던거야, 친구와 대화가 안되어서 잠시 혼자 있었던거야" 라고 말해주고, 함께 있어 주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 줄 것임. (내담자에게 친구는?)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함. (친구들에게 내담자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힘들 때 함께 있어 주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고 싶음. 왕따 사건 때 엄마에게 느꼈던 속상하고 화가 났던 마음을 '나-전달법'으로 직접 표현해 보고 엄마의 마음도 들어보도록 과제를 내 줌.

- 10회기(감정 알아차리기와 해결 방법 찾아보기)

(지난 회기에 엄마에게 느꼈던 마음을 '나-전달법'으로 표현해 보았는지?) 엄마가 내담자의 말을 듣고 힘든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함. 엄마가 내담자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면 미안했다고 사과도 해서 좋았다고 함. (엄마에게 표현한 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했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됨.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느낌은?) 엄마가 더 좋아졌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엄마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내담자가 한 뼘 자란 것 같다고 격려함.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 우울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또래 상담자와 엄마에게 사용했던 '나-전달법'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함. 내담자에게 마음이 힘들 때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임을 설명하고 감정 후의 행동이 중요함을 표현함. 불안할 때 감정을 알아차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 나의 생각과 감정 바라보기 연습과 저녁 시간에 부정적 감정이 생길 경우 해소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의 전화, SNS를 안내함. (내담자의 감정알아차리기에 필요한 노트와 감정, 바람 목록표를 선물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함) (그 외 내담자가 불안하고 우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엄마, 친구, 선생님에게 힘든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함.

핵심 신념인 '친구만이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줄 거야'라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하고 답답한 감정이 생길 때 내담자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가족,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다고 함.

- 11회기 (감정 알아차리고 문제 해결하기)

(최근에 속상한 감정이 생겼던 적이 있는지?) 친구 00가 약속을 안 지켜 화도 나고, 속상했다고 함. (친구에게 생긴 감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유튜브 보다 잤다고 함. 지금도 친구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웃으며 지내지만 친구에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함. (친구에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다가 서로 어색해지고 친구가 내담자를 싫어하게 될까 걱정되어 표현하지 않았다고 함. 감정, 바람 목록표를 주고 종이에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보기 위해 상황과 느껴진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게 함. (적어 본 후 어땠

는지?) 계속 쓰다 보니 친구가 약속을 어겨 화가 난 것보다 내담자보다 다른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했던 것 같다고 함. (섭섭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친구에게 내담자의 속마음을 말하고 싶다고 함. (속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직접 말하기는 부끄럽고, 편지를 쓰겠다고 함. 상담실에 준비된 예쁜 편지지 중 선택하게 하여, 친구와의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과 바램을 편지로 표현해 보게 함. (편지를 전달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까?)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도 친구에게 정직하게 감정과 바램을 표현해서 더 친해질 것 같음. (친구에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말을 해야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숨기고 대하면 불편해서 더 친해질 수 없을 것임. 그리고 나의 속상한 마음도 해결이 됨.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상할 때 친구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함.

- 12회기(상담 효과 측정)

상담 효과 측정을 위해 척도 질문과 AMPQ-III 검사 실시함. '내가 좋아졌는지 정도'를 통해 자아존중감 변화, 어머니와의 관계 변화, 학교 적응도,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AMPQ-III 검사를 통한 정서 행동, 자살 생각, 자해 행동 변화 측정함. 자아존중감 척도 질문에 2점->7점으로 5점, 어머니와의 관계 관련 3점->8점으로 5점, 학교 호감도 관련 5점->9점으로 4점, 대인관계능력 관련 3점->7점으로 4점, 문제해결능력 관련 1점->6점으로 5점 상향 조정됨. AMPQ-III 검사를 통해 정서행동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임.

심리적 부담	기분문제	불안문제	자기통제부진	죽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자해를 한적이 있다
7->2	13->2	14->6	14->7	그렇다(2점)->전혀아니다(0점)	그렇다(2점)->전혀아니다(0점)

- 추수 상담

보석 비즈 만들기 프로그램,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해 정기적 정서 관찰 및 성취 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 사회성 발달, 정서적 안정감, 진로 탐색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함.

5 상담 성과

1. 자아존중감 향상됨.

- ▶ 자아존중감 척도질문 실시 (2점->7점으로 5점 상향 조정됨)

2.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 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음.

- ▶ 감정 노트 적어보기, 친구, 가족, 선생님과 대화하기, 1388, SNS 상담 기관 안내를 통한 문제 해결

3.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가정에서 귀속감을 갖게 됨.

- ▶ 어머니와 관계 척도질문 실시 (3점->8점으로 5점 상향 조정됨)

4. 대인관계에서 시도한 대화 방식의 성공 경험을 통해 불편한 관계를 극복하고 관계 능력 향상됨.

- ▶ '나-전달법' 적용을 통한 친구,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
- ▶ 대인관계능력 척도질문 실시 (3점->7점으로 4점 상향 조정됨)

5. 감정,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됨.

- ▶ 문제해결능력 척도질문 실시 (1점->6점으로 5점 상향 조정됨)

6. 학교 부적응 위기를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됨.

- ▶ 학교 호감도 척도질문 실시 (5점->9점으로 4점 상향 조정됨)

7.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자살 생각과 자해 행동을 멈추게 됨.

심리적 부담	기본문제	불안문제	자기통제부진	죽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자해를 한적이 있다
7->2	13->2	14->6	14->7	그렇다(2점)-> 전혀아니다(0점)	그렇다(2점)-> 전혀아니다(0점)

8. 왕따 사건으로 생긴 부정적 자동 사고와 가정에서 안정적 귀속감의 부재로 생긴 가치조건화된 핵심 신념의 변화 생김.

- ▶ 부정적 자동 사고 '친구가 없이 혼자 다니면 찌질한 사람'->'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혼자 다니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
- ▶ 핵심 신념 '친구만이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친구 외에 가족과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줄 사람들이 있다'

9.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때도 등교하여 내담자의 지지자원(한국어학급담임, 한국어강사, 학급 담임, 교과목 선생님, 또래 상담자, 전문상담사)의 긍정적 관심과 수용 경험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과 상담이 이루어져 위기 상황 이 빠른 시간안에 안정적으로 해결됨.



우수상

마음의 거리 0m

최미정 | 대구세현초등학교

상담기간 | 2021.05.28.(금) ~ 2021.09.15.(수) 12회기

다문화학생 유형 | 국내출생

상담유형 | 개인

학교급 | 초등학교

주요 호소문제 | 가족관계, 정서



사례개입의 과정과 절차 방식으로 사례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담자의 학교적응문제와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상담자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강조와 다문화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점이 돋보인다.

1 주요 호소 문제

1. 가족문제 : 아빠가 보고 싶어요.
2. 대인관계문제 :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있으면 즐겁기도 하지만 뭔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먼저 말 걸기가 망설여져요.
3. 학습된 무기력 : 나는 잘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 지도 모르겠어요.

2 기본정보

1. 인적사항

- 1) 성명(가명) : 마음이
- 2) 생년월일 : 의뢰당시 만 7세
- 3) 학력 : 의뢰당시 초등학교 2학년
- 4) 성별 : 여

2. 내담 경위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마음이의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내 Wee 클래스에 방문하여 의뢰함. 평소에도 좋지 않던 집중력이 더 떨어졌다고 하심.

3. 인상 및 행동 관찰

보통 키에 마른 체형으로 팔과 다리가 길며 까만 피부에 곱슬머리임. 쌍꺼풀이 진하고 눈이 크고 속눈썹이 아주 긴 편으로 처음 보기에 이국적인 외모임. 옷을 귀엽게 이쁘게 입고 목소리는 작은 편임. 한국말의 발음은 좋은 편이고 표현력은 다양하지 않고 단조로운 편임. 걸음걸이는 조심성 있게 걸으며 상담실에 와서 아이클레이를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며 바로 해 보고 싶어 함.

4. 심리검사 결과

1) 동적가족화(KFD)

왼쪽은 마음이, 오른쪽은 모, 함께 만두를 빚는 모습을 그림. 색칠한 만두는 왕만두라고 했으며 앞머리가 눈을 가리네? 라고 물으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라고 답함. 부를 그리지 않음. 모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며 상호 작용이 활발함을 추측할 수 있음.



2) 기질 및 성격 검사(JTCI)

JTCI 7-11 프로파일									
JTCI 7-11	척도	원점수	T점수	백분위	30	백분위 그래프	70		
기질	자극추구(NS)	38	72	98		NS	50		
	위협피피(HA)	36	67	94		HA	14		
	사회적 민감성(RD)	32	54	60		RD	60		
	인내력(PS)	30	57	72		PS	72		
성격	자율성(SD)	21	31	2	3	SD			
	연대감(CO)	23	32	4	4	CO			
	자기초월(ST)	24	69	96		ST	96		
	자율성+연대감(SC)	44	29	2					

자극추구가 98%tile로 높은 편임. 충동적이며 남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숨어 있는 보상을 잘 발견하는 반면 단점은 욕구가 좌절될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의욕을 상실함.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 불안정하고, 일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 있음. 위협회피도 94%tile로 높은 편임.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수줍어 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함. NS와 HA의 높은 기질적 특징이 마음이의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음. 자율성과 연대감은 아주 낮은 반면 자기초월은 아주 높은 점수임. 자율성과 연대감을 합한 백분위 점수가 2%tile로 아주 낮아서 미성숙함을 의미함. JTCI는 타당도 척도가 없어서 검사의 신뢰도에 대해 불안정함.

3) 부모양육태도검사(PAT)



모의 성취압력과 과잉기대는 지나친 반면 간섭과 처벌은 미흡함. 초등 저학년에는 적당한 간섭과 처벌을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의 중간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필요함을 코칭함.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태도이므로 일관적인 양육방식을 할 수 있도록 상담함.

4) 진로발달그림검사(CFPI)



현재 마음이는 성우(A)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고 태권도(R)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임. C-S 코드이긴 하지만 R,I,A 도 33으로 비슷한 수준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1) 어머니(39) : 10여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옴. 고정적인 직장은 없으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간헐적으로 하심. 마음이와 상호작용이 많은 편이고 양육방식이 관대하고 허용적인 편임. 처음 국제 결혼한 남편과는 첫 만남 후 몇 시간 만에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마음이가 2살 무렵 이혼하고 현재의 남편과 5여년 전 재혼함.
- 2) 아버지(49) : 술을 먹고 마음이 방에 들어가서 성추행을 하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이와 놀아 주기도 하고 어린이날 선물을 사 주기도 함. 마음이 모에게 돈을 특별하게 주지도 않고 외도도 일삼는다고 함.
- 3) 사회적 관계 : 단짝 친구는 없고 학급에서도 동성과 친한 사람은 별로 없음. 여자보다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빠르다고 담임이 보고함.

6. 발달사 및 주요 호소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

마음이가 2세 무렵 친부와 모가 이혼한 후 모와 살다가 지금의 계부와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됨. 모는 마음이의 친부와 결혼 당시 애정없는 국제결혼을 했으나, 현재의 계부와는 사랑을 느껴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함. 교실에서 마음이의 책가방 지퍼를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을 갔다 오니 반 친구들이 가방을 열어 본 사건이 있었음. 그 이후로 꼭 지퍼를 잠그고 다니려 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다고 함. 친구들과 친하게 어울려 놀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겠고 이미 친한 친구들이 형성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함. 마음이는 스스로를 잘 하는 게 없으며 선생님이 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고 함. 다른 친구들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를 잘 하지도 못 한다고 생각함.

7.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상담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모와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돌봄.
현재 성우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음.
힘든 상황에서도 결석하지 않고 출결 상태가 좋음.

3 사례개념화

1. 문제 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발달 과정

마음이가 2세 때 친부와 모가 이혼을 하고 모 혼자 주양육자로서 역할을 함. 그 후 모는 사랑을 느낀 현재의 계부와 재혼을 하고 지금의 지역으로 이사를 함. 친부와는 애정없이 결혼을 해서 마음이를 낳고 바로 이혼을 하고 현재 연락을 하지 않는 중이라고 함. 모의 가정에서의 기능 수준은 현재의 남편과 마음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가정을 꾸리고 아낌없는 희생을 하는 등의 과대기능을 함으로써 자기분화 수준이 높지 않은 편으로 사료됨. 분화 수준이 낮은 모와 마음이는 융합관계로 보여짐. 모와 마음이의 경계가 명료하지 않고 흐려진 경계 지점에서 마음이는 모의 의견이나 감정에 동의하는 밀착되고 의존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많음. 이에 따라서 모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마음이의 감정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부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음. 또한, 초등 2학년으로서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기 보다는 누구나 갖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열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JTCI(아동용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 사회적 민감성은 백분위 60%tile인 반면, 연대감은 4%tile로 간격이 심한 편이고, 특히 연대감은 굉장히 낮은 백분위 점수임. 즉, 기질적으로는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은 약간 높지만, 성격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배경으로 성장과정에서 타인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 성격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이러한 성격은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양육자의 적당한 성취 압력은 자녀의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과 초조함을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자녀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모습보다 더 큰 과잉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더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 사례에서 마음이의 실제의 자기(the actual self)와 모가 마음이에게 바라는 이상적 자기(the ideal self)가 불일치함으로써 마음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감소되고 위축되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짐. PAT 부모양육태도 검사에서 간섭과 처벌은 미흡한 반면, 성취압력과 과잉기대, 비밀관성은 지나친 것으로 보고됨.

2. 상담 목표 및 개입 방향에 대한 이론적 설명

- 1) 가족문제 : 보웬의 다세대 가족상담이론에 따르면 현재 마음이와 모는 융합된 관계로 분화 수준이 낮아 긴장과 불안 수준이 높은 편임. 마음이 스스로 계부에 대한 감정, 친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녀간의 명료한 경계선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내방 당시 모와 마음이 사이가 지나치게 융합되어 있어 적절한 분리 시킴으로써 모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마음이와 모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한 때는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협동하고 지지하며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함. 다만, 마음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모의 코칭과 적절한 친밀감은 허용하되 마음이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녀간 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따라 부에 대한 감정을 공감해 줌으로써 지금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마음이의 개성과 정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2) 대인관계문제 : 다문화 가정이라는 배경이 마음이를 더 위축되게 했을 가능성이 있음. 해결중심상담이론에 따라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먼저 말 건네기를 목표로 함.
- 3) 학습된 무기력 :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함. 즉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의욕상실, 열등감, 우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믿음이 없는 상태이므로 반두라(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4 상담 목표·전략 및 개입 절차

1. 상담 목표와 전략

1) 가족문제

(1) 목표 : 가. 유관기관에서 상담, 안내를 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기존중감과 분화수준을 높일 수 있다.

(2) 전략 :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제공, 모와 마음이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안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나의 입장 기법, 나 전달법(I-message 기법),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 나비포옹

2) 대인관계문제

(1) 목표 :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 있다.

(2) 전략 : 카카오톡 오픈 채널로 상담 선생님과 소통, 친구들 말을 잘 들어주기, 자신의 장점 3가지 말하기를 통해 자신감 키우기

3) 학습된 무기력

(1) 목표 :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실제 성공경험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2) 전략 : 진로검사, 실제 성취경험 말하기, 타인의 성공 목격 말하기, 자기 암시 기법

2. 상담 과정 및 개입내용

1) 가족문제 : 환경의 변화와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 혼란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여 모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 내담자인 마음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기도 하고 모도 우리나라 말과 문화와 사안 대처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마음이와 모를 함께 상담하기도 하고 다른 시간을 정해 상담을 진행했음. 모에게 아동 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이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을 안내하고 연계하여 심층 상담과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지만 한국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거리는 0m임을 느끼게 함. 모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숙련직업기술을 배우기로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배움에 임했음. 마음이는 지역아동보호센터에 연계하여 미시체계를 확장함.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나는 또래, 교사 등과 직접적이고 양방향적인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미시체계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체계의 경험을 선택하고 수정해 나감으로써 발달과정을 도움. 상담자가 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며 마음이의 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공감적 이해의 자세로 경청함. 이를 통해 마음이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음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음. 마음이의 상처 회복을 위해 상담 시작과 끝에 항상 나비포옹을 함. 두 손을 나비 모양으로 가슴 위에 올리고 마음이의 심장 울림에 따라 왼손, 오른손 번갈아 토닥여 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함. 나 전달법의 4가지 구성요소 행동(사건), 나의 감정, 바람(욕구), 부탁을 이용해서 연습을 함. 이를 통해 모와는 물론 또래 등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에 경청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함. 또한 나의 입장 기법으로 모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마음이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도록 함. 모의 정서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으로 마음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도움으로써 모녀 간의 정서적 반사반응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효과적임. 모에게도 마음이가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경청할 것을 코칭함.

- 2) 대인관계 문제 : 상담교사와의 관계가 모델링이 되어 또래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상담함. 특히,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Wee클래스에서 실제 상담 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널, 문자를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비대면 상담창구를 활용함. 마음이 뿐만 아니라 모는 학교의 행정적 제반사항은 물론 한국에서 관공서에서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자,전화, 카카오톡 오픈채널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밤에 모녀만 있어서 불안해 할 때 심리적, 정서적 안정화를 위해 상담을 하기도 함.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도 랜선 상담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되었음.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으려면 친구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상대의 말을 귀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함. 이에 상담실에서 상담교사가 했던 말을 듣고 재진술 하는 연습을 함. 이 때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는 길지 않고 그 연령에 맞는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마음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함. 서로 역할을 바꾸어 마음이가 말을 하면 상담교사가 경청 후 재진술을 함. 상담실은 실제 생활에서의 축소판임을 깨닫고 상담실에서 연습한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할 것을 이야기함. 자신의 장점을 말하라고 하자 처음에는 없다고 함. 상담교사가 먼저 개방적인 태도로 장점을 말하는 모델링을 보임. 뭔가 대단하고 큰 거 보다는 사소한 것들이 모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줌. 마음이는 늘 친구들은 다 잘 하는데 비해 자신은 잘 하는 것이 없어서 먼저 말 걸기가 힘들다고 함. 상담교사가 먼저 상담실에 꾸준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이의 장점이라고 하자 그런 것도 되냐고 함. 엄청 큰 장점이라고 칭찬하고 자신의 장점을 탐색하도록 도움. 엄마가 해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과 집의 강아지와 잘 논다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해 주고 인정의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상담함. 또, 친구들이 자신의 물건을 만졌을 때 화를 내면 친구들이 싫어할까봐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담함.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히 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함. 이 상황에서도 나 전달법을 통해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이가 일방적으로 참게 되면 마음이가 힘들어지고 그 관계도 지속되지 못 한다고 상담함.
- 3) 학습된 무기력 : 초등학교 2학년으로서 진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연령이지만 Super와 Ginzberg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다양한 직업과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과 공상을 즐기는 환상기에 해당됨. 이 시기의 진로환상(Career Fantasy)은 직업에 대한 흥미와 능력, 적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큼. CFPI진로 발달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환상 RIASEC 프로파일에 따르면 관습형-사회형(C-S)의 특징을 보임. 진로검사를 해 보니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 함. 진로검사는 하나의 참고자료이며 마음이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 주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상담함. 현재 마음이가 하고 싶은 일은 성우라고 함. 유튜브에서 성우가 나와서 목소리 더빙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본인도 해보고 싶다고 함. 진로환상과 일치도는 조금 낮지만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상담함. 더빙하는 것을 상담교사 앞에서 실제로 자진해서 하는 모습을 보임. 남 앞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편인데 극복하고 더빙 모습을 보여 준 것에 대해 크게 칭찬해 줌. 성우라는 직업명을 몰랐는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고 성우가 되기 위해서 목관리를 잘 해야 됨을 상담하고 성우가 되고 싶은 희망이 지속적이라면 꾸준한 관심과 연습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함. 배우고 싶은 것이 태권도와 피아노라고 하여 모와 상담 후 지원금을 받아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태권도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칭찬과 격려를 해 줌. 태권도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승급 심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품띠를 따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고 함. 발차기 할 때 처음에는 발이 높이 올라가지 않아 속상했다고 함. 꾸준히 다니고 연습, 노력한 결과 이제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함. 마음이 스스로 성공한 경험과 타인의 성공 경험을 통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학습된 무기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함. 자기 암시 기법을 알려주고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를 거울을 보며 해 보도록 함. 이로써 상담자가 없는 집, 교실에서, 큰 소리로 또는 마음 속으로 외치면서 상담자와의 암호처럼 마음의 거리 0 m를 느끼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음. 에밀 쿠에의 긍정적인 자기 암시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상담함.

5 상담성과

1. 가족문제

마음이와 모를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심리 정서 지원을 받고 있음. 유관기관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으로 왕복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여 차량지원을 요청하여 부담을 덜어줌. 모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을 다닌 결과 속눈썹 연장 과정 수료증을 받고 엄청 기뻐했고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음. 마음이는 지역아동 센터에서 학습 코칭과 저녁식사 지원을 받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늘었음. 상담 초기에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휴대 전화의 프로필 사진도 아빠 사진을 그대로 둘 정도였으나 현재는 본인의 사진으로 바뀌었음. 부에 대한 그리움을 억압하고 부정하기 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적 이해를 해 줌으로써 감정 해소를 터득한 것 같음. 모와의 분화수준을 높여 불안과 긴장 수준을 낮추는 것은 너무 오래된 관계이기에 단기간에 변화는 어려워 보임.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모가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모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마음이 앞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마음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도록 모가 먼저 모델링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함. I-message도 연습할 때는 곤잘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직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함. 어른도 단기간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체화 될 것이라고 상담함. 모에게는 남편의 부재, 마음이에게는 부의 부재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 지역 아동센터의 연계와 유기적인 협조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음이와 모가 마음의 거리만큼은 0m를 느끼도록 촘촘한 상담체계를 지원함.

2. 대인관계 문제

코로나 19로 사회적인 대면관계가 줄어든 만큼 학교에서 마음이가 실습할 기회는 많지 않았음. 그러나, 지역 아동센터, 태권도장, 피아노 교습소 등 마음이의 미시체계는 더 늘어난만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음. 실제로 센터의 원장님, 태권도장의 사범님 등과 일정, 차량 시간 등을 의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음. 교실에서도 마음이가 실수로 가방을 열어 놓고 복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반 친구들이 가방에 손을 대지 않았으며 손을 대었다면 자신의 생각을 I-message 기법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함. 친구들과도 시간이 2학기 들어서는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먼저 말을 걸기도 함. 실제로 Wee클래스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 보다는 아직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이 남아 있으나 상담 초기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으로 집단에 임함.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널로 밤에 아빠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고 해서 어떤 고민이냐고 물으니 아니다면서 해결되었다고 하며 프로필 사진을 본인의 사진으로 바꾸었음. 이에 대해 지속적인 탐색을 하고 마음이의 감정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겠음. 자신의 장점에 대해 열손가락을

그리고 써 보라고 하니 상담 초기보다 더 많이 쓰고 본인도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워함.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상담함. 얼굴색이 다르고 이국적인 외모라서 거리감이 느껴져 먼저 말 걸기가 어색할 때도 있었던 마음이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의 말에 귀기울여 듣는다면 마음의 거리는 0m 라는 용기를 가지게 됨.

3. 학습된 무기력

진로검사 결과 관습형-사회형의 특징을 보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며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형의 특징에 따라 집단 운영 시 자신이 잘 하는 아이클레이로 과일을 만들기를 집단원에게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함. 자신이 잘 하는 분야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고 마음에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함. 앞으로 관습형의 특징을 살려 지난 1주일동안 받은 돈과 사용한 돈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거나 지금 마음이가 가지고 있는 필기도구와 노트가 어떤 것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하여 정리해 보는 진로활동시간을 가질 계획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나의 적성과 일치도를 생각해 보고 내가 예외적으로 잘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효능감을 높여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력할 계획임. 자기암시기법을 꾸준히 상담한 결과 자신의 믿음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품띠를 따기 위해 열심히 태권도를 다니고 있음. 또한 모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에게 과잉기대와 지나친 성취압력은 오히려 자녀를 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음을 상담함. 자녀의 사소한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잘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칭찬을 하겠다고 하심. 마음이에 대해 조건화된 가치로 사랑을 주기보다 존재 자체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함. 부모님의 변화된 태도에 마음이는 새롭게 다니는 태권도, 피아노,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적응도 잘 하고 열심히 모습을 보인다고 하심. 마음이는 태권도에 부쩍 흥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진로장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모의 마음이에 대한 이상적 자기와 마음이의 현실적 자기간의 정서적, 마음의 거리가 0m 가 될 수 있도록 양육자 코칭을 함.



장려상

끝없는 아이의 절망 속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다.

박동진 | 한양공업고등학교

상담기간 | 2019.12.23.(월) ~ 2021.04.09.(목) 30회기

다문화학생 유형 | 국내출생

상담유형 | 개인

학교급 | 고등학교

주요 호소문제 | 학교부적응, 가족관계, 대인관계, 정서



학교폭력 경험을 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취업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으로 조울증을 경험하는 사례로서 상담의 과정과 절차, 개입의 방향이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사례 개념화와 개입의 절차 등을 충분히 잘 기술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개입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게 사례가 기술되었다.

1 주요 호소 문제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나서 학교의 조치와 정신건강의학적 치유 및 상담을 통해 안정감을 찾아가다가 악몽과 감정기복, 습관적 자해, 극심한 우울감 등을 겪으면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려움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특히 아이는 꿈에서도 생생하게 피해받은 장면들이 떠올라 잠을 거의 못자면서 지극히 예민해져있고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매우 컸다. 또한 우울감에 젖어 순간 자신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하면 자해를 시도하려고 했고 누군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기를 호소하였다. 아이는 자신의 진로목표와 현재의 능력, 성취수준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보니 불안감과 좌절감에 빠지면서 감정기복이 심화되고 조증과 우울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한 일상의 부적응을 염려하는 마음이 컸다.

2 기본정보

1. 인적사항

가정 형태는 어머니(결혼이주)와 누나, 그리고 아이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이를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고 특히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없으며 알콜중독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로 인해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였고 언어적으로 서툴고 문화적 차이를 겪고 있어 아이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누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는 어머니와 친밀한 편이지만 자신이 짐이 될 것 같아 자세한 자신의 속마음과 이야기를 잘 털어 놓지 않고 주로 누나에게 의지하는 편이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만 아이 눈치를 다소 보는 경향이 있다보니 매번 주춤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누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2. 내담 경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심리적 상처와 고통이 컸다. 가해학생과 분리하면서

집중적으로 아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정신과의원의 자문과 약물 및 심리 치료 서비스를 연결시켜주었다. 그렇게 아이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 하다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트라우마에 따른 악몽에 젖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환각이나 환청도 경험하면서 만사가 귀찮고 가라앉은 극심한 우울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자기 내면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습관적인 자해가 나타나고 자기 조절을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 상담 회기를 이어가면서도 학교 내 관련 부서와 학과, 상담실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적응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상담교사로서 마라톤 상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여러 접근과 시도가 필요했고 여러 자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육복지센터 등과도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면서 종합적인 코디네이터와 상담교사로서 아이의 적응에 힘쓰게 되었다.

3. 인상 및 행동 관찰(생략)

4. 심리검사 결과

심리검사(척도)는 아이의 심리상태와 아이와의 상담목표와 개입전략을 명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에만 의존하기보다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척도들을 각 논문자료나 서적 등을 참고하여 발굴해서 체계적이고 절충적으로 척도를 활용하였다.

가. K-PID-5(이상심리유형)

* 출처 :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의 구성과 타당화, 홍태화외 (임상심리학 한국판 저널, 2018)

이 척도는 부정적 정서(걱정/근심/불안 등), 관계 결핍, 적대성(관심요구, 조종 및 과장), 탈억제(충동조절의 어려움), 정신증(정신병리적 증상) 항목요소들을 측정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심리 척도의 근간을 이루는 미국의 DSM-5 최신판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단축형 한국형 검사로 용이하게 여겨진다. 학생의 척도 결과는 부정정서성과 관계결핍(고립), 탈억제(충동), 정신증의 항목에 고르게 유의미하게 나와서 정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곤란, 조절능력의 결여, 정신쇠약의 측면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또래애착유형 척도

* 출처 :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소외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조춘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치료전공, 2011)

이 척도는 유의미한 대상과의 관계의 모습을 측정하는 검사로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나뉜다. 학생의 척도 결과는 의존형과 두려움형이 동시에 나타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과 불안요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KIIP 대인관계 문제척도

* 출처 :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지혜(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이 척도는 인간관계의 문제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로 내주장을 고집하며 타인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고자 하는 성향과 관련된 '통제지배', 타인의 입장을 지지해주기 보다 자신의 안녕에만 과도하게 관심 갖는 행위와 관련된 '자기중심성', 타인에게 애정 등의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인색한 유형인 '냉담', 비사회적 관계를 피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억제',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행위와 관련 있는 ‘비주장성’, 뚜렷한 주관 없이 타인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르고 끌려 다니는 것과 관련되는 ‘과순응성’,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책임지려는 행동과 관련된 ‘자기희생’, 타인에 대한 과도한 참견과 지나치게 문제를 측정하려는 행동인 ‘과관여’로 구성된다. 학생의 검사 결과는 비주장성이 높게 나왔고 지나친 수용과 자기희생이 뒤를 잇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신에게 중심을 두기보다 타인의식과 타인의존 성향이 강함을 볼 수 있다.

라. 자아개념 척도

* 출처 : 마음공부가 아동의 성격, 자아개념, 분노통제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장경도(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04)

이 척도는 자신의 콤플렉스, 즉 가장 취약하게 바라보는 자기 영역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고 크게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자아라는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생의 검사결과는 신체, 도덕적 자아 가장 낮고 가정적 자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신이 처한 모습에 대한 열등감과 그 반작용으로 응징과 복수의 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 가정(심적 부담)요소 검사

* 출처 :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손상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한수경, 2013년 2월)

이 검사는 가정에서의 과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의 4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학생의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트라우마) 경험이 뿌리가 되어 계속 인간관계의 연속적인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취약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바. 자기(심적 부담)요소 검사

* 출처 : 청소년의 애착, 대인관계 특성 -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중심으로, 이동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7월)

이 척도는 대인관계 욕구 척도(INQ-R)는 Joiner(2005)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을 근로 하여 Van, Orden, Witte, et, al.,(2006)이 개발한 것으로 단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을 측정하고 있다. 학생의 검사 결과는 단절된 소속감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남들에게 짐이 되는 느낌에 사로 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 인간관계 유형 검사

* 출처 : 과학교과 일반고 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귀순, 2014년 2월)

이 척도에서 역할영역은 대인관계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역할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감 성향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관계성향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으로 구성된다. 표현성향은 대인관계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취하는 태도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으로 나뉜다. 학생의 검사결과는 동정-수용적 경향과 반항적-불신적 경향이 높게 나타나 모순적으로 타인에 의지

하고 수용하고자 하면서도 반대로 의심하게 되고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생략)

6. 발달사 및 주요 호소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

아이는 어린시절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부모님의 이혼을 접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건강한 애착경험을 갖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겪게 되면서 의존-두려움, 수용-불신의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 인간관계의 문제에 봉착하고 정서적으로도 양가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며 더 나아가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으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단절된 소속감과 자신의 무가치성(짐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그에 대한 분노를 습관적 자해로 풀어내고자 했고 결국 자기 조절이 되지 않고 자살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상담교사의 활약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3 사례개념화

1. 문제 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발달 과정

아이의 문제요소는 크게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그리고 욕망의 요소로 나뉘 볼 수 있다. 인지적인 측면은 피터 포나기의 '정신화' 이론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유추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적절한 균형적 관계를 이루는 능력을 정신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결여에 해당된다. 초기 부모님과의 관계는 정신화능력의 발달과 건강한 애착관계의 형성의 밑거름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좌절이 있었고 또래 관계에서 마저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으로 남들에게 그저 짐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자살심리학자 '조이너의 이론'에 비추어볼 때 아이의 자해나 자살기도 역시도 소속감과 자기가치감의 부족에서 출발하고 더 나아가 '수치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이 강할수록 자기파괴적 문제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리처드 래저러스' 이론에서처럼 감정의 대비와 양극성을 이해하고 마주하지 못하고 그 감정들에 뒤섞여버리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경계를 넘나들며 혼란에 빠지면서 감정기복이 심화되는 현상을 아이는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악셀호네트'의 이론에서처럼 사람은 결국 인정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면이 있는데 아이 역시 소속감과 인정 욕망을 얻고자 오히려 수용하고 비주장성의 측면을 강화하면서 관심을 얻고자 하는 면도 있다.

2. 상담 목표 및 개입 방향에 대한 이론적 설명

상담의 목표는 결국 또래관계에서의 실패요소,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의 한계,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선 첫째로 아이의 정신화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정신화 능력은 앞서 포나기의 이론을 언급했듯 타인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균형있게 조율하고 추론하고 반영해가는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아이가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대인관계의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입은 정신화 능력을 높이는 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객관적인 척도들을 기반으로 적극적 '선언'과 '분석'의 대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척도기반 인지적 상담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리처드 래저러스의 이론을 토대로 양가적 감정을 균형있게 수용하고 핵심감정과 보조감정을 구분하며 감정의 흐름을 알고 통합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를 활용하여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의 고든 모델(시네틱스전략)을 반영해서 구조화된 감정 시치유 양식과 모델을 적용한다. 즉 떠오르는 고민과 상황

에서 주요 몰입하는 있는 감정이 무엇이고 감정요소를 직접 비유와 구체화를 거쳐 그 이면의 갈등요소를 표현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를 쓰며 서로 교류해보는 활동을 한다. 끝으로 악셀 호네프 이론을 기반으로 인정 욕망을 위해 어떤 자신의 전략전술을 선택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적절한 전략전술을 선택하여 건강한 인정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목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

4 상담 목표·전략 및 개입 절차

1. 상담 목표와 전략

① 아이의 정신화 능력 높여주기(전략 : 척도기반 인지 중심 상담활동)

아이의 다양한 측면(생각, 감정, 자아개념, 애착,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하여 각 대표적인 척도를 활용하여 그 결과와 문항별 반응을 따져보면서 척도기반 인지 중심 상담활동을 하며 이로써 상담과정에서 '선언'과 '분석'의 기회를 갖는다.

② 아이의 양가감정 요소를 분석하고 통합하기(전략 : 시 치유 상담활동)

아이가 몰입하는 장면요소(트라우마)에서 떠오르는 핵심감정과 보조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들 사이에서의 갈등요소를 탐색하며 감정을 비유해보고 구체화하여 '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써보고 서로 교류하는 활동을 한다.

③ 아이의 건강한 인정욕망 실현하기(전략 : 인정욕망에 따른 전략전술 다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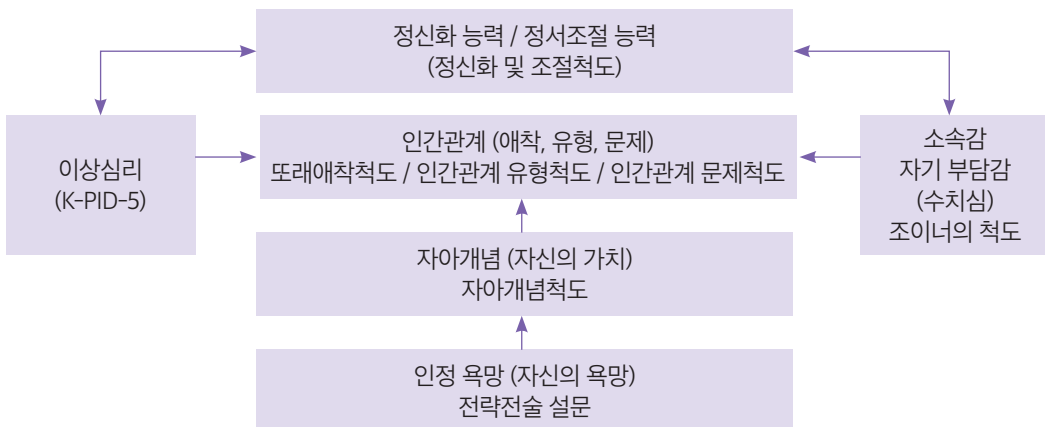
아이의 근본적인 타인을 향한 인정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간관계 전략, 전술을 알아보고 직면하여 건강한 전략전술로 바꿔보는 관점의 전환을 이루는 활동을 한다.

2. 상담 과정 및 개입내용

① 초기단계 : 척도기반 인지 중심 상담활동(10회기)

인격을 이루는 앞서 심리검사의 측면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척도들을 중심으로 아이 스스로 내면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인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한다.

인격을 이루는 이상심리(정신적 요소), 인간관계, 소속감과 수치심, 자아개념, 정신화 능력과 정서조절능력,



인정욕망 등을 각 척도에 의거하여 상담회기 마다 아이와 구체적으로 응답결과를 직면하여 꼼꼼한 ‘선언’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자각하고 문항별 응답과 반응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단순한 공감과 지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와 만남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중기단계 : 정서중심 시치유 상담활동(10회기)

고든의 시네틱스전략을 반영하여 시 치유 상담활동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고안하여 아이와 그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와 장면 속에서 뒤엉켜버린 양가적 감정요소들을 만나‘비유’의 방법을 활용해서 감정 통합과 감정 교류를 활성화시켜준다.

단계	구성	내용
1 상황	떠오르는 고민/상황을 적어보세요	
2 감정	그 순간 주요 몰입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3 비유	직접적으로 자신을 비유하세요. (사물, 동식물, 색깔 등)	
4 구체화	자신의 비유를 구체화 해보세요. (슬프고 그리운 늑대 등)	
5 갈등	갈등요소 (②~⑤로부터 그려지는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 해보세요)	
6 시쓰기	시 쓰기 (①~⑥으로 완성된 자신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시를 써보세요)	
7 소감	소감 (활동을 통하여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소감을 써보세요)	

위의 양식에 따라 떠오르는 트라우마(핵심장면)에 대한 핵심감정을 알아보고 비유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핵심감정과 보조감정간 갈등(양극성)을 살펴보고 시에 녹여냄으로써 ‘시’를 매개로 진실한 감정교류와 감정 조절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감정요소들을 감정카드나 다양한 감정목록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감정 성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하고 싶은 감정 요소와 자신이 붙잡고 싶은 감정 요소를 유익미하게 살펴보고 상담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정과 캐릭터를 가지고 ‘시’를 완성해 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이의 시에 대해 답시 형식으로 써주었고 그렇게 진심 어린 교류를 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공감을 이끌었다.

③ 마무리 단계 : 인정욕망 중심 전략과 전술 전환 상담활동(10회기)

여기서는 아이의 인정욕망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지 직면하면서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관점을 바꾸어 전환시켜보거나 수정해 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하건 그 문제의 본질은 인간관계에 있으며 적절한 인간관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 전략, 전술의 유연한 전환이다. 그래서 활동지를 토대로 함께 대화를 이어가며 상담과정에 접목시켜볼 수 있다.

(활동지 예시)

- 출처 :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1) 다음은 학생들이 학급의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① 성적 ② 경제력 ③ 운동능력 ④ 노력 ⑤ 유머감각 ⑥ 외모나 패션 ⑦ 친구들을 잘 리드하는 것 ⑧ 용기
⑨ 힘(완력) ⑩ 게임 실력 ⑪ 인맥 ⑫ 결단력 ⑬ 잘 노는것 ⑭ 열정 ⑮ 예술감각(춤, 노래 등) ⑯ 기타()

가. 위의 항목 중 내가 현재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것은(1가지)?

나. 위의 항목 중 내가 앞으로 가장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은(1가지)?

(2) 나의 제일 큰 욕구 한 가지를 고르시오. ()

① 쾌락 ② 재미 ③ 편안함 ④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⑤ 자유 ⑥ 의미 있는 삶 ⑦ 소속감 ⑧ 우정
⑨ 건강이나 안전 ⑩ 부유함 ⑪ 이성과의 교류 ⑫ 단란한 가족 ⑬ 기타()

(3) 내가 남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는?()

① 부(경제) ② 외모(매력) ③ 좋은 성격 ④ 여러 가지 재능 ⑤ 강한 체력이나 힘 ⑥ 지능 ⑦ 풍부한 감성
⑧ 노력과 인내 ⑨ 사교 능력 ⑩ 기타()

(4) 다음 중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① 성적올리기 ② 물건사주기 ③ 부탁 들어주기 ④ 배려하기 ⑤ 센 척하기 ⑥ 개그나 농담으로 관심 끌기
⑦ 아부하기 ⑧ 과시하기 ⑨ 힘쓰기 ⑩ 외모나 스타일 가꾸기 ⑪ 거짓말하기 ⑫ 칭찬하기 ⑬ 허세부리기
⑭ 무시하기 ⑮ 따돌리기 ⑯ 깎아내리기 ⑰ 기타()

5 상담성과

아이는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 중국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부재, 자라오면서 겪은 연속적인 또래관계 속 따돌림과 괴롭힘 등에서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으며 그로 인해 감정기복과 함께 극심한 우울감에 삶의 의욕마저 잃었지만 상담과정과 더불어 의뢰기관 연계를 통한 치유(약물)활동과 교육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가정 및 장학지원과 멘토링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트라우마와 악몽 등 아이의 심각한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고 회복탄력성을 높여준 것도 기여한 부분이다. 특히 습관적 자해와 자살기도에

발빠른 대처를 하였고 지속적인 상담과정 속에서 맺은 참만남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었다. 아이는 점차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또렷이 이야기 할 수 있고 감정을 세밀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표현하며 조절하고 주위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적인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상담교사 홀로 문제상황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사, 의료기관 전문의, 관련 부서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도맡아 최선을 다해 이룬 결과로서 아이는 이제 자해나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찾으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로써 끝없는 아이의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을 보았고 그 희망의 날개가 퍼득이는 것을 보며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나의 위치에서 뚜벅 뚜벅 나아가리라 다짐하였다.

PM2021-78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 행 일 | 2022년 1월

발 행 인 | 강대중

발 행 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6층~12층

전 화 | 02) 3780-9700

홈페이지 | www.nile.or.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edu4mc.or.kr(중앙다문화교육센터)

인쇄·디자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02-2271-2526

※ 이 책의 저작권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비매품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